

## 불어권 카나다 연구

원윤수, 한명수, 이인성, 이해방

본 연구의 목적은 카나다 불어권 지역, 즉 퀘벡의 문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확립하는 데 있다. 퀘벡은 주변 영어문화권으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통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고유의 불어권 문화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문화 구도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퀘벡의 역사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퀘벡인들의 노력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나다 불어권을 역사, 정치, 경제, 예술, 언어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탐구함으로써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음의 사항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주요 연구대상은 카나다 불어의 역사, 문화 생활에 불어의 사용이 끼친 영향, 이중언어주의, 현재의 퀘벡의 경제상황, 다원문화주의, 문화의식과 정치의식과의 상관성, 카나다의 미래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퀘벡이 다른 문화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잃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자신의 궁극적 목표에 다가서려는 노력도 잃지 않는 독자적인 문화권임을 알 수 있었다.

### I. 서 론

본 연구는 불어권 카나다 문화에 관한 본격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하나의 전초 작업으로서, 해당 문화권에 대한 포괄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라는 조립식 용어가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이 지역이 세계 문화 구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특히 이 지역 역사에서 의미 깊은 변화를 시사하는 '조용한 혁명'을 계기로, 그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우리 시각에서의 연구는 일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실상 우리의 이 연구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연유로 이 문화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분석·해석하여 기본 시각을 확립하는 작업 자체가 차후 연구의 심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신대륙의 역사는 유럽인들의 신대륙 정착사, 경영사가 그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퀘벡 지역을 가리키는 불어권 카나다의 형성 과정 역시 그러한 전체적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지역은 더 나아가 그 경영 주체인 유럽인들 사이의 갈등과 융화의 반복되는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주체성 혹은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체인 카나다는 다민족, 특히 양대 세력인 영국 이주민들과 프랑스 이주민들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형성한 국가이다. 이들 두 민족 중 먼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나 통치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개발 및 통치 주체의 위치를 상실하고 점차 소외되어 온 프랑스 이주민들은 자기 정체성의 위기와 맞부딪치게 되는 바, 그것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축적이 오늘날의 불어권 카나다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선 공식적 차원에서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영어 문화권과 불어 문화권의 대립 및 새롭게 승화된 차원에서의 통일 지향이라는 시각과 구도 — 다양성 위에 피어나는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 — 속에서 현금의 불어권 카나다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러나 논의를 구체화하면 할수록, 제기된 문제 자체의 명료함에서 멀어진다. 크게 대립되는 각 문화권 역시 그 내부에 복잡하게 분화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논의를 심화시키다 보면, 갈등은 두 언어권의 단순한 대립을 넘어, 그 내부의 다양한 집단적 문화에 의해 때로는 영어권의 어떤 집단과 불어권의 어떤 집단이 의견과 이익을 같이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카나다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묶는 정치적·경제적 조건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 양상은 국가 내적인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전체의 질서와도 관계된다는 점에서 또한 미묘한 변수를 안고 있다. 두 영역은 카나다 연방체 속에 속해 있는 동시에, 범세계적인 띠를 이루고 있는 영연방 문화권과 불어 문화권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바로 이웃에 자리잡고 있어 그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통시적 차원의 문제가 개입하면 논의는 한층 어려워진다. 통시적 차원의 문제란, 현재의 불어권 카나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럽 대륙의 프랑스 문화로부터 분화되어 고유한 문화 양식을 창출해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창출해나가야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그 예속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는 물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터인데, 얼핏 이 문제는 위에서 말한 영어권 문화와의 대립 관계에서 불어권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관점과 상충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양면성이야말로 불어권 카나다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공시적으로는 영어권 문화에 흡수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통시적으로는 대륙의 프랑스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 3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현 불어권 카나다 문화가 꿈꾸는 미래라고 전제할 때, 문제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소 거창한 진술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관점이 확보될 때에라야 비로소 불어권 카나다 문화의 논의는 인류의 미래를 측정하는 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도 유용한 탐구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세계는 더 이상 전통적 민족 개념이나 국가 개념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범

인류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초-민족적 문화권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각 대륙의 블러와 현상은 그러한 이행과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그 초-국가적 체제를 향한 통일성의 지향과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장점을 살리려는 다양성의 지향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를 것인가는 점이다. 그것이 변증법적인 제 3의 차원의, 새로운 혁신의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불어권 카나다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요구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서, 그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실험 실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심과 관점 아래, 우리는 이 연구를 그 기초적 지식의 확보라는 목표에 걸맞게 역사·정치·예술·언어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 각 항목들은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데, 그것은 이 지역의 진정한 변화를 구현하기 시작한 '조용한 혁명'이다. 제도뿐만이 아니라 의식·무의식의 혁신까지를 초래한 이 시간대를 향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공동체적 삶의 여러 국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1장에서 우리는 퀘벡의 역사를 일별하며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역사의 과장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한 변모하여 새로운 집단들을 구성하고 혁신을 꿈꾸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문제를 다루는 2장에서는, 그 꿈들이 어떤 이념들로 형상화되어 어떤 사회 운동을 이끌어내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3장은 그것을 가능케 한 하부구조로서의 경제를 고찰한다. 정치적 이념의 가시화인 경제 구조의 개편은 또한 이 지역의 새로운 정치적 진보의 토대이며, 문화적 풍요의 원천임이 확인될 것이다. 그 문화적 풍요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4장이다. 종속성과 주변성을 과감히 극복해 가는 이 지역의 새로운 예술 활동들은 활기차다. 그 문화 활동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언어라는 시각에서, 우리는 특별히 5장을 불어의 공용화 문제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된 카나다식 불어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할애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앞선 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희미한 윤곽으로나마 제시하여 앞으로의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그 6장은 이 연구가 도달한 그 나름의 결론의 자리인 셈이다.

처음부터 전제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이 기초적 지식의 확립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에 도움이 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객관적 가치가 공인된 부분들을 추출한 후 전체적인 관점과 구도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따로 각주를 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을 대신하려 한다.

## II. 불어권 카나다의 형성 과정

지리상의 발견 이후 신대륙의 역사는 말 그대로 유럽인들의 신대륙 정착사, 경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나다 지역의 근대 역사도 이러한 전체적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그런만큼 카나다 지역의 불어권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반드시 그 선행 작업으로 불어권 문화의 정착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불어권 카나다 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불어권 카나다 형성의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불어권 카나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역사적인 고찰은 정치사적인 고찰이 되기 쉬운 측면이 있으나, 카나다의 근대사에 드러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틀—즉 불어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사적인 고찰만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魁베인들의 요구는 정치적 의사 표명의 문제나 경제적 차취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아 상실의 문제, 즉 풍습, 스타일, 그리고 언어의 상실 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문화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카나다 불어권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카나다의 역사를 크게 구분해주고 있는 정치적 사건을 논의전개의 기본 축으로 하되 그것을 다분히 문화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나다 역사는 1) 발견과 식민지개발 초기 2) 프랑스 통치 시기 3) 영국 통치 시기 4) 카나다 연방 시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여 더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개의 큰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1763년으로, 바로 그 해에 카나다 지역이 ‘프랑스 통치 체제(Regime français)’에서 ‘영국 통치 체제’로 바뀌게 된다(보통 이것을 ‘정복(conquête)’이라 부른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카나다의 사회·역사적 환경에 끼친 영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 정복 이전과 정복 이후의 두 시기를 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복 이전의 단계에서는 신대륙에서의 불어권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정복 이후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불어권 문화가 영어권 문화와 어떤 양상으로 관계맺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카나다의 발견과 식민지 개발 초기

현재의 카나다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유럽인들은 서기 1000년 경의 북유럽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카나다 지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가능성은 아이슬란드 계통의 설화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설제로 랑스-오-메도(L'anse-aux-Meadow) 지역에서 북유럽인들의 흔적이 발굴되었음). 이들은 카나다 지역에서의 정착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로 통하는 북쪽 항해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의 카나다 정착사의 시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는 콜롬부스의 제 1차 항해가 이루어진 5년 후인 1497년, 이탈리아인 장 카보(Jean Cabot)가 영국왕 헨리 8세의 후원 아래 브리스톨을 떠나 캐세이(Cathay: 차이나)에 이르는 북대서양 루트를 탐사하기 위해 카나다 지역을 항해한

바 있다. 계속하여 1524년 프랑소아 1세의 후원 하에 항해한 피렌체인(人) 베라차노(Verrazzano)가 북대서양 연안의 오지에 ‘누벨 프랑스(Nouvelle France)’라는 이름을 붙인다.

카나다 지역에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된 것은 1534년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카나다 땅으로 이르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생 로랑 강 Saint Laurent을 발견하고 부터이다. 그는 2차 탐사에서 생 로랑 강을 거슬러 올라가 스타다코나(Stadacona: 현재의 퀘벡)와 호첼라가(Hochelaga: 현재의 몽레알)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귀금속 채굴에 실패, 그에 의한 식민지 개발이 본격화 되지는 못한다(프랑스어의 ‘카나다 다이아몬드처럼 가짜’라는 표현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구잡이 어선과 모피업자들이 카나다 수역을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모피는 카나다 지역의 초기 주요 식민지 상품으로, 카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의 활동은 이처럼 모피 무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루어진다.

이후 1600년 노르망디인 피에르 쇼뱅(Pierre Chauvin)이 프랑스의 앙리 4세로부터 생로랑 만 일대에서의 모피 무역을 10년간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획득하여 1년에 50명씩의 프랑스인들을 그곳에 정착시키게 된다.

계속하여 전문 측량사인 사ミュ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은 쇼뱅이 죽은 후 생로랑 강 유역의 모피 독점권을 가진 시외르 드 몽(Sieur de Monts)과 협력하여 식민지 건설에 주력하는데, 1608년 샹플랭에 의해 비로소 퀘벡 시가 건설되며 향후 이곳은 신대륙으로의 프랑스 문화 이식에 있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프랑스인들의 신대륙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샹플랭의 퀘벡 건설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이주가 본격화 되면서 신대륙의 불어권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초기에 프랑스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 북서부 출신, 특히 이주자들의 17%가 노르망디인이었는데(도표 1 참조), 이들 초기 이주자들이 카나다 지역의 불어권 문화형성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며, 따라서 이들의 중요성은 여러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민 초기의 시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생로랑 강 유역의 퀘벡 지역 전역에 걸친 땅을 수용하고 정착하였으며 이들이 그 땅에 첫발을 디딘 사람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인구 형성의 핵심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카나다 땅에 뿌리를 박았다. 후대의 모든 이민들은 그들에게 접붙여진 것이다.”

이들 초기 이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카나다 땅에 정착한다. 삼림 채벌업자들이나 탐험가들은 인디안 여인과 혼인을 하는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 중 특히 탐험가들은 멀리 현재의 미국 영토인 오하이오나 미시시피 유역에까지 진출하여 프랑스의 전진기지를 형성하는 주역이 된다. 또한 이들은 후에 인디안들과 연합하여 영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이끌기도 했다. 이들 ‘업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개간한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정착하는데, 이들은 후일 ‘거류민(Les Habitants)’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원류이다. 그 밖에 1665년경 부터는 식민지 개발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한 프랑스 본국이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본국의 극

〈도표 1〉 초기 이민들의 출신지 구성 (프랑스 본토)

	17세기	18세기
노르망디(Normandie)	18.5%	10.9%
일-드-프랑스(Ile-de-France)	14.4	12.2
프와튀(Poitou)	10.9	6
오니, 일 드 레, 오를레昂 (Aunis, Iles de Re, Oleron)	10.6	5.6
생통쥬(Saintonge)	5.8	5.5
페르슈(Perche)	3.9	
브르타뉴(Bretagne)	3.5	8.2
앙주(Anjou)	3	2.6

빈자들 (특히 여자아이), 고아들을 ‘왕의 딸들(Les filles du Roi)’이라 칭하고 누벨 프랑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은 도착한 2주 내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민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 본국에서 파견된 군인들 또한 정착민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식민 지역 치안, 식민지 전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신대륙에 파견되었다가 대부분 그대로 눌러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신대륙의 광대하고 비옥한 농토에 대한 매력이 깔려 있었으며, 또한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범용한 삶에 대한 기피도 그들의 정착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하여 모피매매업자나 삼림채벌업자, 군인들과 본토에서 파견된 행정가들은 퀘벡이나 몽레알 등 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한 반면 농민들, 즉 거류민들은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광대한 농지에 정착하였으며, 우리는 이들을 현재의 카나다 불어권 지역 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실제적인 조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초기 이주민들이 카나다의 거친 기후 지형 조건에 잘 적응하여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은 이들의 출신 지역이 기후나 지형적인 면에서 비교적 거친 프랑스 서북부 지방이라는 점이 이들의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프랑스 본국에서 미리 ‘개척지에서의 힘든 생활에 대한 견습’을 이수한 셈이다. 그런데 신대륙에의 정착으로 인해 이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 즉 프랑스적인 전통을 급속하게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족 단위의 이주에 의해 신대륙에서도 계속해서 전통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초기 이민들과 함께 신대륙에 유입된 카톨릭 교회의 막대한 영향력은 그들이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내적요인들과 더불어 북미 인디언들의 위협 등 외적 요인들이 결합, 신대륙에 정착한 프랑스계 이민들은 신대륙 정착에 성공하면서 서로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 2. 프랑스 통치 시기

### (1) ‘누벨 프랑스(Nouvelle France)’의 성립과 좌절

프랑스의 퀘벡 개발은 리슈리외의 정책에 의해 본격화된다. 그는 당시 유럽의 식민지 열강국인 영국과 네델란드의 식민지 정책에 벼금갈만한 식민지 정책의 수립을 계획하는데, 그 결과 1627년 설립된 것이 ‘누벨 프랑스 회사(La Compagnie de la Nouvelle-France : ‘100인 연합 Les cent-Associes’이라 불리우기도 함)이다. 식민지 개척 초기의 초반 실질적인 식민지 통치권은 사실상 이 ‘100인 연합’에, 다시 말하면 모피업자들의 연합체에 양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본국의 관심 부족과 자본의 부족, 이민자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초기 카나다 식민지 개발은 허드슨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영국계의 식민지 개발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게 정복될 당시는 프랑스 2천만명의 인구 중 신대륙에 불과 7만명만이 이주해 있었던 반면 영국은 1천만 인구 중 1백60만명이 이주해 있었다). 급기야 1629년에는 퀘벡이 영국인들에게 함락당하기까지 하지만, 함락된 퀘벡은 ‘생-제르맹-앙-레 조약(Traite de Saint-Germain-en-Laye)’에 의해 다시 프랑스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이후 누벨 프랑스 회사는 식민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퀘벡의 함락과 귀속 과정에서 모피 무역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1663년까지 누벨 프랑스 회사는 명목상 모피 무역의 주도권과 더불어 퀘벡 지역의 행정적 관리권을 쥐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식민지 개발이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으며 모피 무역의 독점권도 사설 회사(특히 1645년 설립된 ‘거류민 공동체’ 등)에 할양하고 만다.

이렇듯 누벨 프랑스 회사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프랑스는 신대륙에서의 식민지 정책에 일대 개혁을 가한다. 그러한 개혁은 주로 재상 콜베르(Colbert)에 의해 주도된다. 그는 상업 정책의 수립을 새로운 회사인 ‘서인도 회사(Société des Indes occidentales)’에 일임하여 무역의 부흥을 꾀하는 동시에 퀘벡 지역을 프랑스 국왕령에 복속시키고 당시의 누벨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방 총감(intendant)’을 파견, 사법권과 정책수립권, 그리고 군행정권의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총독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지방 총감과 주교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누벨 프랑스에서는 마치 프랑스 본토에서와 비슷한 형태의 권력 계통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또한 이들과 함께 파견된 주교로 하여금 로마 카톨릭의 수호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누벨 프랑스는 더욱 강력하게 결집된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콜베르의 정책이 시작된 1660년 경 이후 대략 1713년까지가 누벨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이 자리를 잡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총감 장 탈롱(Jean Talon) 재직시에는 영국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시기이다. 대략 1670년 이후부터 신대륙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허드슨 만을 중

심으로 세력을 늘려가고 있던 영국계의 이민들과 모피 무역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진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자신들과 동맹을 맺고 모피 무역을 하고 있던 인디언들과 연합, 충돌한다. 특히 1670년 영국계의 ‘허드슨 만 회사(The Hudson Bay's Company)’가 설립된 이후 대립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는데, 신대륙에서의 싸움은 초기에 누벨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다가 (1686년 프랑스 탐험대가 영국의 포스트 제임슨 만 (허드슨 만의 남쪽 끝에 위치)을 점령한 것이 대표적인 예), 1713년 ‘유트레히트 조약(Traité d'Utrecht)’에 의해 아카디아를 영국에 할양해주는 것을 계기로 누벨 프랑스는 브르통 꽃을 제외하고는 생 로랑 강으로의 모든 진입 경로를 영국에 잊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트레히트 조약 이후 얼마간 누벨 프랑스에 유지된 평화 기류는 누벨 프랑스의 경제적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평화 기류에 힘입은 신대륙의 모피값 하락, 개간지의 확대, 프랑스 본토로부터 유입되는 공산품의 혜택, 철광의 개발 등으로 누벨 프랑스의 경제는 일대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누벨 프랑스의 발전은 1740년 발발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하락하게 된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이민이 현격히 줄어들어 개간할 땅을 두고도 개간할 일손이 없는 사태가 빚어진다. 또한 아카디아 등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전투가 누벨 프랑스에 커다란 타격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신대륙편이라 할 수 있는 ‘죠지왕 전쟁(King George's War: 1744-1748)’, 후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죠지 워싱턴이 활약한 ‘프랑스-인디안 전쟁(1754-63)’ 등에서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후, ‘파리 조약(1763)’에 의해 미시시피 동쪽의 식민지 전체를 영국에게 넘겨주고 만다. 이렇게 하여 신대륙에서의 ‘프랑스 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 (2) 초기 불어권 사회의 특성

신대륙에서 프랑스와 영국 간의 기나긴 식민지 쟁탈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누벨 프랑스의 시기는, 결과적으로는 신대륙에서의 프랑스의 주도권이 상실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퀘벡을 중심으로 한 불어권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프랑스 이주민들은 프랑스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 신대륙의 환경에 걸맞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창출해 낸다.

### 1) ‘거류민(les Habitants)’과 ‘본국인(les Métropolitains)’

누벨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들은 크게 거류민과 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거류민들은 주로 퀘벡 (도시 퀘벡이 아닌 퀘벡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로서, 누벨 프랑스에 완전히 정착,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다. 반면 본국인들은 퀘벡이나 몽레알 등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로 상업이나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고급 문화의 신대륙 전수는 본국인들과 카톨릭 계통

의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반면, 삶에 있어서의 사소한 생활 방식이나 비문자적인 전통은 거류민들에 의해 유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거류민들이 신대륙의 땅을 대하면서 스스로 형성해 나간 조그만 전통들은 대략 1760년대 이전까지 프랑스 본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거류민 문화의 성립으로 이어진다. 즉 이미 누벨 프랑스 치하에서, ‘또 하나의 불어권 민족(un autre peuple francophone)’, 다시 말하자면 ‘퀘벡 거류민’ 문화의 성립을 보게된 것이다. 이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은 우선 독특한 주거 형태에서 발견된다.

### 2) 행열형 주거 형태

거류민들은 자리적 여건에 따라 ‘행열(rang)’ 형태를 띠는 독특한 부락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긴 하천변의 좁고 긴 선 모양으로 분할된 지역을 따라 150m 정도의 간격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천변의 땅이 점유되면 그 바깥으로 하천을 따라 다시 도로가 건설되고 또 다시 새로운 행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불어권 카나다의 독특한 주거 형태가 형성되었다. 이때 건설되는 도로는 가능한 한 좁게 만들여져 각 선상에 있는 마을 간의 상호부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래의 강물은 관개(灌溉)에 의해 다음 선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현재까지 발견되며 이와 같은 공간 배치를 중심으로 프랑스 농촌의 전통적인 ‘장원(Segneurie)’이 카나다에서는 독특한 형태로 변형, 정착되기에 이른다.

### 3) 퀘벡의 장원

퀘벡의 사회학자인 장-샤를르 팔라르도(Jean-Charles Falardeau)는 17세기 프랑스 본토와 퀘벡의 농촌에 나타난 군락 형태를 비교 연구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17세기 프랑스 본토의 농촌은 마을, 성, 교회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세 부분은 각기 다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을에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치적인 주민회의가 있으며, 성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관할한다. 성 안의 영주의 역할은 때로는 절대적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을의 본당을 관리하는 지방 사제의 역할은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총감의 역할보다도 미약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프랑스 본토의 장원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영주는 점차적으로 역할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관리자이며 수확의 소유자였다.

반면 퀘벡 지역의 장원제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프랑스 본토와는 달리 신대륙의 장원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기능했다. 그것은 신대륙에서 신분과 거의 무관하게 누구나 될 수 있었던 ‘영주’의 역할이 감소된 테서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 ‘행열형’으로 형성된 마을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마을 형태에 따라 본토와 퀘벡의 장원제를 비교해 볼 때, 그 대략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여 퀘벡 지역에서 거류민들은 독자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프랑스 본토와 퀘벡의 장원제 비교

	프랑스	퀘벡
거주 형태	중심이 있는 원형	거점을 잇는 행열형
영주	마을의 중심에 위치	'막강한 파트롱'의 역할 감소
	마을 관장	행정과 전쟁 수행 전담
마을과 마을	상호고립	상호부조(길)
	상이성	동질성

이웃의 농민들도 마찬가지의 일에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종사하게 되고 각 마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신념을 공유한다. 이와 같이 카나다의 행열형 주거 형태는 급속히 카나다의 사회적 연대성의 기본 단위가 된다.

## 4) 카톨릭 교회

퀘벡 지역의 불어권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카톨릭 교회는 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영주가 수행하던 역할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지방의 사제에게 통합된다. 교회와 그 부속 기구들, 그리고 교회의 행정 단위인 '소교구(*la paroisse*)' 등은 여타의 행정 기구 유형들을 압도한 면이 있었다. 앞서 보았듯 프랑스 본토의 농촌을 구성하는 세 기구는 각기 분담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퀘벡에서는 지방의 정치적 권력에 관한 한 교회의 세력이 절대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거류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극히 빈약했던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누벨 프랑스 체제의 전반에 걸쳐 거류민, 즉 농민 대중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정치적 자치조직도 형성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점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교구 조직은 지방 행정 단위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고, 자연히 그 단위의 관할자인 지방 사제가 지방 정치를 실질적으로 관掌하게 된 것이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든 학교 조직이 수도원 등의 교회 부속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이 교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교구는 사실상 '사제들의 이상이 구현되는(1:38)' 지역이 된다. 실제로 1635년을 기점으로 교회, 특히 예수회의 영향력이 본국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퀘벡의 초대 주교인 라발(Laval) 대주교는 주교 관직을 정치 행정 권력의 원천으로 확립했으며 누벨 프랑스의 식민지 법도 교회가 신도들로부터 십일조를 징수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일부 논자 (특히 19세기의 미국인 프란시스 파크먼)들은 누벨 프랑스를 진정한 '신권 통치(*theocratie*)' 국가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이와 같은 다소 극단적인 견해가 최근의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발 주교의 예로 대표되는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 다시 말하면 프랑스 본국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보다 밀착하려 하는 종교적 경향이 결과적으로 퀘벡지역에 강력한 동질성을 소유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여 우리는 프랑스 통치 하의 퀘벡이 정치적으로 파란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의 정착에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퀘벡의 불어권 문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집적된 문화가 아니라 프랑스적 전통이 신대륙의 환경에 적응하여 형성된 ‘동질성(homogénéité)’의 문화라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문화의 전적인 이식으로 파악되지도 않는다. 이미 1760년 경 “점차적으로 퀘벡 거류민이 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본국인들의 것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 풍습의 혼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복’ 이전에 이미 ‘불어권 문화’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보기에 따라서는 고립된 문화가 신대륙의 한 지역에 정착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의 전통은 프랑스의 통치가 끝나고 영국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맥을 이어 결국에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며, 직접적으로는 이제 논의하게 될 영어권 문화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요 배경이 된다.

### 3. 영국 통치 시기

#### (1) 영국의 퀘벡 정책

영국은 퀘벡 지방을 정복한 직후 ‘국왕 칙령’을 발표한다. 국왕 칙령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계 카나다인 특유의 장원제를 폐지하고 영국 국교 신봉을 식민지인에게 강요하는 등의 다소 강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퀘벡 내에서 국왕의 칙령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오히려 1774년 선포된 ‘퀘벡 조례’가 그 대표적 사례인 관용 정책이 영국인의 식민지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퀘벡 조례에 의해 명목상으로나마 기존의 사회 체제를 이루던 기본틀이 복원된다. 즉 퀘벡 지역의 카톨릭 교회는 신도들로부터 십일조를 징수할 권리를 다시 부여받았으며 장원제가 허용되었고 프랑스의 시민법이 그 효력을 다시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발발한 미국 혁명이 퀘벡의 정치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혁명 이후, 일부 영국계 독립반대자들이 퀘벡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점차 영국 계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퀘벡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데, 그에 따라 영국은 1791년 카나다를 ‘서 카나다(Haut- Canada)’와 ‘동 카나다(Bas-Canada)’로 분할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서 카나다는 오늘날의 온타리오를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이주한 영국계 독립반대자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동 카나다는 퀘벡시의 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두개로 분할된 카나다는 각각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었다. 그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동 카나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 카나다인이 자신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면적인 관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계와 프랑스계 사이에 존재

하는 불평등과 문화적 갈등은 명백히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옳다.

### (2) 불어권 카나다인의 구성

영국에게 정복 당하기 이전 누벨 프랑스 지역에는 비교적 확연히 구분되는 두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엘리트 층’이라 칭할 수 있는 그룹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행정가와 무역업자, 그리고 고급 사제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프랑스인’이라 자각하고 있었으며 주로 도시에 거주한다 (이들 가운데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몽레알은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행정가들이 거주하는 퀘벡은 행정의 중심지가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 사제와 함께 지방의 소교구에 거주하는 ‘거류민’ 그룹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카나다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급 구조는 영국 통치하에서 일정한 내적 변화를 겪는다.

정복된 이후 카톨릭 교회는 선교권의 유지를 위해 영국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 결과 교회는 ‘퀘벡 조례’의 덕택으로 기존에 버금가는 권리의 획득에 성공했으며, 그에 따라 사제들은 오히려 구 체제하에서보다 그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 반면 사제들을 제외한 장교, 행정가 등의 세속 엘리트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자료에 의하면 1000명에서 1200명의 프랑스인들이 귀국), 정복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모피 무역을 하던 상인들도 정복 이후 상권을 상실한 채 귀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되자 농업에 종사하는 거류민들을 제외하고 퀘벡에 잔류한 엘리트 층은 궁색한 영세 사업자나 하급 관리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완과 자본이 부족한데다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상황도 아니어서 사실상지도 계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나마 영세 상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국고 환어음과 지폐가 전부였는데 프랑스 정부의 신대륙에서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소유 재산의 극히 일부만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중소 모피업자들도 신용의 상실로 거래에서 배제됨으로써 퀘벡 내의 상권은 거의 완전히 영국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1790년 당시 퀘벡 내 37명의 도매 상인들 가운데 프랑스 계통은 불과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 자료가 그러한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정복 이후 퀘벡 사회의 성격은 지방에 거주하는 대다수 ‘거류민’의 동향에 의해 규정될 수 밖에 없다.

### (3) 퀘벡 사회의 성격

정복된 이후의 퀘벡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였다. 퀘벡 지역의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 농촌화 경향

정복된 이후의 퀘벡은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방향이 아닌 농촌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복 이후 퀘벡 사회는 여타의 서구 사회처럼 산업화, 도시화, 세속화를 통해 발전의 단계로 접어드는 대신 이전보다 더욱 지방화되며 도시에서 농업 중심의 전통적 생활 양식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농업은 상업 활동으로부터 배제된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피난처로 제시된다. 예전에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하늘 수 없이 농부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다음의 통계를 보면 정복 이후 퀘벡 지역의 프랑스계 대중이 점차 농민화한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도표 2〉 퀘벡 지방 프랑스계 인구의 도시와 농촌의 인구 대비

	도시	농촌
1760년	25%	75%
1790년	20%	80%
1825년	12%	88%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1871년에도 불과 19.9%만이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퀘벡의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는 것이 옳다). 퀘벡의 지속적인 지방화와 더불어 한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정복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760년에서 1850년 사이 카나다의 프랑스계 인구가 거의 배로 증가한 것이다. 논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통상 인구의 증가는 산업화와 병행되는 것이나 퀘벡에서는 인구 증가가 오히려 산업화와 반대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에 중요한 결과를 야기시킨다).

정복된 이후의 퀘벡의 사회 현상은 ‘새로운 중세’라 불릴 수 있을 만큼 특이한 사실이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다른 형태이긴 하나 장원제의 존속 이외에 퀘벡 사회를 ‘새로운 중세’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두가지가 더 있다. 첫째로는, 퀘벡의 지방 농촌 지역들이 여전히 교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권의 영향력은 퀘벡의 문화적 동질성 수호에 계속적인 배경을 이룬다). 교회는 식민 초기부터 식민 정부에 호의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조직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퀘벡의 농민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높은 문맹률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1827년, 당시 총독인 달루지(Dalhousie)에게 보내진 탄원서를 보면, 탄원서에 서명한 87,000명 가운데 78,000이 단지 x자로만 서명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산업화의 방향에 역행한 퀘벡 지역의 농촌화는 퀘벡을 여타의 지역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러한 고립은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이 영국계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불어권과 영어권의 경제적 괴리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이 본국과의 접촉이 불가능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영국계는 영국 자본과 지속적으로 접촉, 무역의 규모를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신대륙의 모피 무역이 점차 쇠퇴하고 농산물과 삼림 채취업이 상업의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르자 영국인들은 신속하게 업종을 변화하여 삼림 채취와 농산물 거래로 눈을 돌려서 경제적 호황을 계속 누릴 수 있었다. 더욱이 1807년 나폴레옹이 대륙을 봉쇄함으로써 유럽 대륙에 의존하고 있던 목재의 구입로가 차단되어 버리자 영국은 목재의 부족 분을 신대륙에서 채우고자 하며, 그에 따라 카나다의 삼림 채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카나다에는 영국 자본이 광범위하게 유입, 영국계 카나다인들의 경제는 일대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반면 프랑스인들은 모피 무역 거래에서 배제된 이후 줄곧 영세 자유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투신하게 된다. 자본주의적인 관념이 부족했던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하여 신대륙에서의 상업적 발전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신대륙 내에서 고립,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빈곤한 생활을 해나갈 수 밖에 없었다. 부유한 영국계와 가난한 프랑스계의 문화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불어권 문화의 보다 공고한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 후 영국이 펼친 관용 정책이 불어권 문화의 존속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791년 동-서 카나다의 분리와 함께 성립된 독자적인 의회는 프랑스계로 하여금 식민지 내에서의 합법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의회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영국인들에게 명백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식민지하에서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이 의회 제도를 정치·경제적 원칙보다는 종족의 문화적 가치를 수호하는 장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관용 정책의 배경에는 사실상 프랑스계를 점차적으로 영국적 전통에 동화시키려는 큰 의도가 숨어있었다. 영국인들은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에게 전통적 삶의 양식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상권과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프랑스계가 점차적으로 영국계에 동화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실제로 캐비에 잔류한 프랑스 귀족들은 영국계와의 혼인 등으로 영국에 동화된 예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이와 같은 일종의 ‘고립 정책’은 오히려 앞서 논의된 요인들과 결합하여 프랑스계 카나다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에 더욱 깊게 뿌리박도록 하였으며 신대륙 내에 독자적인 두 개의 문화가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동 카나다 (구 누벨 프랑스 지역)에는 이렇게 하여 두 세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영국계가 통합되기 싫어하는 ‘장원(seigneurie)’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계가 가보려고도 하지 않는 ‘읍내(township)’였다. 그 두 문화의 갈등은 다음에 논의될 ‘1837년 폭동’으로 표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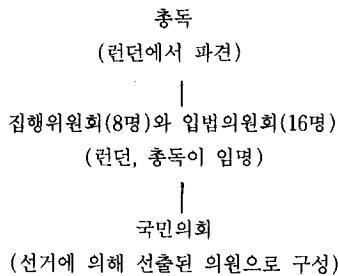
## (4) 두 문화의 갈등 — 1837년 폭동

식민지하에서 프랑스계 카나다인이 일으킨 최초의 대규모 반란인 1837년 폭동은 최

소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이 반란은 당시까지 누적되어 있던 프랑스계-영국계 간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로는 이 반란이 야기한 결과가 현재까지의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 배경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791년 카나다가 두 개의 카나다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카나다에는 독자적인 의회 및 행정부가 설치되었다. 그에 따라 퀘벡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때 마련된 제도는 명백히 영국계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동 카나다 정치 제도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이미 구조적으로도 국민의회의 결의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총독 이전에 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국민의회는 선거를 거치므로 프랑스계가 다수이긴 하지만 고급관료부터 말단까지 대다수가 영국계인 행정부에 비하면 권력이 미약했다. 더욱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집행위원회와 입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의 제도가 영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와 입법위원회의 인적 구성

	영국계(명)	프랑스계(명)
초대 집행위원회	4	4(명백한 영국편향)
입법위원회	9	
1793년-1828년 사이에 임명된 51명의 집행위원 중 출신파악 가능한 자		6

따라서 표면상의 정치적 관용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프랑스계의 인구가 50만, 영국계의 인구가 7만5천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정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인들

은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교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식민정부는 교회와 결탁함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고 반대로 교회는 합법성의 유지, 프랑스계에 대한 교육권 독점, 행정 참여의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교집단(즉 영국계)의 정치적 권위는 구교의 가치와 제도를 보호하고 반대로 구교의 종교적 권위는 프랑스계로 하여금 신교집단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특이한 정치상황이 창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상황은 언제나 봉괴 가능성으로 내포할 수 밖에 없다.

- **신흥 엘리트 집단의 부상** : 대략 19세기 초반부터 퀘벡 지역 내에는 의사, 공증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부르조아 계층이 형성된다. 이들은 프랑스계 카나다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있던 ‘거류민’ 출신들로, 구 프랑스의 영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대체하면서 대중적인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자연히 식민정부와 결탁하고 있던 교회세력, 그리고 영국계 상인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애국당(Les Patriotes)’은 파피노(Papineau)의 지도 아래 대략 1830년 경부터 국민의회 내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수립, 즉 예산의 지출과 임명권을 소유한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며 교회세력, 영국 상인들과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진다. 따라서 퀘벡의 정치는 점차적으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으로 치닫는다.

## 2) 봉기

이들 신흥 부르조아들이 의회에서 영국계와 대립하자, 양상은 점차로 ‘인종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영국 식민정부에 대한 의회적인 저항을 통하여 이들은 특히 몽레알을 중심으로 한 영국계 상인들과 직접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결정적으로 183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침예화된다.

퀘벡 지방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830년을 즈음하여 장원지에 해당하는 지역 800만 에이커 가운데 이미 510만 에이커가 농민들에게 점유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토지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경작할 땅이 없는 농민들은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기존의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은 새로운 영주령의 개발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퀘벡 농민의 생존이 일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에 삼림채취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상업의 위기가 더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의회가 타개해보고자 하였지만 의회에는 그러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영국은 카나다의 정치적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때 등장한 것이 바로 1837년의 ‘러셀안(résolution Russel)’이다. 그러나 러셀안은 국가공금의 집행승인을 의회의 투표없이 직접 총통에게 일임하는 등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봉기의 직접적인 발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자 1837년 여름 동안 소교구의 자치회가 구성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자치적 움직임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점차 무장 투쟁화해 간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식민정부와 성직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반란의 불길은 전국에 퍼진 후였다. 급기야 1838년 로베르 넬송(Robert Nelson)이 ‘독립선언

(Déclaration d'indépendance)'을 함으로써 봉기는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독립선언 이후 8일도 채 지나기 전에 잘 훈련되고 조직된 식민군에 의해 봉기는 진압되고 만다.

### 3) 1837년 폭동의 성격

최근의 연구와 자료에 의해 1837년의 봉기는 동 카나다 뿐만 아니라 서 카나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책임있는 정부의 수립’에 동조한 일부 영국계 부르조아들의 가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담으로 인해 봉기의 본질 자체가 변질된 것은 아니다. 봉기가 ‘책임있는 정부의 수립’의 목적으로 국한된 것은 퀘벡 지방이 아닌 서 카나다에서인 것을 보아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837년 봉기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운동이었다.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은 새로이 부상한 엘리트층의 주도 아래 프랑스계 카나다의 ‘주권’을 획득하려 했던 것이다. 이 봉기의 성격은 봉기를 주도한 엘리트층의 이념에 의해 드러난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신흥 부르조아들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습득하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봉기는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부르조아들은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복고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은 “사회의 변혁과 경제 질서의 개혁을 떠맡는 대신 국민적인 가치로까지 승화된 구제도의 구조를 보존하는 데서 지지를 구함으로써 사실상은 근본적인 개혁과 대립하였다”. 이들의 경제적인 신념이 복고적이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는 부르조아들이 쪽을 터뜨린 봉기가 어떻게 광범위한 농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가 쉽게 이해가 간다.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있다. 당시 프랑스 본국의 미국 대사인 드 풍투아(M. de Pontois)가 봉기 직전 퀘벡을 다녀간 후 남긴 다음과 같은 글이 그것이다 : “(...)그들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조차 않았고 세상을 뒤흔든 혁명들도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습속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심지어 정복 자체도 그들에게 새겨져 있지 않아 두 민족의 피와 언어가 섞이지 않았다 (...) (이러할 때) 바로 ‘민족 감정’만이 식민체제의 불합리함을 탓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계급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들 신흥 부르조아들이 주도한 1837년 폭동은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일으키는 일반적 혁명과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이들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적은 바로 식민정부, 자본가들의 정부, 망명자들의 정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국인들의 정부이다. ‘가련한 카나다인 (프랑스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프랑스계 카나다 대중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 4. 카나다 연방

##### (1) 연방의 성립

봉기를 진합한 이후 영국은 더햄 경(Lord Durham)이 이끄는 위원회를 카나다에 파견, 봉기의 성격과 봉기 후의 대책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 때 제출된 '더햄 보고서'는 향후 영국의 카나다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보고서는 1837년의 봉기를 어떤 정치경제적 원리간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두 개의 민족이 행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 해결책으로 '대다수가 영국계인 서 카나다에 대다수가 프랑스계인 동 카나다를 통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퀘벡의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열망을 무화시킨다. 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840년, 두 개의 카나다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법령이 발효된다. 이렇게 하여 다시 카나다에는 하나의 정부와 의회가 존재하게 되며 기존의 동-서 카나다 체제는 끝나버린다.

봉기 이후의 유니온 체제 하에서,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은 정치적으로 '소수'의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요구를 할 길이 차단되어 버리며, 이 때부터 봉기를 주도한 '파피노 그룹' 등의 과격한 민족주의적 정치집단이 배제된 온건파가 프랑스계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된다. 유니온 체제의 상황 아래에서는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영국계와 제휴해야만 프랑스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보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49년에는 영국계의 '볼드윈'등과 프랑스계가 연합, 카나다에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프랑스계의 엘리트층에서 '정치적 이원주의(political dualism)'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현실에 용이하게 태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이원주의는 이후 1854년 파피노 그룹이 배제된 중도-온건 우파의 결집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향후 카나다의 정치는 이들과 영국계의 연합체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건 그룹은 유니온 정부의 압박하에서나마 직접적으로 '카나다 연방 협상'의 프랑스측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봉기의 실패 이후 유니온 체제 하에서의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정치적 입장은 다분히 '방어적'인 것이었다. 퀘벡인들은 언젠가 쟁취해야 할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고 "종교적, 언어적, 관습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보존해야만 하는"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프랑스계의 보수적, 수구적 정치관은 연방의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봉기의 실패 이후 눈에 띄는 것은 카나다 역사 전반에 걸쳐 꾸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는 애초에 자신들의 세계관과 사회적 입지에 대립되는 진보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봉기의 실패는 그들을 견제하면서 유니온 정부와 조력하여 자신들의 전통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교회는 카나다의 정치판도에서 다시

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프랑스계 카나다의 이러한 내적 상황과 맞물린 것이 바로 영국계의 상황이다. 그들은 더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기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영국과의 일정한 관계 정립이 필요했다.

이처럼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문화보존을 위한 방어적 입장, 그리고 기존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교회의 보수적 정치세력화, 그리고 영국계의 이해가 맞물려 1868년 '북미 영국 조례(Acte d'Amérique du Nord Britannique:AANB)'에 의해 성립을 보게된 것이 '카나다 연방'이다.

## (2) 연방 속의 불어권 문화

연방 체제 내에서 프랑스계의 문화적 성격은 봉기 이후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주정부'로서 연방에 참여한 퀘벡이 여타의 주정부와 동등하게 하나의 가시적이고 변별적인 정치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연방 체제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국계의 여러 주정부에 대해 유일한 프랑스계 주정부가 됨으로써 오히려 '두 개의 카나다'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소수'가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나머지 영국계의 주에서는 불어권 문화가 극심한 위협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빚어지는데, 실제로 1885년의 '리엘 반란(Riel rebellion)'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 이전인 1871년, 대부분이 프랑스계인 누보 브슈빅 지방의 천주교도들이 영국인들과의 갈등을 시정해주도록 연방 정부에 요구했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던 예 등을 보면 연방 정부가 프랑스계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니토바 주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주에 남아있던 천주교 계통의 학제를 폐지해 버리기까지 하였다(1890).

그러나 19세기 후반기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인 시기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시기 동안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 제도 등 기존의 불어권 문화를 보존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제도가 퀘벡 내에서 완결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은 '거류민'들로부터 싹이 터서 힘겹게 전수되어오던 자신들의 문화를 제도적인 보장 하에 고급화시키고 심화시킬 것이다.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퀘벡의 산업화는 '지방적'인 농업 중심의 문화에서 싹튼 퀘벡인들의 일반적 정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20세기의 시작을 전후로 퀘벡 사회 자체가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의 산업 체제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인구는 점차 도시로 집중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계의 정신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업사회적 전통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농업을 여전히 자신들의 '지렛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회세력 등 보수적인 입장의 세력과 민족주의적인 지식인들은 농업사회적 전통을 신비화시킴으로써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의 문화적인 동질성 유지에 힘썼다.

## 5. 20세기의 불어권 카나다

### (1) 정치적 보수주의와 산업화의 진행

20세기 초중반의 퀘벡 사회를 특징짓는 두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지속적인 정치적 보수주의와 산업화의 진행이다. 프랑스계인 로리에(Laurier)가 연방의 총리로 집권하던 1896-1911년 사이에 (로리에는 프랑스계지만 친 영국계의 연방론자로 알려져 있음) 퀘벡의 산업화가 본격화된다. 산업화의 움직임이 주로 퀘벡의 외부, 혹은 퀘벡 내부의 영국계에 의해 주도됐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시작하는 초반 10년 동안에 퀘벡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로리에 정권이 물러날 당시인 1911년에는, 1871년에 무려 80%에 달했던 농촌인구가 50%로 줄어든다. 특히 몽레알은 공장노동자가 되기 위해 몰려드는 농민들의 집합장소가 된다. 물론 몽레알에서도 소수의 영국계가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도 밝혔듯이 연방 성립 이후의 퀘벡의 정치판도를 주도한 보수주의는 자문화 보존적인 정서를 바탕에 깐 복고주의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보수주의는 최초의 산업화에 직면한 사회가 산업화의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퀘벡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노동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지배세력은 보수적인 방식으로 그에 대응한다. 즉, 자유주의적이고 반 카톨릭적인 국제적 노동자 신디케이트에 퀘벡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수 지배세력과 교회세력은 카톨릭 신디케이트를 구성하는 등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

퀘벡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보수정치로 인한 사회안정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정치에 의해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정치적 대립이 완전히 '비가시적'인 차원으로 전이된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은 참전문제를 중심으로 격화되기 일쑤였다. 1899년 영국의 식민지 전쟁인 보어전쟁(남아프리카) 참전문제를 놓고 대립한 바 있던 퀘벡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1차대전 참전문제로, 이어서 2차대전의 참전문제로 계속하여 대립한다. 특히 1차대전 참전문제를 놓고 영국계 도시인 온타리오에서는 전쟁 중 영국군으로의 참전을 거부한 소수 프랑스계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계를 학교에서 추방해버린 것이 계기가 되어 (보수주의 특유의 현상유지론과 탈퇴시 경제적 자생능력 부재 등이 이유가 되어 후일 철회되긴 하지만) 한때 퀘벡 의회에서 퀘벡의 연방 탈퇴가 논의된 일도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발전된 퀘벡 특유의 보수주의는 2차대전 후에까지 그 위세를 떨친다. 대부분의 퀘벡인들, 농민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유직종의 지식인들까지도 대부분 이러한 이념의 영향권 아래에 줄곳 있었다. 물론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보수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립적인 이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한 이념들은 퀘벡 대중의 호감을 사지 못했을 뿐더러 큰 영향을 주지도 못했다.

퀘벡의 보수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1936-39년, 1949-59년까지 계속

집권에 성공한 모리스 뒤플레시스(M. Duplessis)의 ‘국민연합 (Union Nationale)’ 정권이다. 뒤플레시스 정권은 광범위한 농민층과 그들을 지도하는 성직자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삼아 무려 1960년 이전까지 지속될 보수적 이념을 실천한다. 뒤플레시스의 정책이 갖는 기본적 성격은 농민들의 ‘상식’, 다시 말해 산업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구적인 농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호소한다는 것, 그리고 퀘벡의 자율성을, 특히 문화적인 자율성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그의 보수주의는 산업화 이전의 퀘벡을 신비화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사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주의는 퀘벡을 북미의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 지도록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퀘벡 자체 내에서도 ‘퀘벡의 문화(이념, 가치)와 사회현실 (기술, 경제, 도시화, 산업화) 사이의 괴리’라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보수주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후진성의 원인을 보수주의에서 찾는 비판적 견제 세력의 등장과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산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 (2)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

‘조용한 혁명’의 중심 개념들, 특히 개량주의(*réformisme*)와 민족주의(*nationalisme*)는 1960년 이후 1980년까지 약 20년간 퀘벡 사회의 정치적 사고와 행동의 기저를 이룬다. 최근 퀘벡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번영과 생활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카나다 경제 내에서의 퀘벡의 상대적 지위 하락, 점점 더 가속화해가는 구조적 실업, 국가의 개입이 빚어낸 행정권의 비대화와 누적된 적자는 퀘벡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1980년대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흔히 ‘조용한 혁명의 성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방향 전환들이 속속 이루어졌다. 따라서 불어권 카나다, 즉 퀘벡의 정치·경제적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한 혁명’의 발생 동기 및 추이에 관해 알아본 후, 그것이 퀘벡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의 극복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은 1960년 이후에 퀘벡에서 시작된 변화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토론토의 『지구와 우편물 *Globe and Mail*』이라는 일간지의 기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서, 퀘벡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좁은 의미에서의 ‘조용한 혁명’은 흔히 장 르사쥬(Jean Lesage)의 자유당 정부가 1960년에서 1966년 사이에 실시한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신자유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승리, 퀘벡의 다양한 정부들의 연속적인 정책 방향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을 특징짓는 1960대와 1970대 전체의 특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조용한 혁명은 ‘개혁지향적인 민족주의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용한 혁명의 시기인 1960-66년에는 퀘벡의 제도 변화와 함께, 퀘벡 사회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들이 가속화되어 나타난다. 조용한 혁명은 ‘순수한 혁명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의 해방이며, 사물과 인간에 대한 비평적 태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퀘벡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이며, 일어있던 독립정신과 탐구정신의 재발현이다. 퀘벡 주민들은 그들이 진정 원한다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당시까지 그들을 지배해왔던 숙명론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조용한 혁명’의 주된 이념은 ‘회복(rattrapage)’의 개념으로 통칭될 수 있다. 그것은 전후에 이미 시작된 개신과 현대화의 과정을 가속화시켜 경제 회복을 이루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한 혁명 이전에 있었던 퀘벡의 현대화를 위한 시도는 뒤플레시스(Duplessis)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에 의해 극도로 억제되어 있었다. 자유당이 집권한 1960년 당시, 퀘벡은 1957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와 침체 속에 빠져있었고, 노동 인구의 9.2%에서 9.3%에 이르는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1966년에는 실업율이 4.7%까지 내려갔다.

1960년대의 경제는 수공업 분야와 주택 건설에 대한 막대한 신규 투자와 함께 공공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관공서와 학교 건물의 건축과 도로 건설의 현대화에 상당한 재원을 할애했다. 1966년에 개통된 몽레알의 지하철 공사, 1967년의 만국 박람회, 그리고 1968년에 건설된 마닉 5(Manic 5) 댐 등도 그러한 목적을 이루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소산이다. ‘조용한 혁명’은 단지 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상력과 민족적 자부심까지 진작시키는 원대한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회하여 여전히 국민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고 높은 출생율과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1-71년 사이에 퀘벡 인구는 백만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한 세기 전부터 추진되어온 도시화가, 74.3%에서 80.6%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몽레알과 퀘벡의 도시 지역은 도시화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현대화의 과정은 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사기업과 카톨릭 교회에 의해 지배되어온 국가, 사회 기관에 새로운 합리성을 부여하고 또 그 기관들을 민주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국가의 책임 아래로 돌리는 제도의 현대화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 보건, 사회사업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내각, 국영공단, 국영 기업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의 현대화도 이루어졌으며 복지국가로의 이상을 드높이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졌다.

조용한 혁명은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지님과 동시에, 스스로 현대적이고 정복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이념을 지니고 있다. 퀘벡이 추구한 신민족주의는 단순히 혈연, 지연, 언어적 동질성 등을 바탕으로 한 국수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조용한 혁명의 민족주의는 스스로 현대화의 과정 자체를 주도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안으로 향하게 하려는 성격이 짙다. 신민족주의는 상징적인 면만큼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1962년의 전기 국유화 시책은 이 점에서 상징적

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찬양되었다가 지식인, 전문관리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정치가들에 의해 표명된 신민족주의는 국민의 각계 각종에 강력한 퀘벡이라는 목표를 설파한 것이다.

신민족주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신민족주의는 우선 퀘벡 자체 내에서는 소수의 영어권이 자본과 산업시설 회사 등 주요 경제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2차대전 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카나다 연방의 ‘중앙집권화’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카나다 연방 내에서 퀘벡의 발언권과 입지가 강화되었다. 셋째, 외교적으로는 퀘벡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독자적으로 알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특히 프랑스를 위시한 여타의 ‘불어권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용한 혁명의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뢰조(équipe du tonnerre)’라고 불리운 내각을 구성한 르사쥬 정부는,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에 공감하는 노조, 고용주, 지식인, 정치가들의 합의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다니엘 존슨(Daniel Johnson:1966-1976); 장-작크 베르트랑(Jean-Jacques Bertrand:1968-1970); 로베르 부라사(Robert Bourassa : 1970-1976), 그리고 르네 레베스크(Rene Levesque:1976-1985)로 이어지는 정부들도 공식적으로 조용한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1980년대 초까지 그것의 ‘수확’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데 몰두하였다. ‘조용한 혁명’은 이렇듯 그 이후 전 시대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되었다.

조용한 혁명은 뒤플레시스 정권의 복고적 보수주의에 종지부를 찍으며 퀘벡 사회에 일대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조용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에 성장한 신세대의 개혁욕구가 기득권을 지닌 복고적 보수주의 세력의 견제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거기마다 오랜 보수주의에 의해 경제가 낙후되자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로잡히게 된 광범한 민중의 개혁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가 동반됨으로써 조용한 혁명은 근 100년 간의 보수적 현상유지 정책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들어 퀘벡의 사회적 정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일정한 변화와 편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중반까지 정책수립의 지속적인 근간으로 인정되던 조용한 혁명의 이념이 서서히 퇴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는 맥시코 까지를 포함한 북미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경향, 정치적으로는 전세계를 휩쓸 보수회귀의 바람,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심화, 문화적으로는 이미 퀘벡의 독자적 문화시스템이 완결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개혁지향적인 ‘조용한 혁명’과는 맥을 달리하는 신 보수주의, 정치·경제적 다원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최근 퀘벡 사회의 일반적 동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혁명’의 정신이 퀘벡 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카나다 내에서 불어권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명실공히 독자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도 ‘조용한 혁명’의 추진에 빛진 바가 크다. 논자에 따라서는 조용한 혁명을 1839년의 폭동 이후 100년이 넘도록 수구적 자세만을 취해오던 불어권 사회가 소극적인 문화보존적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최초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조용한 혁명은 영국계가 북미를 지배한 18세기 후반 이래 줄곧 문화적인 억압 상태에 놓여 있던 불어권 문화가 북미 지역 여타의 문화와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독자성을 누리게 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으며, ‘동질성의 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신대륙의 프랑스계가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의 적극적인 계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퀘벡의 정치와 이념

19세기 이후, 불어권 카나다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왔다. 퀘벡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열광적 참여와 무관심이 교차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뒤플레시스의 ‘대암흑(1944-1960)’ 치하에서 퀘벡 주민들이 정치에 수동적이었다면 르사쥬와 존슨의 ‘조용한 혁명’의 시기에는 집단적인 열광이 있었다. 베르트랑과 부라사의 집권기(1968-1976)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1976년 퀘벡당의 집권과 르네 래베스크라는 특별한 정치인의 부상으로 퀘벡의 정치 의식은 고양되어 결국 1980년의 ‘국민투표’로까지 나아간다. 그 이후로 또 한차례의 무관심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퀘벡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퀘벡의 정치 제도에 대해, 그리고 각 정당들과 그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카나다 연방 정부와의 관계와 그 연방 속에서의 퀘벡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치 제도

##### — 정부

퀘벡은 카나다 헌법에 따라 그 자신의 고유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카나다가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관계로 아직도 영국적인 요소들이 잔존하는데, 예를 들면 총독 제도가 그러한 경우이다. 총독은 각 주에서 여왕의 권위를 대신하며, 정부의 시정연설과 의회의 개회에 참석하고, 의회에 의해 채택된 법안은 총독이 서명함으로써 실행이 된다. 총독은 개인적인 권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방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정부는 수상을 중심으로 25~30명의 내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료들은 국회 의원들(1989년 기준으로 125명) 중에 수상이 임명한다. 1968년에 퀘벡은 사실상의 상원이던 입법의회(le Conseil législatif)를 폐지했다.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지도자가 수상이 되며, 자신이 선택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각료들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각도 가능하다. 하원의 임기는 1회에 5년을 넘

지 못하고, 임기의 4년이 끝나갈 즈음에 수상이 선거를 공고한다.

정부는 특별한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예를 들어 1963-1966년의 빠랑(Parent)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개혁을 이룩한 바 있다. 특별 위원회 뿐만 아니라, 법안과 예산할당의 심의를 위해 의회 내에 두는 상설위원회도 조직되어 있다. ‘조용한 혁명’ 이후 정부의 활동과 대국민 서비스는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퀘벡의 행정 조직이 과다하게 비대하고 행정 간섭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으나, 퀘벡의 발전에 퀘벡 정부의 기여도가 지대한 것은 사실이다.

### — 선거제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1940년 이후에 여성의 선거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1964년에 선거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이 제도는 시행이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점과 양당제의 경우 다소 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투표를 단 한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3의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선거는 의외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66년의 선거에서 장 르사쥬의 자유당이 42.7%로 최고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독립을 위한 연합(Rassemblement pour l'indépendance)’의 개입으로, 예상을 뒤엎고 다니엘 존슨의 ‘민족 연합’이 제 1여당이 되었다. 소선거구제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70년대에 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고, 특히 비례 대표제(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의 요소를 도입하는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가 고수되고 있다.

### — 재정

퀘벡의 기본적인 세액의 결정은 엄격하게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각자가 연간 부담 할 세액은 개인적인 수입과는 별도로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퀘벡에서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 다른 주들에서는 보통 연방 정부가 세금을 일괄 징수하여 각 주정부에 분배하는 반면에, 퀘벡은 재정적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비교적 독립되어 있으므로, 뒤플레시스 정부 이후 퀘벡 주민들은 이중으로 납세 신고를 하고 있다. 이중 조세 제도는 퀘벡의 납세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사회적인 서비스 제도의 발달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퀘벡의 모든 주민은 ‘태양 카드 carte soleil’를 제시하기만 하면 고도의 기재를 갖춘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물론 국가가 부담한다. 카나다 납세자들의 무거운 세금부담은 전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 국제 관계

1978년 이후 현재까지, 퀘벡의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 정부와 다른 주들과의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간 정부부(Ministère des Affaires intergouvernementales)’와 외국 정부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국제부(Ministère des Affaires internationales)’로 분리되어 있다. 1960년 이전까지의 퀘벡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용한 혁명’ 이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1985년 현재 4대륙 14개국에 2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그 대표부들은 문화적,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 퀘벡으로의 이민을 장려하고 선별하며 다양한 상호 협력안을 제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퀘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 동안 퀘벡은 프랑스와 그 이외의 불어권 국가들, 즉 유럽과 아프리카 불어 공동체들과의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교류를 강화했으며, 공식적으로는 1970년에 설립된 불어권 국가들의 ‘문화·기술협력기구(ACCT)’에 참여하고 1986년에 개최되었던 최초의 ‘불어권 정상회의(Sommet de la francophonie)’에 참여하는 등 독자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 퀘벡의 정당

정치 의식의 향상과 함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많은 신생 정당들이 출현했지만, 대부분 제한된 계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퀘벡의 정당 체계는 기본적으로 양당제로서, 한편에 자유당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 민족 연합이 있었으나, 그것은 곧 퀘벡당으로 대체되었다. 퀘벡의 주요 정당들을, 등장한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기존의 정당들

연방제가 성립되던 당시에 퀘벡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던 정당들은 연방 아래에서도 존재하고 있던 기존 정당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유사한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조금 더 전통주의적이었고, 그들 가운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종교, 가족, 농업주의적인 소명을 강조하는 교황지상권론자들이었다. 그들의 정반대편에는 ‘적색파(les Rouges)’라고도 불리우는 가장 급진적인 자유주의가 있었다.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다소 반교권주의적인 사상을 기본 정강으로 삼고 있다.

### — 퀘벡 자유당(Parti Libéral du Québec)

퀘벡의 정치사를 간단히 개설하면, 연방제 성립 이후의 30년간 보수당이 정치 무대를 지배했으나 점차 자유당이 그 입지를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퀘벡 자유당의 당수가 된 오노레 메르시에(Honoré Mercier)는 전불어권 카나다인의 단합을 호소하였고, 보수

당에서 이탈한 보수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자유당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1887년에 집권한 후, 그는 정력적으로 퀘벡의 이익을 옹호하여 불어권 카나다의 민족주의를 제창하는 한편 오타와 정부에는 퀘벡의 독립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5년 동안 보수파가 집권한 이후 다시 1897년에 권좌에 오른 자유당은 40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동안에 퀘벡은 공업화, 도시화되었다. 경제 발전과 천연자원 활용이라는 당의 기본 정책은 퀘벡에 대한 자유당의 영향력을 유지시켜 주어서, 로메 구엥과 루이-알렉상드르 타슈로는 각각 15년간 퀘벡의 수상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 유권자들이 자유당의 현대화 정책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1936년에는 실권했다가 1940년에 재집권하여 퀘벡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실상 '조용한 혁명'을 준비한다.

조용한 혁명이 퀘벡인들의 정신 구조와 제도의 변화라는 양상들과 더불어 구체화되는 것은 장 르사쥬의 자유당이 집권하는 1960년의 일이다. '변화의 시기다(C'est le temps que ça chang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자유당은 경제적 민족주의와 각종 개혁의지를 드높인다. 사회구조를 현대화·민주화하고 퀘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 차원의 많은 간섭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빠랑 위원회에 교육의 전 체계를 재고할 권리를 위임하며, 1964년에는 교육부를 신설한다. 또한 의료보험과 병원제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과 협력 하며 사회정책을 재수립하고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그 밖에도 노동법을 채택하였고, 결혼한 여성들의 법적 평등을 명문화하였으며, 문화사업부를 창설하였다.

경제의 측면에서 정부는 경제 계획과 국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히 퀘벡에서의 불어권의 경제적 지배력을 중대시키기 위하여, 이드로-퀘벡(Hydro-Québec)을 국유화하고 보강시키는 한편, SGF, 예금공탁과 투자금고 등을 신설한다.

1970년 선거에서, 고용의 재활성화와 연방제 옹호를 내세운 자유당이 로베르 부라사의 등장과 함께 재집권한다. 두번의 임기(1970-1976) 동안 부라사 정부는 경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거대한 공공 사업을 이용하여 성장의 촉진을 꾀한다. 고속도로 건설, 공공 건물 신축, 제임스 만(灣)의 대규모 수력개발단지 조성, 올림픽 시설 신축 등의 사업들을 별임과 동시에 사회 복지 분야에도 투자했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연방제를 궁정해 되 카나다 내부에서 퀘벡의 문화적 주권을 옹호하여 빅토리아 현장을 거부하였고 불어를 퀘벡의 공식언어로 지정하는 22조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퀘벡의 존재를 공고히 했다.

그러한 명백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부라사 정부는 70년 가을의 10월 위기와 그에 뒤이은 노동자·노조 갈등의 여파로 76년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러나 10년 동안의 퀘벡 당 지배 이후에, 1985년 선거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와 경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은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기존의 경제 정책 방향을 고수하여, 수력발전과 사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입장(178조 법안)이 영어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탈시켜, 1989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게 된다.

### — 민족 연합

1933년에 보수당의 당수가 된 모리스 뒤플레시스는 퀘벡의 전통적 권리를 맹렬히 옹호하게 된다. 당시는 리오넬 그루(Lionel Groulx) 신부가 소설과 수필을 통해 '불어권 카나다 민족'에 입각한 민족주의 사상을 설파하고 있었다. 그후 1935년에 폴 구엥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의 한 분파가 '민족 자유 행동(Action libérale national)'을 결성하자, 뒤플레시스는 이들과 제휴하여, 민족연합을 형성했다. 그의 통치는 1936·39년과 1944·59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자로서 퀘벡을 카나다보다 우위에 두었고, 다른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가족, 농업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여 농업에 기초한 정책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그대로를 과감히 표현하는 예술가들을 무시했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의 모든 것을 불신했으므로 그의 통치 기간은 '대암흑(*la grande noirceur*)' 시기라고 불리운다. 그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파업을 금지시켰으며 자본주의 사상을 언제나 무시했다. 퀘벡의 독자성을 옹호하여, 그는 오타와의 계획들에 반대했으나 퀘벡의 천연 자원의 개발에 미국인 자본가들을 유치한 결과 퀘벡의 광산들을 혈값에 팔아 퀘벡 발전의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비난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민족주의 이념을 주창함으로써 조용한 혁명의 길을 간접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구 구획의 자의성과 소선거구의 결과, 1966년 선거에서 민족연합은 자유당보다 더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된다. 다니엘 존슨, 이어서 장-작크 베르트랑이 이끌었던 새 정부는 비록 당은 다르지만 조용한 혁명의 원대한 목표들을 추구했다. 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세제(Cégep: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대학 Collège d'enseignement général et professionnel)들과 퀘벡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당에 의해 시작된 퀘벡 제철소(SIDBEC)의 건설을 마무리짓는 한편, 삼림 개발을 위해 렉스포(Rexfor)를 창설한다. 특히 다니엘 존슨의 휘하에서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해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인 민족 연합 정부는, 오타와에 대해 헌법제도와 연방과 지역 간의 권리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더우기 엑스포(EXPO) 67의 개최와 드클 장군의 방문으로 이 시기에 퀘벡은 더욱 국제적인 명성을 드높인다. 그러나 민족 연합은 교육에서 언어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63법안을 채택하고, 67년 이후의 경제 부진, 68년 학생 데모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1970년의 선거에서 대패하였고 1981년 이후의 퀘벡 정치 일선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2) 새로운 정당들

#### — 퀘벡 신용당(Ralliement créditiste du Québec)

신용주의자(creditiste)들은 1970년에 정치무대에 등장했지만 적어도 30년대부터 퀘벡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더글라스(Douglas)의 경제이론과 전통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정치적 항의 운동으로 출발했으나 전원도시와 소도시 지역에 기반을 구축한 후, 1950년에는 '흰 배레(bérets blancs)'라는 이름 아래

에, 점차 종교적인 운동의 성격으로 변해갔다.

레알 카우에트(Réal Caouette)의 지휘 아래, 이탈자들이 신용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하여 (1957년) 연방 무대에서 활약하였고, 1962년의 연방 선거에서는 퀘벡에서 26%의 지지를 얻어, 오타와에 26명의 의원을 진출시켰다. 1966년의 퀘벡 지역 선거에서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탈자들이 참가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1970년에 카밀 삼손(Camil Samson)의 지휘 아래에 퀘벡 신용당(Ralliement créditiste du Québec)을 조직하여, 11%의 득표율과 22석의 의석을 얻었다. 1972년 이후 분열되어, 급속도로 정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 - 퀘벡당

1957년 이후 ‘독립을 위한 연합’과 국민당과 같은 독립운동이 탄생하여 1966년 선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르사쥬 정부를 동요시키게 된다. 당시 르사쥬 정부의 동력자원부 장관이었던 르네 레베스크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재검토하고, 1967년 10월에 자유당을 떠나 주권연합운동(*le Mouvement Souveraineté-Association*)을 결성했다. 1968년에 이 주권연합운동과 국민당이 ‘당의 창설. 나라의 건립(Un parti a fonder, Un pays a batisr)’이라는 구호아래 연합하여 퀘벡당을 창당한다. 얼마 후에 ‘독립을 위한 연합’의 멤버들이 거기에 합류했다. 1968년에서 1976년 사이에 퀘벡당은 정치 무대에 급부상하지만, 선거제도의 여전상 국회에서 많은 수의 의석을 얻지는 못했다. 1976년 11월 15일에 퀘벡당은 41%의 지지를 얻고 집권하여, 르네 레베스크는 85년까지 10년 동안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구정당들과는 판이하게 퀘벡당은 정직을 강조했고 정직을 신조로 선거에 임한다. 선거 자금의 측면에서도 퀘벡당은 아주 결백했다. 매년 모든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특정 인이나 특정 기업과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거액의 제공은 사절하고 있다. 정당의 프로그램은 언어·문화적 주권 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의 이념위에 기초하고 있다. 주권연합이라는 공동 목표아래에 여러 계열의 독립주의자들의 힘이 결집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는 때로는 대립되기도 하는 많은 경향들이 공존한다. 따라서 독립을 즉시 이루려하지 않는 퀘벡당의 노선에 반대하는 피에르 부르고(Pierre Bourgault)와 같은 극단적 독립주의자들은 1984년 이후에 당을 떠나기도 했다.

퀘벡 역사상 가장 우수한 내각이었다고 평가되는 퀘벡당은, 이미 시작되어있던 개혁들을 계속 추진하고, 정부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조용한 혁명의 연장선상으로 들어간다. 퀘벡당의 정책은 대중매체의 사용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과 함께 민족주의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퀘벡당은 대중정당으로서, 출발시부터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 ‘유리한 편견(*préjugé favorable*)’을 표명하였으며, 최소임금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키고 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경제적으로 퀘벡당은 석면분야의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자본과 금융을 원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중소기업들과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불어권 기

업들의 부상을 끼쳤으며, 저축 장려와 중시 부양책으로 퀘벡의 자본능력을 확대시켰다. 사회적으로는 청년·노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평등 문제를 강조하여 출산휴가를 제도화하고 탁아소를 증설하며 가족법을 개정했다. 문화적으로 퀘벡당은 열성적으로 언어문제를 공략한다. 그 결과 1977년 이후로 이민이나 노동계 그리고 공공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불어의 우위를 보장하는 101법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문화의 경제·산업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한다. 정치적으로 레베스크 정부는 정당들의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회 절차의 개편, 그리고 자치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개혁을 이룩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퀘벡의 경제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퀘벡당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여, 국민투표에서의 독립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실시된 1981년의 선거에서 49%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혁혁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퀘벡당 정부는 여러가지 난간에 봉착하여 지지를 상실하게 된다. 1980년의 경제 위기에 따른 높은 실업율과 공공재정의 심각한 어려움, 그리고 공무원 봉급의 축소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악영향을 주었다. 더욱이 1984년 이후의 독립 정책에 대한 축소 재조정은 당내부의 분열을 가져왔고 결국 1985년 레베스크의 사임에 이르렀으며, 그해의 선거에서 로베르 부라사를 중심으로 결집한 자유당에 패배했다. 작크 파리조(Jacques Parizeau)가 이끈 1989년 선거 이후에 퀘벡당은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 퀘벡 신민주당(Nouveau Parti démocratique-Québec)

1984년 이후로 퀘벡당의 당원들이 느낀 실망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퀘벡 신민주당은 대중의 인기를 급속히 얻으며 발전하게 된다. 1985년 선거에서 퀘벡 신민주당의 당수인 장-폴 아르네(Jean-Paul Harney)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시켜, 3%의 지지를 얻는다. 1986년에는 퀘벡당이 민족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퀘벡 신민주당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확실히 천명함으로써 더욱 큰 지지를 얻게 되었지만, 1989년의 선거에서 작크 파리조와 퀘벡당이 재부상합으로써 퀘벡 신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연방 신민주당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 — 기타 정당들

1989년 9월 선거에서 자유당과 퀘벡당이 90%의 지지를 획득 반면에, 환경주의자들의 녹색당은 2%, 178법안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된 영어권의 ‘평등당’은 3.7%, 그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합쳐 4.2%의 지지를 얻는 등 퀘벡에서 기본적인 두 정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퀘벡에서 정치적 요구들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그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지층으로 인해 투표에서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하지는 못 한다. 퀘벡도 다른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당제의 형태에 접근하고

있다.

### 3. 연방 정부와 퀘벡

카나다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퀘벡은 연방 정부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1989년에는 연방 하원의 282석 가운데 75석, 상원에서 24석을 차지함으로써 연방 의회에서도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자유당 정권일 때, 퀘벡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고, 반대로 보수파가 집권하면 퀘벡에서는 자유당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연방과 퀘벡 사이에서는 일종의 균형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퀘벡 사회의 특수한 성격상 연방과는 많은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용한 혁명과 그 이후의 기간동안 퀘벡의 정치적 변혁과 민족주의적인 주장은 연방무대에서 직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기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68년에 이르는 첫 기간동안 연방 정부들은 퀘벡의 현실과 갈망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에 집권하게 된 존 디에肯베이커(John Diekenbaker)의 보수당 정부는 퀘벡에까지 심각한 여파가 미쳤던 경기 침체로 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용한 혁명의 목적과 범위를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이 보수당 정부가 영어권 출신의 정부라는 점때문에 불어권의 대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1950년대 말의 오타와의 경제 정책은 카나다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교육과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 정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각 주들은 연방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자치와 권한을 요구하게 된다. 퀘벡 정부는 다른 지방들과 공통되는 이러한 요구 외에도 카나다 내부에서 변별적인 하나의 사회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확보의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1963년에 집권한 첫 자유당 수상인 레스터 비 피어슨(Lester B. Pearson) 행정부에서는 퀘벡의 주요 관심사에 더 잘 부응하여 퀘벡의 대표자들에게 더 큰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러한 목적에서 1963년부터 연방 정부는 이중언어정책과 문화적 다원성을 위한 토렌도-단턴 (Laurendeau-Dunton)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적인 연방주의의 모델을 따라서 국가와 사회 문제에 관한 퀘벡의 요구들 중 일부를 받아들인다. 즉 문화, 통신, 후생복지, 지역발전, 이민영입과 같은 분야에서 연방 정부는 1964년에 퀘벡주는 연방의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되 그비용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권리를 골자로 하는 ‘임의 선택권’ 원칙을 퀘벡 정부에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당 통치하의 불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어슨은 1965년에, 지명도 높은 불어권 퀘벡 인사 세 명을 충원한다. 그들이 바로 ‘세 온건파 (trois colombe)s’라고 불리우게될 노동운동가 장 마르상(Jean Marchand), 시테 리브르(Cité Libre)誌의 설립동호인들이었던 제라르 펠티에(Gérard Pelletier)와 피에르 엘리오프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이다. 이와 같은 퀘벡에 대한 개방 정책의 확대는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높여 의원수가 증가하였고 1963년과 1965년 선거 승리의 토대가 되었다.

페어슨의 사임 이후에 자유당의 대표이자 연방 정부의 수상이 된 트뤼도는 1968년의 선거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되고, ‘트뤼도 선풍’이 카나다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그 때부터 제 2 국면이 시작되어 1984년까지 이른다. 1979-80년의 9개월을 제외하고 자유당은 별 어려움 없이 집권을 계속하며, 퀘벡에서의 지지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 지지는 자유당의 정권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트뤼도와 그의 진영은 퀘벡의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지역주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연방 주의 정책으로 돌아선다. 그는 퀘벡의 불어권 주민들에게 우선 자신을 카나다인으로 정의하고 그 이후 연방 체제 안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연방의 자유당은 다원문화적인 카나다 민족주의와 진보적인 사회 정책들을 표방하면서, 1969년에는 공식적인 언어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고 연방 제도들의 이중언어화를 시도하며, 행정부 안에서 불어권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그 현상들이 바로 ‘불어권의 힘(French Power)’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중앙 권력과 연방제에 대한 모든 공격들에 대항한다. 이것은 특히 1970년 10월의 전쟁조치 법안의 부과와 1980년 국민투표 운동에 대한 열렬한 참여로 표출된다. 1982년 주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자유당이 카나다 전역에서 인기를 잃어가자, 피에르 엘레오프 트뤼도는 1984년 정계를 떠나게 된다. 몇 개월 후에 보수파가 집권하여,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퀘벡 주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새 정부의 수반인 브라이언 멀로니(Brian Mulroney)는 연방-주(洲)의 관계에서 화해의 정치를 피력하며, 사기업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을 권한다. 사회 문제와 헌법 문제는 자유당 집권 기간 동안에는 주된 문제였으나 경제적인 주관심사와 미국과의 자유 교역 등의 문제에 곧 밀리게 되었다.

#### 4. 퀘벡의 사상 운동

우리는 지금까지 퀘벡의 역사를 정당사나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망해 보았다. 이러한 흐름은 조용한 혁명에서 최근에 이르는 시기 동안 드러난 이념적으로 분화되고 다양해진 경향 속에서 훨씬 더 부각되고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퀘벡 지역에 여러 사상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이유로는 우선 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내외 사상들의 유입과 전파가 가속화되었으며, 두 번째로 주민 대다수가 교육의 혜택을 입은 결과 의견 표출이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 세대에 이르러 보수 일색의 주민 성향에 변화가 왔으며, 네 번째로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전파되는 장소들이 다변화되어 사상과 견해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었다는 당시의 몇몇 특성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시기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변혁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1930-1945년에 영향력이 막강했던 전통주의는 1945-60년의 기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단절과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사

조들에 밀려 급격히 수세로 돌아서 곧 소수파가 되었다. 이제 수많은 사조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이 컸으며 체계적이었던 사조들을 살펴봄으로써 60년대 이후의 퀘벡의 사상 운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일치에서 분열로

조용한 혁명에서 퀘벡주 독립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이르는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지역 경제적 정황과 국제적 맥락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시기(1960-1965)에는 ‘조용한 혁명’의 목표들을 중심으로 범주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두번째 시기(1965-1976)에는 반대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시각이 다양화되어 논쟁들이 급진화되었다. 마지막 시기(1976-1980)에는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강한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 1) 합의의 시기 : 1960-1965

뒤플레시스의 죽음과 장 르사쥬의 자유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와 개량주의를 주창하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어권과 불어권 모두의 지지를 받은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즉 오래된 보수적 가치들을 배격하고, 퀘벡의 여러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후진성을 고발하며, 퀘벡을 더 이상 전통적이고 농업적인 주변 사회로 보지 않고 회복과 현대화를 지향하고, 퀘벡의 도시적이며 공업화된 성격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제도를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개혁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것은 미국의 캐네디 정부와 프랑스 제 5공화국이 구현하고 있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의 모델에 근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현대화에 이르기 위한 탁월한 기구는 바로, 전문적인 경영 엘리트들에 의해 관리되는 강력한 퀘벡 정부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견해를 같이했으며, 거기에는 또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표현이 수반되었다. 예를 들면 ‘퀘벡주’나 ‘불어권 카나다인’과 같은 표현은 ‘퀘벡국’, ‘퀘벡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정부와 노조의 긴밀한 관계, 자문·조정 위원회들의 설립, 그리고 수차례의 여론 조사 등으로 정책 결정 제도가 민주화되었고, 여러 그룹의 시민들이 그들과 관계된 제도들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은 뒤플레시스 시대의 권위주의와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도자들과 식견있는 무리들간에 만장 일치를 보였으나, 점차 여러 계층에서 이견이 나타나 제 2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2) 분열의 시기 : 1965-1976

1960년대 초부터 분열의 여지는 있었으나 1965년 이후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비판과 반대가 행해졌고 새로운 가치들이 실험되었다. 신용주의자들이나 카톨릭 교권주의자들과 같은 전통주의자들은 현대화의 부작용과 맹점을 들어 공략했고, 현대화라는 근본 원

최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가지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논쟁이 가열된 것은 짊은 세대의 부상과 대학 증설 등의 내부 요인 이외에도, 프랑스의 68세대, 미국의 나이슨에 대한 체제 비판과 급진주의 등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사조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구 전반이 겪은 '가치의 위기'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좌익의 활성화와 민족주의의 급진화 이외에도, 반문화주의, 자연환경보호주의, 급진적 폐미니즘까지 가세하여, 지적·예술 분야와 정가에서 점점 더 날카로운 대립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사회 운동, 노동자 운동도 활발해졌다. 현대화에 대한 반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구,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 시테 리브르(*Cité libre:1950-1966*)

'시테 리브르'를 중심으로 활동한 지식인들은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연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반대했다. '시테 리브르'는 낡아빠진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정의와 번영은 공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파한다. '시테 리브르' 잡지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 면에서 근본적으로 연방주의자들로서, 케베의 역할이 연방 제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들중 '세 온건파'라고 불리우는 트뤼도, 펠르티에, 마르샹은 후에 연방 정부에 진출하여, 60년대의 '불어권의 힘'을 이루며, '조용한 혁명'의 반대 세력을 형성한다.

#### — 파르티 프리(*Parti Pris:1963-1968*)

'파르티 프리'는 비종교화주의(*la Icisation*), 독립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익 운동 잡지이다. 이 운동의 응호자들은, 케베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국인, 카나다인, 종교 엘리트, 부르조아지, 그리고 미국의 자본가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왔으며, 문학까지도 프랑스 문학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종속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용한 혁명'의 사회 개혁상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고, 민주화와 참여의 과정이 사회·경제 체제의 전복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들은 1965-1972년에 이르는 동안, 민중이 이해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케베 속어인 주알어를 사용하였고, 이 책은 저렴한 가격의 포켓판으로 출판되었다.

#### — 케베해방전선(Front National de Libération du Québec)

자유당과 민족 연합이 케베의 문화와 교육 분야, 그리고 천연 자원을 주축으로 한 지역 경제 분야에서 케베 사회의 갈망에 정치적 내용을 부여하고 있는 동안에, 독립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군의 짊은이들은 케베해방전선을 결성한다. 케베해방전선은 도시 게릴라 전법으로 케베 민중에 대한 억압을 상징하는 영어권 건물들과 몽레알의 증권거래소에 폭탄을 투척하는 테러를 자행한다. 케베 해방 전선의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조직과는 거의 접촉이 없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부터 모택동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 전부는 명

백히 사회주의자이며, 반교권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의 테러는 1963년에 시작하여 1970년에 절정에 달하고는 소멸되었다.

1970년 10월에 퀘벡해방전선은 영국의 외교관 한명과 노동부 장관인 피에르 라포르트(Pierre Laporte)를 납치한다. 이것이 바로 퀘벡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10월 위기로, 수상인 로베르 부라사는 연방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에 연방에서는 '전시조치법안(*la loi des mesures de guerre*)'을 선포하고, 퀘벡해방전선의 단원들이 쿠바로 망명하는 것으로 사태는 해결된다.

퀘벡해방전선은 불어권 주민들에게 불어권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속화하고 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대중 속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다지지는 못했다. 10월 위기를 겪은 후, 일부 투사들은 퀘벡당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인 방법으로 독립에 이르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고, 변화의 욕구에 사로잡힌 채 급진화한 다른 투사들은 극좌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독립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퀘벡당은 1970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제도 속에서 선거 캠페인을 벌이지만, 퀘벡해방전선 사건의 영향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련의 기간을 거쳐야 했다.

### 3) 여론의 분극화 시기 : 1976-1980

1976년 선거에서 퀘벡당이 승리하고 주권연합에 대한 국민투표 개최 공고가 나자 퀘벡은 이념적인 혼란에 빠진다. 조용한 혁명 이전,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민족문제가 4년 동안 모든 논쟁의 촛점이 된다. 사회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퀘벡의 헌법적 지위와 카나다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문제로 국민의 의견은 찬반으로 양극화되었다.

#### — 1980년 국민투표

퀘벡의 주권 문제를 다룰 국민투표가 1980년 5월 20일로 공고된 후, 그 어느 때 보다도 퀘벡 주민의 여론은 분극화되었다. 퀘벡 독립 찬성파에는 르네 레베스크를 중심으로 급진적 독립주의자, 지방분권적 연방주의자, 노조활동가, 사회주의자, 전통주의자들이 가담하였다. 반면에 반대파에는 연방의 '불어권의 힘'의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카나다 민족주의자, 자유당 인사들, 사회 민주주의자, 좌익, 고용주 연합, 금융가 등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가담했다. 연방 정부와 트뤼도 수상의 직권에 의해 정치적·재정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반대파는 주권 분리시의 위험을 환기시키면서 카나다의 연대성을 호소했고 또한 연방 체제의 쇄신을 약속했다.

국민투표에는 퀘벡 주민의 80%가 참여하여 퀘벡당이 40.4%, 반대편이 59.6%의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주권연합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주권연합에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어권과 독어권 주민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불어권 주민의 선택은 거의 찬반 동수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2) 기타 주요 사조들

### 1) 개혁주의적 퀘벡민족주의(Nationalisme québécois réformiste)

조용한 혁명 이후 시대의 토대를 이루는 개혁주의적 퀘벡민족주의는 1945-1960년의 신민족주의로부터 파생되었다. 이 계보에 속하는 단체들은 모두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다. 첫번째 주제는 민족에서 기존의 종교적, 과거주의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민족의 변별적 자질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퀘벡 민족주의자들은 정치·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어의 권리와 주장을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들은 문화가 개혁되어 사회적, 정치적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퀘벡 민족주의는 민족과 퀘벡이라는 특정 영토의 지배를 연결시켰는데, 이 영토 위에서 불어권 카나다인들은 그들이 다수를 이루는 하나의 변별적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퀘벡 민족주의자들의 또 다른 중심 주제는 사회에 대한 개혁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 의하면 현대화는 퀘벡의 미래를 보증하는 유일한 것이므로 퀘벡인들이 진정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낙후된 분야들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차원의 개혁의 전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방어적인 태도는 이제 주장하고 요구하는 변화의 민족주의로 바뀐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이 개혁주의는 196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따르며 1970년대에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또한 개혁적 민족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혁명의 타월한 이데올로기가 되며, 그것은 ‘우리의 땅에서 주인이 되자 (Maitres chez nous)’라는 슬로건에서 강력히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퀘벡민족주의를 장르사류의 자유당만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일 것이다. 그것은 다른 정치 단체들, 다른 정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니엘 존슨과 민족 연합의 ‘평등이냐 독립이냐’, 로베르 부라사와 자유당의 ‘문화적 주권’, 그리고 퀘벡당의 민족주의적 주장과 사회적, 정치적 개혁은 본질상 이 사조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적 퀘벡민족주의의 이념은 정계뿐 아니라, 학생운동, 노조, 지식인 등을 포함하는 국민 전반에게 확산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퀘벡의 협법적 지위와 카나다 와의 관계에 관해서 가장 강렬하게 발현된다.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된다.

#### – 연방주의적 민족주의(Nationalisme fédéraliste)

연방주의적 민족주의는 지방분권화된 카나다 연방 내부에서 퀘벡의 권력 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연방 내부에서 퀘벡의 특별한 지위를 요구한다. 연방의 권력에 대해 다소간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나다와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독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퀘벡의 독립이 초래할 수 있는 위

힘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인다.

### — 독립주의(Indépendantisme)

연방 체제를 퀘벡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속으로 여기고, 퀘벡을 갖가지 지배에 의해 ‘소외되고 착취된’ 사회로 평가하는 이 독립주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주의자들로서 퀘벡의 주권과 불어의 단일언어사용, 그리고 다소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1960년대에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1967년 이후 르네 레베스크의 영향으로 독립주의는 ‘주권연합’이라는 온건한 형태 아래에서 재정의된다. 독립주의는 1970년대에 급진화되었지만 1980년 투표에서 패배했다. 연방주의적 민족주의가 60년대 이후의 지배적인 사조임에는 틀림없으나 독립주의 역시 주된 이념을 형성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카나다 민족주의

연방주의와 독립주의 간에, 퀘벡 민족주의자들은 우선 퀘벡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퀘벡 정부에 부여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바로 그 점에서 카나다 민족주의와 대립된다. 카나다 민족주의는 ‘시테 리브르’를 중심으로 모인 신자유주의 경향의 지식인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들의 주장은 1965년 이후 연방 자유당에 점차 동화되어갔다. 카나다 민족주의는 사회의 현대화, 민주화, 교회와의 분리를 옹호하고 있으며, 국가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특권적 기구로 보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의 개혁들에 지지를 표명하지만, 조용한 혁명이 민족주의 방향으로 경도되고 독립주의가 부상하자 조용한 혁명을 위험한 탈선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카나다 민족주의는 이중 언어와 다원적 문화를 토대로 한 거대한 카나다 연방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퀘벡을 정의하고, 연방 제도 내에서의 불어권의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퀘벡 민족주의와는 모든 형태에서 대립되는 중앙집권적 연방제를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퀘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그 특수성은 언어와 문화에 국한되어야지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 독자적인 주권을 지닌 별개의 영토로는 인정치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카나다 민족주의는 1960년대 이후, 영어권 퀘벡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념이기도 하다. 영어권 퀘벡인들은 민족주의적 주장과 불어화 운동이 점점 더 그들을 소수 그룹으로 만들며 가자 ‘불어권의 힘’이 제안하는 이중 언어의 사용에 동의하고 퀘벡 내부에서 그들의 언어 공동체의 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영어권 퀘벡인들은 점차 퀘벡에 동화되어, 퀘벡의 주된 프랑스적인 경향과 함께 연방 정부에 대한 제반 정치적 요구들에까지 동의하는 추세에 있다.

### 3) 좌파 이념

정치와 헌법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대립되는 퀘벡 민족주의와 카나다 민족주의도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공통된 경향을 띤다.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각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과 안락한 생활 조건,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사회 보장 제도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지만 사유재산, 기업의 자유, 이윤법칙과 같은 자유주의 원칙의 토대는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1960년 이후 퀘벡에서 확산되고 있는 좌파의 이념은 사회문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완벽한 평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조직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로 대표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교회와 보수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제도와 심성이 자유화되었으며, 좌파에 대한 불어권 주민들의 전통적 적개심이 약화된 것, 과거에 좌파에 부여되었던 이데올로기적 겸멸이 사라진 것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노동 조합 운동의 진보와 함께 세대의 부상, 교육 체계의 발전 등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본주의를 평등 사회로 대체한다는 공동의 이상에서 출발하여, 좌파는 여러 조류로 분리된다.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급진파는 사유재산의 폐지, 경제 국유화, 지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인 국가 전복,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수립을 주장한다. 급진파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투쟁, 정부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급진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급진파는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교수들의 영향으로 1960년 이후 대학과 교육 대학들에 확산되어 급진 경향의 학생 씨클, 잡지, 신문들이 생겨나고 모택동주의, 트로츠키즘, 레닌주의 등으로 다양화된다. 1970년대에 더욱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내부 분열로 점점 세력이 약화된 급진파는 지나치게 교조적이며 고정된 사상으로 인해, 현실 변혁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는 훨씬 온건파로서, 경제의 공유화와 노동자 권리 증대를 주장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계급 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동하지 않는다.

1960년대의 퀘벡 사회주의당과 퀘벡 신민주당은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는데, 그 단체에는 ‘시테 리브르’의 지식인들과 노조원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파르티 프리’ 역시 사회주의를 그들의 기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이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에 구현되어 있는 평등주의의 사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퇴조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식의 참여적 사회주의가 부흥하게 된다. 이리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 대신에 노동자들에 의한 경영의 자주 관리와 공동체 생활, 그리고 기층 연대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퀘벡의 좌파 사조들은 프랑스와 같은 외국의 모델을 따라 담화, 출판, 공공 선언, 분석과 여론 형성 등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했지만,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며 지식인과 노조 활동가들 이외에는 동조자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퀘벡의 좌파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분적으로는 민족 문제와 맷고 있는 모호한 관계에도 기인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 변혁으로 가는 선제 단계, 혹은 수단으로 퀘벡의 독립이나 주권 확립을 제시하고, 민족 문제를 그들의 사상에 통합시키려 했지만 그러한 민족 문제는 부르조아적이며 더우기 퀘

벽에 국한된 민족 문제는 그들의 사상과 모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4) 기타 사조들

70년대에 다원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민족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정의되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요구에 보다 잘 부합되는 사조들도 찾아볼 수 있다.

##### — 페미니즘

법적 평등 위에 기초하고 있던 60년대의 페미니즘은 7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더 급진화되면서 사회 속에서의 성적 역할 분배에 따른 몇 가지 실천과 가치를 문제삼게 된다. 그러한 급진적인 경향은 80년대 이후로 줄어들게 되지만, 페미니즘의 메시지는 여성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정권, 노조, 기업, 대중 매체들은 여성들의 의견과 요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 — 자연 환경 보호주의

자연 환경과 건물과 같은 환경의 보호에 관심을 갖는 사조로서, 동래알의 영어권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공공 운송이나 녹지, 공장과 댐의 건설, 비흡연자 보호 등과 같은 특별한 논쟁시 주로 의견을 표시하며, 최근 들어 핵에너지의 사용에 반대하는 자연 환경 보호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부각되고 있다. 퀘벡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은 없다.

##### — 반문화운동(*la contre-culture*)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에게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조로서 개인과 단체의 도덕적, 성적, 심리적, 정신적 해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반순응주의와 규범과 기성 가치에 대한 멸시의 경향으로 특징지워진다.

1980년대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명백한 단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1-82년의 경기 후퇴,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집단적인 운동들의 쇠퇴 등으로 이데올로기기에 대한 관심이 식은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사생활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회 문제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패락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경향을 상업과 광고는 십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가 부상하여 국가의 개입 축소, 경제의 사유화, 사회 프로그램의 축소, 기업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한다. 이는 새로운 보수주의가 사회적, 정치적 삶의 전반에 부상한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이제 퀘벡인들이 일반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지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IV. 퀘벡의 경제 현황

### 1. 국가와 경제 : 퀘벡의 경제 정책

1960년 이후 퀘벡 경제의 팔목할 만한 성장은 정부의 역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정책 수립에 대한 퀘벡의 지도급 정치가들의 태도는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뒤플레시스(Duplessis)는 정부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반대 했지만, 새로운 엘리트들은 오히려 그 점에 역점을 두었다.

#### (1) 새로운 목표

장 르사쥬(Jean Lesage)의 집권은 1897년 이후로 자유주의자들과 민족 연합파들에 의해 적용되어오던 경제 전략을 완전히 전복시켰다. 이전까지 천연 자원들과 도로에 한정되었던 정부의 관심은 더욱 전반적인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조용한 혁명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전략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 동안 계속 이어졌다. 이 새로운 방향 설정은, 물론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퀘벡 사회의 현대화라는 일반적인 목표 속에 포함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이다. 퀘벡의 정치 지도자들은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 원칙에 동의하는 연방 지도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퀘벡 정부를 경제의 주관자인 동시에 사기업들의 파트너로 만들고자 했으며, 나아가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둘째는 퀘벡 경제의 현대화이다. 이 목표는 이미 ‘회복’ 이데올로기라고 표현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수공업 기업들의 현대화를 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설비재의 생산과 첨단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을 이식시키면서, 결국 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항만이나 수력 개발과 같은 사회 공유 시설의 투자에서 누적된 후진성을 극복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셋째, 불어권 카나다인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프랑스어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유리한 균형 조건, 더 잘 구성된 사회 정책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 노력했으며, 특히 불어를 사용하는 간부들과 사업가들을 경제 지침의 수립에 더 많이 참여시켰다. 이러한 시각에서 퀘벡 정부는 불어권 카나다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연방 정책이 불어권에 끼칠지도 모를 불이익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세 가지 목표는 모두 경제 성장과 투자 모색, 그리고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압심에 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세제(稅制)와 국고 운영에도 변화가 생겨, 정부 지출이 증가했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 투자 사업 이외에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출을 늘려서, 사적인 투자를 자극시켰다.

60년대 이후로 퀘벡 정부는 국영기업들을 중요한 경제적 개입의 수단뿐 아니라, 불어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단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류 회사(Société des alcools)와 이드로-퀘벡(Hydro-Québec)에 이어, 많은 기업들이 새로이 국영화되었다.

〈도표 3〉 퀘벡의 주요 국영 기업

이 름	창설 연도
Société des alcools	1921
Hydro-Québec	1944
Société générale de financement(SGF)	1962
Siderurgie du Québec(SIDBEC)	1964
Société québécoise d'exploration minière(SOQUEM)	1965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1967
Société d'habitation du Québec	1969
Société d'exploration des loteries et courses(Loto-Québec)	
Société de récupération, d'exploration et de développement forestiers (REXFOR)	1969
Société québécoise d'initiatives pétrolières (SQUIP)	1969
Société dénergie de la Baie James (SEBJ)	1971
Société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SDI)	1971
Société québécoise d'initiatives agro-alimentaires (SOQUIA)	1975
Société nationale de l'amiante (SNA)	1978

## (2) 자원 관리

퀘벡 정부의 경제 전략에 있어서 천연 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 이전까지 퀘벡 정부는 천연 자원의 개발권을 사기업에 일임하고 있었으나, 1960년 이후로 천연 자원 분야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영 기업의 형태로 정부가 직접 참여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1)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 퀘벡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세위니간 워터 앤드 파워 (Shawinigan Water & Power)와 같이 몽레알 지역 밖에서 전기를 생산, 분배하던 사기업들을 국유화 하여, 1963년에 이드로-퀘벡에 병합시킨 것이다. 알칸(Alcan)같이 자금자족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정치적,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닌 에너지 국유화 시책은 전국토에 대해 요금을 균일화하여, 아비티비(Abitibi)나 라 가스페리(la Gaspésie)와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전기를 공급해주었고, 갈수록 증가해가는 산업체와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국유화로 인한 수입으로 금융 산업과 같은, 이윤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였고, 그 결과 많은 불어권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마침내 불어로 이름을 날리는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드로-魁베은魁베의 새로운 민족주의와 정부의 경제 전략의 상징이 되었다. 엄청난 투자 규모로 수공업 분야의 상황을 바꾸어 놓았고, 상당한 매입 능력으로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북미의 다른 지역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0년에는 전기 요금이 인하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축적된 잉여 전력은 점차 수출되었다. 이드로-魁贝은魁贝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어,魁贝 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로,魁贝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여,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카나다 천연 가스의 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SOQUIP (*Société québécoise d'initiatives pétrolières*)을 설립했다. 1969년에 세워진 SOQUIP은 처음에는魁贝에서 석유 시추를 담당하다가, 점차 정유와 판매로까지 업무를 확장했다. 1976년 이후로 SOQUIP은魁贝 밖으로 탐사 활동을 확장하여, 카나다 서부의 천연가스 시추에 참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활동이 더욱 증대되어, 판매 사업에서는 가즈 메트로폴리탄(Gaz métropolitain)을 지배하게 되었고, 선댄스 오일 (Sundance Oil)의 탐사권과 생산권을 점유했다.

또한,魁贝 정부는 석유 화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페트로몽(Pétromont) 창설에 참여하지만,魁贝이 점점 더 알베르타주와 온타리오주에 비해 뒤지게 되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 2) 광산업

당시까지 광산의 채광은 거대한 영어권 카나다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혹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어 왔고, 산지 가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魁贝은 주요 광산의 채광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다. 광산업 분야에서魁贝 정부의 가장 주요한 활동은 특히 알비티비의 카디약(Cadillac) 단층의 광석 채굴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자원 관리를 위한 국영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SOQUEM(*la Société québécoise d'exploration minière*)은 1965년에 설립되어, 광맥을 발견하고, 광석을 채굴함으로써 빛나는 성공을 거둔다.

SIDBEC과 그 자회사인 SIDBEC-Normines는 철광을 개발했지만, 철광의 국제 가격 인하로 큰 이익을 거두지는 못했다.

석면은 그것이 지난 상징적 가치때문에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특수한 경우이다.魁贝은 세계적인 석면 산지이지만, 석면 채굴은 대부분 외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미가공 상태로 수출되었다.魁贝당은 석면 분야를 부분적으로 국유화하고, SNA(*Société nationale de l'amiante*)를 1978년에 조직하여 벨 아스베스토스(Bell Asbestos)와 아스베스토스 연합(Asbestos Corporation)을 병합했으며, 석면의 산지 가공을 통해 수익성 재고

를 꾀했다.

### 3) 목재와 펄프

퀘벡 정부는 1974년에 27법안을 채택하여, 삼림 양도 체계를 폐지하고, 공유림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시행했다. 정부가 다양한 가공 공장들에게 목재지급 계획에 따라 원자재를 분배했으며, 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자들에게 판로를 보장하며, 제재 공장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도록 했다.

펄프 분야에서도 기업의 현대화를 위한 연방과 주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억 달러가 새로이 투자되었다. 퀘벡 정부는 REXFOR와 SGF을 조직하여, 생산에 직접 관여했다. 이 조직들은 불어권 카나다인이 운영하는 제재소들의 도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REXFOR는 목재 가공 공장을 소유하거나 지원했으며, SGF는 제지 산업에 참여하여, 도노휴 (Donohue)와 함께 생-펠리생(Saint-Félicin)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신탁회사(Caisse de dépôt)와 함께 동타르(Domtar)사를 관리한다.

### (3) 금융 관리 및 기업원조

퀘벡 정부는 헌법에 의해, 서민 금고, 보험 회사, 담보 회사, 유가 증권 거래, 부동산 중개와 같은 금융 분야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금융기관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퀘벡 정부는 간섭과 통제의 기구들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금융 분야에서의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1965년의, ‘저축투자금고(*la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의 설립이다. 그것은 연금 관리공단(*la Régie des rentes*)에 의해 정수된 막대한 금액을 관리하며, 점차 다른 정부투자기관들의 자금을 위임 관리하게 된다. 저축투자금고는 자신이 소유한 막대한 자금을 공공 기관이나 사기업들에게 융자해줌으로써, 이윤을 얻는 동시에, 퀘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처음 10년 동안 저축투자금고는 신중한 정책을 펴서, 주로 정부의 채권들을 매입했지만, 70년대 말부터는 퀘벡당 정부의 주장에 따라, 퀘벡에 세워진 기업들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 그 결과 저축투자금고는 카나다의 가장 중요한 유가증권들을 소유하고,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영어권 카나다 기업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불어권에 속하는 사적인 금융기관들을 강화하려는 의지는 퀘벡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것은 퀘벡당의 집권 이후에 더욱 본격화되어, 퀘벡 정부는 저축투자금고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 외에도, 데자르댕(Desjardins)운동을 지원하고, 저축 운동을 장려하며, 금융기관의 개편과 통합을 장려했다. 특히 저축투자금고의 존재는 금융 조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퀘벡 정부는 오래 전부터 금융 조합에 모인 영어권 회사들의 중개로 채권을 발행해 왔고, 그에 따른 압력을 받아왔는데, 70년대에 저축투자금고의 자금과, 서민 금고등 불어권 기구들의 발전으로, 채권의 원천을 다양화하여, 영어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60년 이후로 사기업, 특히 수공업 분야에 대한 퀘벡 정부의 지원은 증가되고 다양화되었다. 1971년부터 직접 보조금은 연방 정부의 관할로 돌리고, 퀘벡 정부는 무이자 대부과 대출 보증, 혹은 주식 자본금에 대한 출자와 같은 금융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연방 정부와 주 차원에서의 조세 감면 조치도 수반되었다.

퀘벡 정부의 원조 대상은 투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상공부에 의한 공무원과 고문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사절단 파견, 수공업자들의 새로운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CRIQ(*le Centre de recherche industrielle du Québec*)의 설립, 그리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 확장회사(*la Société d'expansion des exportations*) 설립 등은 기업의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퀘벡 정부의 노력을 말해준다.

퀘벡의 기업을 현대화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퀘벡 정부는 1962년에 도산한 퀘벡 기업을 재건하고, 새로운 분야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SGF(*la Société générale de financement*)을 설립한다. SGF는 1960년대 자동차 조립에서 식료품 생산에 이르는 수 많은 분야에 개입했으나 관심과 노력의 분산,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71년에 개편되어 그 이후 전적인 정부 기관이 되었다. 이후 SGF는 한정된 분야의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 회사로서 높은 이윤을 얻으며, 퀘벡의 주요 산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퀘벡 산업, 특히 불어권 기업에 대한 원조는 SDI(*Société de développement industriel*)에서 담당한다. SDI는 상업 은행과 경영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공업과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여 산업 구조의 개선을 도모한다.

#### (4) 정부의 역할 재평가

1960·70년대 동안 점점 확대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일단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당시에는 기업이나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가 당연히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이 시기의 확신들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갈수록 실제 경제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졌고, 정부의 활동은 엄격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축소됐으며, 재정 적자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퀘벡 정부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나 산업 구조의 노후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1981-1982년의 불황까지 겹쳐,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선출로 미국에서 보수파가 집권한 것에 영향을 받은, 카나다와 퀘벡의 업계와 많은 정치가들이 정부 차원의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법규를 제정할 것과 몇몇 국영 기업들을 사기업화할 것을 희망하게 되었다. 심지어 오랫 동안 간섭주의를 부르짖어온 퀘벡당까지도 사기업을 선호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1985년, 자유당의 집권으로 본격화되어, 부라사(Bourassa) 정부는 몇몇 국영 기업들의 매각과 사기업화를 담당할 장관을 임하기까지 한다. 연방 차원에서도 1984년, 브라이언 멀로니 (Brian Mulroney)와 보수당의 집권은 같은 방향의 운동을 전개시킨다.

1981-82년의 불황은 이전 시기와 근본적인 단절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조용한 혁명의 전략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20년 간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새로운 불어권의 부르조아지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게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퀘벡의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의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다변화하여, 재화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 지출의 뜻은 1961년에는 PIB(국내 총생산)의 17%에 불과하던 것이, 1983년에는 26%로 증가했다. 정부의 개입은 경제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로 파급되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활동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1) 경제 법규의 제정, 2) 법규의 준수를 관掌하는 감독관의 역할 수행, 3) 원조금과 장려금의 분배, 4)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혹은 직·간접적인 고용주로 활동, 5) 국영 기업들의 경영자로서의 개입등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퀘벡 정부는 수동적인 동반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인 개입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었다.

## 2. 퀘벡의 산업

1960년 이후의 퀘벡 경제는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했다. 퀘벡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제반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들을 검토하기 이전에, 자본 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 이후 카나다 연방 정부와 각 주의 정부들은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점유율을 낮추고, 경제를 '카나다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였다. 또한 기업들은 그 자체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현상으로서, 기업 독점과 집중을 통한 대자본 형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 (1) 경제의 카나다화

1960년대에 카나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외국인의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60년의 220억 달러에서 1965년에는 290억 달러, 1970년에는 44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미국 자본이 전체의 70-75%를 차지했다. 외국 자본의 점유율은 1968년에 최고에 달 하여, 금융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의 38%를 외국 자본이 지배하게 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제조업의 경우 1970년을 기준으로 광업의 69%, 수공업의 58%가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당시 미국과 유럽의 많은 대기업들이 온타리오, 퀘벡 등 지에 진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했다. 스키스쿠터 분야에서 봉바르디에(Bombardier)를 제외한 퀘벡의 주요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에 매각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외국 자본의 과다한 점유가 카나다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우호적이던 정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오타와에서는 그레이 Gray 보고서가, 퀘벡에서는 테틀리 Tetley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사기업들에 의한 경제의 카나다화가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FIRA(Foreign Investment Review Agency)를 설립했고, 오타와에서는 CDC(*la Corporation de développement du Canada*)가 창설되어,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매입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분야 산업의 발전을 담당했다. 또한 페트로-카나다(Pétro-Canada)는 1976-80년 사이에 연달아 4개의 외국 석유 회사들을 인수하여, 민족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선언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되사기 운동(mouvement du rachat)’에 참여했다. 그 결과 외국인들에 의해 지배되던 대기업들을 다시 인수하게 되었다.

몇년 동안의 ‘카나다화’의 결과, 1972-82 사이에, 외국 기업의 지배를 받는 카나다 기업은 광업 분야에서 69%(1970)에서 43%(1982)로, 제조업은 58%에서 49%로 감소했고, 석유 분야에서의 외국의 지배는 45%로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비금융 산업 전체를 통틀어 외국 자본의 점유는 36%에서 26%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나다는 석유, 광산,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막중한 외국 자본의 점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1984년에 오타와에서 보수파가 재집권하면서, 이 방면에 대한 연방 정책이 재검토되었다. 멀로니 정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환영을 표명하며, 민족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나아가 1988년에는 미국과의 자유 교역에 합의했다. 퀘벡에서는, 외국의 투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르사주 정부하에서도 유지되었으며, 페치니 (Pechiney)와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의 공장 건설은 그 좋은 예이다. 1985년의 로베르 부라사(Robert Bourassa)의 재집권 이후, 외국 자본의 유치는 한층 더 장려되고 있다.

## (2) 경제의 퀘벡화

퀘벡 정부의 입장은 다른 주정부들과는 다르다. 국영 기업의 설립은 석면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권 카나다의 자본에 대항하여, 불어권의 경제적 비중의 강화가 그 목적이다. 티틀리 보고서(1973-74)가 상기시키듯이, 퀘벡은 고용의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언제나 개방적이었다. 퀘벡 정부는, 퀘벡이 신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외국 기업이 주도하던 분야를 퀘벡이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경제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외국 자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온타리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퀘벡에서의 ‘카나다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퀘벡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퀘벡 경제에서 불어권 카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1960년 이후로 그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는 고용주의 사용 언어와 국적에 따라 분류된, 공기업과 사기업의 일자리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퀘벡 경제 전체에서 불어권 카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에 비해 1978년에는 47%에서 55%로 증가하고, 영어권 카나다는 39%에서 31%로 감소한다. 반면에 외국인은 약 14% 정도로 머물러 있다. 불어권의 세력확장은 단지 불어가 이미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분야에서의 증가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불어권의 발전은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분야는 건설업과 금융업이다. 1978년에도 역시 광업과 제조업에 대한 불어권의 비율은 미미했고, 운송·통신·공공 서비스, 금융기관, 상업 분야에서는 중간을 차지했다. 강세를 보인 것은 농업, 건설업, 그리고 공공 행정 분야였다. 반대로, 영어권 기업들의 상대적인 쇠퇴는 전 업종에서 나타난다. 광업과 상업에서는 외국 자본에 유리하게 되지만, 대체로 영어권의 쇠퇴에 따른 이익은 불어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魁北克 경제에 대한 불어권의 점유율은 인구 비례로 보아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지배적이지 못하지만 20년도 안되는 사이에 팔목할 만큼 발전했고, 1978년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어권 카나다에 속하는 기업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 갔다는 사실 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것은 불어권의 새로운 엘리트들의 부상이나, 불어권 카나다인의 생활 수준 개선,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전략과 그에 따른 역할 등의 여러 요소들에 의한 것이다. 자본의 점유도는魁北克 자본 체계의 발전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이지만,魁北克의 경제적 현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불어권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과 기업의 유형들에 대한 고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3) 기업의 집중

사회학자인 존 폴터(John Porter)는 1948-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카나다 경제의 주요 분야들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기업의 수를 183개로 보았다. 역시 사회학자인 월라스 클레망(Wallace Clement)이 1971-72년의 기간에 대해 같은 연구를 하면서, 자산 25억 달러 이상, 판매액 5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의 목록을 작성했을 때에는 폴터의 조사보다는 훨씬 적은 113개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13개의 기업들이 통신 분야의 97%, 운송과 석유에서 90%, 기계와 식료품 생산에서 66%를 점유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 자산의 90%, 생명 보험사의 86%와 담보 회사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비금속 광물, 전기, 다양한 수공업, 대소매업과 같은 분야들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기업과 경제력의 집중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폴터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레망의 양케이트에도 1971-72년 사이에魁北克의 불어권 카나다인에 의해 경영되는 회사들은 주요 기업에 거의 들어있지 않다. 단 하나의 예외는 새로운 규모의 파워 코오퍼레이션(Power Corporation)의 부상이다. 금융 기관을 제외한다면,魁北克에서 불어권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한 주요 사기업은 봉바르디에(Bombardier)인데, 클레망은 봉바르디에 조차 중간급의 기업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불어권 그룹들의 부상과魁北克 금융 기관들의 성장으로, 1970년대의 상황은 크게 변화한다.

사실상 불어권 카나다 기업들도 1970년대 동안, 매입과 집중화 운동에 진출했다. 그 현상은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나 상업에서 두드러졌지만, 유제품·제과·제빵과 같은 식료품 생산이나, 제재·인쇄 분야와 같은 제조업 영역으로까지 파급되었다. 운송과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수 많은 재집결이 일어났다.

그 결과, 불어권 카나다의 금융·산업 그룹들이 설립되고 부상했다. 이 그룹들은 퀘벡 내부의 차원에서,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카나다 차원, 그리고 다국적 차원으로까지 성장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국립은행(La Banque Nationale)이나 라 로랑티엔느(La Laurentienne), 프로비고(Provigo), 봉바르디에, 가즈메트로(Gaz Métro), 케베코르(Québecor), 유니-메디아(Uni-Media), 라발랭(Lavalin), SNC 이외에도, 강력한 테자르텡(Desjardins) 그룹을 이루는 조합들과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 1960년 이후에 창설된 불어권 국영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이드로-퀘벡, SGF, 저축투자금고(la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등은 퀘벡 뿐만 아니라 카나다 전체와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이 되었다.

집중으로 인해 팽창된 기업은 다국적 차원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예를 들어 1905년에 설립된 이후 퀘벡의 면직물 사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도모니언 섬유(Domonion Textile)는 생산을 주로 퀘벡에 집중시키고 있었으나, 1975년 이후 외국으로 확장 진출했다. 또한 에스트리(Estric) 지역의 발쿠르(Valcourt)에 자리 잡고 있던 봉바르디에는 1980년대 초에는 퀘벡에 있는 여러 공장들에서 운송 수단들과 레크리에이션 제품들을 제조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모터와 전차를, 아일랜드에서는 버스, 베르몽(Vermont)에서는 기관차·객차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중소 규모의 여러 퀘벡 기업들도, 지리적 이점이나 시장 규모에 이끌리어, 미국에서 여러 계열사들을 인수·운영하고 있다.

다른 산업 국가들이나 카나다와 마찬가지로 불어권 퀘벡에서도 대기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업 집중을 통해 그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퀘벡의 자본주의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 (4) 퀘벡 산업의 현대화

퀘벡의 산업은 1950년대에 현대화가 시작되어, 1960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다. 현대화는 정교한 제품의 생산, 생산의 자동화, 컴퓨터에 의한 경영등 여러 방향으로 표현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자동화의 진척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 감소되었고 그 결과, 공장 설비의 신축과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철도나 해로와 같이, 전통적으로 공장 입지를 결정짓던 요인은 이제 고속도로로 대체되었고, 새로운 기계 설비를 위해, 수공업 분야에서는 공간의 재편성이 일어나기도 했다. 몽레알지역의 라친(Lachine) 운하, 또는 오셀라가(Hochelaga)나 메종네브 (Maisonneuve) 같은 강변을 따라 위치했던 공업 지역은 점차 교외로 이동하여, 앙주(Anjou), 북부 몽레알, 생-로랑, 도르발과 같이 도로에 인접한 교외

지역에 새로운 공업 단지가 형성되었다. 그외에도 퀘벡 지역에서는 탈중심화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산업의 현대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설비의 이동은 퀘벡의 베어나, 경제 활동 영역이 서쪽으로 향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온타리오나 서부 지방의 급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퀘벡은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는 더욱 두드러져, 퀘벡의 산업의 상대적인 쇠퇴를 설명해주는 요인중의 하나가 된다. 특히 수공업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배가 이러한 이동 현상의 주된 원인이었다.

현대화에 의한 기업 집중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기성복·가구·인쇄·식료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미개척 분야로 전문화된 기업들과, 대기업의 하청업체들도 기계 공정에 의한 건설이나 설비 영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8년에는, 직원이 50명 이하인 기업이 퀘벡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고, 15%의 생산과 20%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3. 산업 구조의 변화

전후 퀘벡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공업, 건설업, 그리고 천연 자원의 개발이었다. 그러한 경향은 196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서 이들의 몫은 감소했다. 카나다의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퀘벡의 경제적 지위도 쇠퇴했다. 다른 산업국 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탈공업화 현상, 즉 산업 종사 인구가 공업에서 제3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현상이 퀘벡에서도 일어나 퀘벡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3차 산업의 부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공업과 천연 자원 개발의 상대적 쇠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생산 활동의 재분배와 기업의 재편성이라 볼 수 있다.

#### (1) 1차산업

전통적으로 퀘벡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농업 역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했다. 생산의 전문화, 전체적인 생산량의 증가 등과 같이, 공업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퀘벡에서도 나타났다.

195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농업 종사자 수는 1960-70년대에는 50%나 감소하여, 200,000명만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전체 노동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농업이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게 되자, 시장 개척의 문제가 가장 큰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정부는 농가를 위해서 판로를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1975년에는 SOQUIA(Société québécoise d'initiative agro-alimentaire)라는 단체를 발족시키고, 농업 종사자들은 가격 보호 등을 위해서 UCC, UPA 등의 조합을 결성하였다.

농업 종사자들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의 기계화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생산량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1960년대에는 농업의 상업화, 상품화를 지향했고, 70년대에는 생산품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교육 기회의 확산으로 농민들의 자질이 향상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魁北의 PIB(국내 총생산)의 약 2%를 차지하는 농업에서, 젖소 사육이 농가 수입의  $\frac{1}{3}$ 을, 그리고 양돈이 20%, 가금 사육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역시 현대화,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농가의 평균 자산 축적이 1961년의 16,985\$에서 1981년에는 196,665\$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고, 수익성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북미 지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2) 2차산업

魁北의 수공업은 1960년대 초반에 팔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20년 동안 생산량은 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도약하며, 종업원 수도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1980년 초의 불황으로,魁北은 수공업에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도산하였으며, 총격으로부터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에魁北 노동력의 약 29%가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수치는 6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으나, 1966년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수공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26.3%로, 80년에는 23%로 하락하게 되었다. 생산량도 1961년에는 PIB의 30%가량 되었는데, 1970년에는 26%, 1976년에는 23%로 감소한다. 그 결과, 카나다 전체의 수공업 생산에 대한魁北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의魁北의 특징은 소비재와 경공업이 영구재나 중공업 생산보다 우세하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 특히 제 3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값싼 노동력과 무관세에 의해 번창해온 전통적인 경공업 분야들, 특히 가죽, 섬유, 의복, 담배 공업이 퇴조하게 되며, 전통적인 가족 경영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과 공장 설비의 노후성은魁北의 공업에 큰 장애가 된다. 그러나 금속 분야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과 정부의 원조에 힘입어, 1차 제련술과 금속 제품과 같은 중간 생산품, 그리고 기계, 수송수단, 전기 기구와 같은 완제품들의 생산에서魁北은 팔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새로운 공업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생트-테레즈(Sainte-Therese)에 제네럴 모터스(GM)의 조립 공장이 세워지고, 르노 자동차의 조립을 위한 SOMA(Société de montage mobile)의 설립으로, 그때까지魁北에 없었던 자동차 조립 공업이 활성화되며, 몽레알 지역에는 항공 공업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공업 분야에서의魁北의 활동은 아직은 온타리오에 미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공업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魁北의 경제 활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61년과 1976년 사이에, 건설에 대한 신규 투자는魁北의 PIB의 15%에 달한다. 건설에 대한

공공 투자는 온타리오보다 앞선다. 1960년대에 정부는 병원, 학교, 대학등의 공공 건물 건축과 행정관서, 국회의사당 등의 신축에 많은 투자를 했다. 정부는 그밖에 운송을 위한 기초 공사, 즉 몽레알의 지하철 건설, 도로망 보수와 현대화, 카나다 횡단 도로 건설 및 기타 고속도로와 교량건설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게 되자, 퀘벡 정부는 건설 경기를 자극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활기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 1964-66년의 국제 박람회에 따른 건설과, 1973-1976년의 제임스 만의 수력발전단지 건설, 그리고 76년 올림픽에 따른 각종 건설은 불경기에 뒤이어 몽레알에의 공공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공적인 용도의 건설 뿐 아니라, 사적인 용도의 건설도 건설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0-70년대에 몽레알에는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마천루가 들어섰으며, 기업의 현대화와 이동에 따른 신규 건물의 건축이 촉진되었고, 교외 지역의 각처에 쇼핑 센터의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건설에서와는 달리, 사적인 건축에서는 온타리오에 뒤지고 있다.

### (3) 3차산업

산업국들 전반에 나타나는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의 전환 현상은 후기 산업 사회를 특징지운다. 퀘벡에서는 1960년 이후 다른 나라나, 카나다의 다른 주들에 비해서 3차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퀘벡의 1,2차 산업의 취약성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었다.

서비스업에 의한 생산은 1961년에는 퀘벡 PIB의 57%였으나, 1981년에는 66%, 1983년에는 71%로 증가하며, 종사 인구도 1961년의 52%에서 1981년에는 63%로 증가했다.

3차 산업은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생산 분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적인 3차 산업 — 금융활동, 운송, 통신등 — 이 있는가 하면, 전도력이 없는 잔류 산업 — 상업, 공공관리, 서비스등 — 이 있다. 퀘벡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성장함으로써, 퀘벡의 3차 산업화는 경제 구조의 성숙이라기 보다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1960년 이후로 3차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컴퓨터와 빠른 통신 체계의 도입은 작업들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고,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 1) 금융업

금융업은 퀘벡의 경제구조에서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1960-70년대에 퀘벡의 PIB에 대한 금융업의 비율은 11-12.5% 내외이며, 금융업 총 종사 인구는 3.5%(1961)에서 4.7%(1981)로 증가한다. 퀘벡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금융계도 업종의 다양화와 기업 집중으로 인해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업체들의 본

사가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온타리오의 자본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서, 몽레알은 자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토론토에 빼앗기게 된다.

불어권의 은행은 퀘벡에서 영업점 수의 43%를 차지하지만, 카나다 전체 은행 자산의 6% 내지는 7%에 머무르고 있으며, 영어권 카나다의 대은행들인 '빅 파이브 Big Five'의 자산 점유율이 무려 84%에 이른다.

서민 금고는 퀘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 기관으로서, 불어권 퀘벡 주민들은 어린 이들까지, 모두 서민 금고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서민 금고는 데자르뎅(Desjardins) 운동 이후 퀘벡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1984년 이후에는 투자 기관의 성격까지 갖추었고, 자산 규모는 220억 달러를 넘는다.

증권 시장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몽레알의 증시는 토론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1960년에 카나다 유가 증권 매매의 33%를 차지했던 몽레알 증시는, 1980년에는 11%로 곤두박질한 반면에, 토론토의 비율은 62%에서 84%로 증가한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토론토의 카나다 금융 중심지로의 부상, 많은 미국 기업들의 토론토 증시 상장, 개인적인 투자자들과 영국계 투자기관들이 몽레알을 떠난 사실, 그리고 증시에 대한 불어권 주민들의 무관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불어권 주민들의 증시에 대한 태도 변화와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1984년의 몽레알의 유가 증권 매매 비율은 카나다 전체의 19%로 증가하고, 토론토의 비율은 76%로 감소했다. 또한 불어권에서도 레베스크 보비앵(Lévesque Beaubien)과 같은 투자 전문 대행업체들이 생겨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 주민의 수입 증가와, 교육 수준의 상승, 새로운 경영인 세대의 부상, 민족주의의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지원 등으로, 금융계에 대한 불어권의 진출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저축액은 거의 불어권 은행, 서민금고, 증시 등의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퀘벡 금융기관들의 활동은 주로 퀘벡에 한정되어 있고, 영어권 카나다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상업

퀘벡 경제에서 상업은 PIB의 11-12%, 노동 인구의 13-15%를 차지한다. 상업의 발달은 개인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이외에도, 자급자족 체제의 붕괴, 외부 구매 생활의 보편화, 그리고 신용 사회의 정착과 광고의 발전, 세련된 마케팅 전략 등에 기인한다.

1961년에는 55 곳에 불과했던 퀘벡의 쇼핑 센터는, 1973년에는 223개로 증가했으며, 상가는 밀집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1970년대에는 구매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연령, 성별에 따른 상가의 계층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상업에서도 기업 집중, 체인 형성이 이루어져, 퀘벡에서도 온타리오와 미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들이 생겨났고, 특히 식료품 분야에서 퀘벡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 3) 사회, 문화, 대인 서비스업

교육, 보건, 사회 사업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61년에는 이 분야 종사자가 8.7%였던 반면에, 1981년에는 14.2%로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무소나 엔지니어의 사무소들은 연간 6%의 비율로,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소는 4.6%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 자문 회사나 정보 서비스와 같은 신종 서비스 업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업종의 성장은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으로, 기업의 경영 문화가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건축가,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유업에서 팔목활만한 성장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다시 기업화, 집중화하였다. 그 결과 라블린(Lavalin)이나 SNC같은 자문회사들이 생겨났고, 불어권 자문 회사들은 정부의 후원과 오타와의 프렌чу 파워(French Power)에 힘입어, 국제적 차원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광고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우세한 실정이지만, 기업에 대한 제반 서비스 분야에서는 불어권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듯 제 3차 산업은 매우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1960년 이후로는 업종 구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집중화, 대형화하고 있고, 불어권 기업들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 V. 불어권 카나다의 예술

### 1. 케베의 문학

19세기 이전의 카나다 문학사는 정신이나 사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프랑스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초기 누벨 프랑스의 주요 작가들은 프랑스 출신들로서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고 토착민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문학은 '前-카나다' 문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어권 카나다 문학은 케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가는 전업 작가라기보다는 탐험가나 성직자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것 이 많다. 탐험가로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기술한 작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 1491-1557), 초기 누벨 프랑스 지역의 식민지 건설의 역사를 제공해주는 『누벨 프랑스 여행 Voyages en Nouvelle-France』의 작가면서 식민지 경영자였던 사뮈엘 드 샤플랭(Samuel de Champlain : 1570-1635)이 있다. 본격적인 작가로는 마르크 레카르보(Marc Lescarbot : 1570-1642)가 있는데, 그는 1606년에 아카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서사시 『야만족 아르미치크의 패배 La défaite des Sauvages Armouchiquois』와 식민지 건설을 담은 『누벨 프랑스의 역사』를 썼다. 여기에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노래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외 성직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는

『예수회 전문기 *Relations des Jesuites*』, 편지 형태로 기록된 『누벨 프랑스의 역사들』(프랑스와-자비에 드 샤를르보와(François-Xavier de Charlevoix) 사제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문학적인 완성도나 내용의 측면보다는 연대기적인 보고서의 가치가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귀한 영혼과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교양인(honnête homme)’이라 불릴 만한 인물들로서 프랑스 17세기 문학의 전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1) 19세기 문학계의 상황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영감을 지닌 문학이 나타나게 된 것은 1760년 영국인들이 카나다를 점령한 이후 거의 1세기가 지난 후부터이다. 이처럼 카나다 문학의 출현이 자연된 이유는 우선 지리적으로 광대한 지역에 국민들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 둘째, 1763년 파리 조약 이후 카나다에 남아 있는 불어권 주민은 농민이거나 문맹자였다는 사실, 셋째, 정치적으로 식민지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어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는 열악한 교육 환경 (최초의 대학인 라발 대학이 1852년에 세워졌다) 등을 들 수 있다.

최초의 문학적인 시도는 1778년 몽레알에 세워진 ‘라 가제뜨(La Gazette)’의 출현이다. 후에 불어의 권리를 옹호하는 ‘카나다인(Le Canadien)’이라는 신문이 나와서 (1806년) 영국 정부의 통치에 대항하는 지식인들의 기관지가 되었다. 1837년 반란이 있게 되자 영구 정부는 더햄 경(Lord Durham)을 파견하여 반란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때 더햄 경은 카나다인은 역사도 문학도 없는 민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프랑스와-자비에 가르노(François-Xavier Garneau: 1809-1866)가 『카나다 역사 Histoire du Canada』를 썼고 드니어 불어권 카나다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또한 작가들도 자신의 언어와 영국인들에 둘러싸인 삶의 조건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우리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들, 예를 들면, 영국 정부에 대한 反권력적인 속성,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정신적인 고향으로 생각하는 프랑스 왕정을 없애버린 공화주의에 대한 반발, 불어권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권위를 지니게 되는 카톨릭 교회의 영향,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 제도 등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전반적인 보수주의의 색채를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구체 제에 대한 향수, 누벨 프랑스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과거 지향성의 방향으로 불어권 지식인들의 자기 정체성 정신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세기 문학은 위에서 언급한 카나다 애국주의와 프랑스에 대한 충실햄 나타나게 되며, 불어권 카나다 문학이 현대화되기까지에는 20세기 중엽의 새로운 상황을 기다려야 했다.

1867이후 시기의 문학 상황은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전반적인 문화 현실 사이의 괴리로 특징지워진다. 예술가와 비평가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가치를 옹호했고 독자 대중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에 심취했다. 프랑스는 예술계

전반에서 여전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민족주의의 문학이 요구되고 또한 인정받고 있었다.

문학에 끼친 프랑스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중들이 183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 낭만주의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대작가들인 발작, 스텝달, 샤토브리앙의 소설들, 그리고 알랭상드르 뒤마나 유판느 쉬(Eugène Sue)의 역사소설, 환상소설을 열광적으로 지지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카나다 불어권의 문학 방향은 프랑스 문학이 거의 주도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이처럼 프랑스 문학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자,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불어권 카나다 문학에 독자적인 다른 방향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 노력은 두가지 흐름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낭만주의와 결합하여 과거에 있었던 민족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흐름이고,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의 필요에 따라 문학을 정의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적 움직임을 표방한 ‘魁貝 문학파’가 그것이다. 이런 큰 흐름 아래, 작가들의 개성에 따라 문학이 대중을 교화시키는 종교적인 관심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불어권 카나다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을 옹호하려는 지역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당시에는 아직 전업 작가는 없었고, 대부분의 작가는 시골 출신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가난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을 얻어야 했으므로 정치가들에게 의탁했다. 그들의 미학과 이데올로기가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로도 설명 가능하다.

## (2) 20세기 문학계의 상황

20세기 초의 문학계, 예술계는 19세기의 산물인 보수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유럽의 예술계를 뒤흔든 혁명적인 미학이 아직 불어권 카나다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예술 분야에서 수십년의 지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모시켜 왔으나 이러한 변화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가 과거와 현재,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민족적인 개성과 인류 보편성의 문제 등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시기였다는 점을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 토론의 주된 주제는 지역주의와 이국취향 사이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1905년에서 1925년 사이에 활발히 전개된 이 논쟁은 불어권 카나다 문학의 본질과 작가-출판사-독자의 기본적인 관련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지역주의자는 가능한 한 프랑스 문학관과 구별되는 카나다 문학, 즉 지역적인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문학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가는 ‘이곳’의 품성과 경치를 서술하고 지역 언어로 “내밀한 조국”을 노래 하며 퀘벡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었다. 반면 보편성을 중시하는 작가들은 가장 개인적인 관심사, 혹은 외국의 역사나 배경 속에서 영감의 근원을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태의 가치, 언어

의 아름다움이었으며 민족과 지방에 관계없이 읽힐 수 있는 시를 원했다. 30년까지는 전통적이고 애국적인 지역주의가 우세했지만, 그 이후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후자의 입장이었다.

불어권 카나다의 문학은 19세기 말에 유럽의 미학 발전과 비교해 볼 때, 형식이나 주제에 있어 상당히 지체되어 있었고 특히 사회 경제적인 맥락과는 단절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사실이나 이상화된 전원 생활의 환기에 만족하고 있을 뿐, 빠른 도시화, 산업화의 문제점들을 형상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우리가 뒤에 에舛 넬리간의 경우에서 보게 될 혁신의 움직임이 이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초에서 1930년에 이르는 시기의 퀘벡 문학은 큰 범주로 보면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19세기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비평은 보수적인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수단에 불과했고 시는 지역주의의 영향 아래 여전히 남아있고 소설도 역사 소설, 전원 소설의 명목으로 시대착오적인 문학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예술을 지탱하는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충분치 않았고 예술과 관련된 불어권 기구는 거의 개인이 보조, 유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몽레알 이외의 지역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거의 유일한 문화 기구였다. 1937년의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 카나다의 도서관 642 개 중, 퀘벡 지역의 도서관은 26개이며 그 중 17개가 영어권 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이 불어권 카나다의 열악했던 문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어권의 낮은 취학율과 함께, 문화적 지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차 대전중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영어권에서는 새로 성장한 부르조아 계층에 의해 문화가 주도되었다면, 불어권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여전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종교 교육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서점과 출판사의 주요 고객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종교적이고 학교 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는 출판사와는 달리 독립된 시장을 추구하는 출판사가 이 시기에 등장함으로써 문화가 궁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출판사들은 현대 프랑스 문학과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다른 완전히 ‘카나다적인’ 문학을 창조하고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학은 이 시기에는 에세이와 소설로 표현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일군의 작가들은 여전히 보수주의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많은 작가들은 더 자율적이고 새로운 경향을 요구하고 자기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현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예술은 두 가지 가치, 즉, ‘질서’와 ‘모험’이라는 두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질서는 19세기 중엽 이래의 전통을 의미하며, 모험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 예술에 부과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주제, 새로운 개념의 탐험을 의미한다.

2차 세계 대전과 함께, 퀘벡의 문학은 민족주의적인 보수주의, 옛날 질서의 옹호에서 새로운 모험을 향한 현대화의 길로 접어든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다른 문학 전통, 서로 다른 작가들과 독자 계층을 가지고 있어서 불어권과 영어권의 접촉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예술 분야의 현대화는 2차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거의 모든 분야로 파급된다. 현대화의 양상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형식의 거부,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 지평의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미비된 교육 체계, 빈약한 문화 기구, 예술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재 때문에 기대한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 시기는 현대성의 정신이 확고한 위치를 잡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주의 이념이 부각되고 종교에 의해 행사되던 절대적 권위는 무너져 내리고 일반 대중들도 기존의 가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평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의 견해는 1960년 이후 상당히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기는 문학의 차원에서 물질적 여건은 불리했지만, 이념이나 미학은 중요한 변화를 겪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최근의 예술계에서 눈에 띠는 사실은 작품의 생산과 배포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영어권과 불어권의 정부간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장 많은 수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문학과 예술에서 나아가 시민의 활동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으로 증가했다. 두번째, 문화 발전 개념이 변화했다. 그것은 시민은 소비자이고 생산자이며 참여자라는 문화적 존재로서 시민을 규정한다는 점, 문화는 사회 생활을 이루는 모든 행위들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축이라는 생각, 정부는 문화의 소극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발전의 주역이고 계획 수립자라는 사실 등 사고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 (3) 퀘벡의 문학

퀘벡의 문학은 북미 영어권 한 가운데에 불어로 자신의 삶과 감수성을 표현하는 민족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맺고 있다는 점에서 불어권 카나다 지역 특유의 활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학, 특히 시는 불어권 카나다 지역에서 불어라는 언어의 역사와 함께,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 문학사는 따라서 퀘벡 지역의 독특한 성격을 동화시키고자한 영어권 문학의 암도적인 공세에 대항하는 불어권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53년부터, 가스통 미롱(Gaston Miron)이 이끄는 문학 그룹 ‘헥사곤(Hexagone)’에 모여든 시인들은 시를 통해 퀘벡 독립을 외치기 시작한다. 또한 가스통 미롱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시집 『롬므 라빠이에 L'homme rapaillé』(1970)은 퀘벡적 이미지와 퀘벡적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10월 위기, 101법안,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퀘벡의 역사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시인이다.

그의 주도 아래에서 시는 퀘벡 문학을 선도하게 되었다. 50, 60년대는 뛰어난 시인들

이 배출되었고, 그 뒤, 70년대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퀘벡 문학은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

### 1) 소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불어권 지식인들은 소설을 정통 문학장르로 간주하길 꺼려하던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카톨릭 교회의 정신적 영향력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소설이 순진한 영혼을 사악한 길로 접어들게 만든다는 선입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이전에는 불어로 써어진 본격적인 카나다 소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의 성립 초기 시기에는 세가지 대표적인 경향이 있었다. 첫째는 영국지배 이전의 신프랑스를 서술의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둘째는 기상천외한 험구적 사건들이 난무하는 모험소설, 셋째는 ‘교화자’로서의 작가가 자신의 이념을 옹호하고자 쓴 교화소설이 그것이다. 특이한 것은, 초기 소설들이 전문 작가가 아닌, 문학적으로는 아마추어에 가까운 자유직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써여진 관계로, 대부분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3인칭 작가 시점을,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필립 오베르 드 가스페(Philippe Aubert de Gaspé: 1786-1871)의 작품으로 신프랑스 체제 하의 카나다를 진솔한 필치로 묘사한 『옛 카나다인 Les Anciens Canadiens』, 퀘벡 애국학파(Ecole Patriotique de Québec)의 핵심 멤버였던 앙트완느 제랭-라주아(Antoine Gérin-Lajoie: 1824-1882)의 작품으로 불어권 카나다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 교화소설 『개척자 장 리샤르 J. Richard le défricheur』 등 일련의 리샤르 시리즈 등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불어권 카나다의 소설은 꽃을 피기 시작한다. 1913년 루이 에몽(Louis Hémon: 1880-1913)이 퀘벡의 전통적 농촌 생활을 옹호, 찬양하는 『마리아 샤프들렌 Maria Chapdlaine』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은 이래로, 전문적인 작가가 쓴 소설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초반은 전통적인 농촌 생활 양식이 산업화와 더불어 크게 위협받던 시기이다. 그에 따라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과 새로운 생활 양식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작가들은 자신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동원,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이야기들을 선입관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사고틀을 재해석하려는 소설적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로돌프 지라르(Rodolphe Girard: 1879-1956)를 선두로 한 일군의 작가들이 당시까지 신비화된 채, 실체를 숨기고 있던 전통적 생활 양식에 의심을 품고 당대의 농촌 모습을 풍자하는 작품들을 남겼으며 결국은 보수주의에 배치되는 이념적 성향을 표출시킨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러한 비판적 작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알베르 라 베르주(Albert La Bergé: 1871-1960)같은 작가는 전통적 생활 양식을 옹호한 에몽의 『마리아 샤프들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진보적 가치관을 펴려한 작가였는데, 자비로 출판된 그의 첫번째 소설 『라 스쿠인 La Scouine』(1918)은 당대의 신

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그는 졸라 류의 프랑스 자연주의자들처럼 비열하고 잔혹하며 이기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을 사회와 연관시켜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의 맥을 잇는 장-샤를르 아르베(Jean-charles Harvey:1890-1967)의 대표작 『半문명인 Les Demi-Civilise』등의 작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에는 ‘카메라-만년필(camera-stylo)’의 기법을 도입, 현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인물들을 사회적, 지리적 맥락 속에 정확히 위치시키되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하여 독자의 뜻으로 남겨두는 ‘관찰 소설’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소설들은 그 특성상 TV, 영화, 라디오 드라마 등으로 용이하게 편집, 각색되어 불어권 카나다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의 작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가들은 주로 농촌 생활을 다룬 여류소설가 제르멘 게브르몽(Germaine Guèveremont :1893-1968), 그리고 주로 도시 생활을 다룬 역시 여류 가브리엘 로아(Gabrielle Roy: 1909-1983) 등이다. 특히 가브리엘 로아는 일부 평자들에 의해 불어권 카나다 작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에 의해 몽레알이 소설의 진정한 배경으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하류 시민 계층에서 추출된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상이 비로소 문학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 평가의 주된 내용이다.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불어권 카나다 소설은 유래없는 양적 팽창을 이룬다. 그에 따라 소설적 경향도 다양화된다. 『도시의 먼지 Poussière sur la ville:1953』의 작가 앙드레 랑쥬뱅(Andre Langevin:1927-)은 형이상학적이며 실존적인 주제를 꾸준히 천착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주로 설명되지 않는 ‘악’의 현존을 통해 20세기를 사는 인간들의 실존적 고통을 다루고자 한다. 반면 마리-클레르 블레(Marie-Claire Blais:1939-)나 레장 듀샤름므(Réjean Ducharme:1941-) 등의 소설가들은 신랄한 블랙유머를 구사,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반교회적 자유주의 정신은 1960년의 ‘조용한 혁명’ 이후 소설의 진정한 개화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룬다. 그 밖에 한가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카나다의 소설계에서 ‘여류’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몇몇 작가들 외에도 루키 베르시아니크(Louky Bersianik)등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일찌기 남성우위의 사회를 고발하고 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페미니스트 계열의 소설들을 대거 배출해 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70년대는 퀘벡 독립운동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反문화(contre-culture) 운동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反문화운동은 『바바 Vava』를 쓴 젊은 소설가 올란드 벨르마르(Yolande Villemaire)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시대의 젊은 작가들은 대체로 동시대적, 사해동포적인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불어권 카나다의 소설은, 영어권 카나다의 소설과 거의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그것의 방향이 불어권 대중의 정체성이든, 여성의 정체성이든,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몇 백년에 걸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고 하겠다.

## 2) 시

19세기의 불어권 카나다의 시는 낭만주의의 영감을 받은 시였다. 특히 교회와 관련된 영감을 통해 시인들은 조국이나 종교, 가정을 노래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누벨 프랑스 시대를 하나의 이상적인 시대적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의 불어권 카나다의 시인으로는 옥타브 크레마지(Octave Crémazie:1827-1879)를 들 수 있다. 그는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에 대한 사랑, 프랑스에 대한 향수, 선조들의 언어와 신앙에 대한 존중, 구체제에 대한 향수, 영국의 점령으로 인한 고통을 주제로 한 시를 지어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분위기를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루이 프레세트(Louis Fréchette:1839-1908)는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수동성과 유순함을 격렬히 비난하는 시를 지었다. 그는 크레마지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들을 발견하고 극적이고 웅장한 어조로 카나다의 위인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제로 삼았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魁べ 애국파(Ecole patriotique de Québec)’이다. 그들은 불어권 카나다인들을 서로 격려하여 “어떻게 미주 지역에서 프랑스 문화를 꽂피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불어권 공동체를 위해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시의 주요 주제는 1760년 영국의 점령으로 인해 손상받은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과 불어권의 문화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주된 흐름에 따라 그들도 낭만주의적인 영감에서 비롯된 시를 썼으며, 시대의 엘리트로서 불어권 카나다인의 대변인이 되기를 원했다.

이 시기는 낭만주의라는 프랑스 시의 모델이 여전히 형식의 독창성을 제약하고 파르나스와 상징주의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뿐만 아니라 미학적 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프레세트와 같은 19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시인들에게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 시기의 시인에게 개인은 종교적인, 혹은 국민적인 통합이라는 집단적인 투쟁의 필요성 때문에 후면으로 사라진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세기말에 변화를 갈망하는 새로운 시적 움직임이 ‘몽레알 문학파(Ecole littéraire de Montréal)’를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이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는 우선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조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난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에서 파르나스와 상징주의로의 변화가 우선 눈에 띄고 다음으로는 국가의 우선적인 이해 관계를 옹호하고 인류의 영혼을 노래하던 기존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이제는 인간과 사랑, 죽음의 시로 발전하게 된다.

불어권 카나다의 현대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주요 주제의 변화를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시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에밀 넬리간(Emile Nelligan:1879-1941)이나 엑토르 생-드니-가르노(Hector Saint-Denys-Garneau: 1912-1973)에서 시작되는 ‘내적 소외’의 시이고 두번째로는 알랭 그랑부아(Alain Grandbois:1900-1975), 리나 라니에(Rina Lasnier:1915-), 안느 에베르(Anne Hébert: 1916-) 등이 주도한 새로운 우주론적인 시, 마지막으로는 가스통 미롱(Gaston Miron: 1928-)처럼, 카나다가 아닌魁べ의 시를 주장하는 시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20세기 초의 불어권 카나다의 시의 방향은 1895년에 창립된 ‘몽레알 문학파(ecole

*litteraire de Montréal*)'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 불어권 카나다 시의 독자적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문화적인 영향력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은 예전과 동일하다. 이 그룹의 활동 중 가장 홍미로운 시기는 유럽의 파르나스파와 상징주의자의 활동을 본따 형식적인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1895-1900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기초의 일반적인 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현대의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의 시는 개인이 인류의 공동 운명 앞에서 고통 받는 비극적인 어조의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 시인의 이미지는 에밀 넬리간이라는 신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나다의 현대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시는 ‘내적인 소외’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와 함께 불어권 카나다의 시는 ‘종족에 대한 찬사, 영웅적인 과거와 전원의 생활을 찬양하는 비가’라는 시대착오적인 속성을 버리고 시인을 사로잡는 개인적인 시적 경험 — 넬리간의 경우에는 죽음, 어머니, 어린 시절, 꿈, 도시 등과 결부되어 있다 — 을 실존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 토로하게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시들이 여전히 불어권 카나다의 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제는 전원적인 낭만주의 풍이 아닌 미쇼, 샤르, 엘뤼아르, 프레베르에게서 영향받은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표현되었다. 19세기 말에 넬리간과 같은 새로운 전위적인 시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의 이면에는 이제 성직자와 보수주의자들이 더이상 모든 지적인 영역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회적 변화의 한 징조를 읽을 수 있다.

魁베의 시가 현대성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대의 문학에 대한 반성적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30년대에 문학의 혁신을 이룩한 분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위대한 시인들, 예를 들면, 생-드니-가르노, 리나 라니에, 알랭 그랑부아, 안느 애베르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카톨릭의 가치 때문에 지체되어 있는 사회에 반발하며 형식이나 어조에 현대적인 언어를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魁베의 시는 현대적으로 변모된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성격으로는 민족주의적인 문제 보다는 휴머니즘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고 문학을 정치나 이데올로기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공식적인 전통을 포기하고, 개인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프랑스 문학에 경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알랭 그랑부아는 세계와 삶에 대한 자신의 개방적인 정신을 가지고 죽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주론적인 차원을 형상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전 세대의 넬리간이나 가르노(Garneau)가 형상화했던 소외의 감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 세대에 이르러 불어권 카나다의 시는 비로소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라는 요소, 즉 자유의 문제가 주요 주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魁베이 문화적 자율성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을 진정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점령때문에 프랑스로부터 도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魁베에도 출판사가 증가, 이전과는 다른 활력과 다양성이 문학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변모는 예술의 분야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던 초현실

주의를 간신히 아카데미즘을 깨트리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었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회화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곧 모든 예술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움직임은 회화를 다루면서 하기로 한다).

시의 분야에 있어서, 퀘벡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시의 탄생은 1953년에 퀘벡의 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헥사곤(Hexagon)' 출판사를 만들었던 가스통 미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참여 시인으로서 퀘벡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퀘벡이라는 땅과 퀘벡 국민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는 소외 대신에 정체성을, 죽음의 고통 대신에 행복을, 부정 대신 긍정을 자기 시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착란적인 소외의 시인이 아니다. 그는 퀘벡인으로서 사랑, 여자, 자유라는 경험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보편적인 형제애와 유대를 노래했다. 그는 퀘벡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범세계적인 형제애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5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시기는 '시인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 발전한 시기이다. 시는 양의 측면에서나 독자들의 반응의 차원에서 소설을 능가했고 가장 재능있는 작가들이 등장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분야였다. 이 당시의 시는 새로움과 전통, 내적인 불안과 사회적 관심사라는 모순된 주제에 침윤되어 있어서 불어 퀘벡 카나다의 독창적인 성격이 처음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퀘벡의 회화

### (1) 전통 회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회화는 물질적으로 안정된 사회 계층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퀘벡에서 이런 사회 계층은 영국 정복 이후 두 세대가 지나서야 형성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배하에서는 별다른 발전을 이루할 수가 없었다. 퀘벡에서 회화는 1830년 이후에나 발전하게 된다.

퀘벡의 회화는 크게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통 회화는 프랑스 지배하에서의 특징과 영국 지배하에서의 특징이 그 제작 의도에 있어서나 기법에 있어서 각기 분명하게 구별된다.

프랑스 지배하의 퀘벡 회화는 예술이라기보다는 신대륙을 확실히 탐험하기 위한 지도제작술의 일환으로 발전했다. 즉, 사진이 없던 시절, 그림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회화는 새로운 땅의 지형을 묘사하거나, 프랑스인들의 시각에서 신비롭게 보이는 동식물의 모습, 기이하고 이국적인 풍습들, 역사적인 사건 등을 주된 소재로 하여 기록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의 회화가 아직까지 카나다의 정서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프랑스의 기호를 모방하고 그것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종교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번째 특징은 이 당시의 그림이 종교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퀘벡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다양한 회화가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화를 담당했던 계층이 주로 프랑스에서 온 성직자나 화가들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온 화가들은 또한 화가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루이 14세가 보낸 화가 뤽(Luc) 신부는 퀘벡에 약 2년동안 머물면서 교회 장식일을 했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재현하는 데 힘썼다. 이런 그림들은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주요 인사를 모델로 한 것이 많아서 교육적 가치와 기록적인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종교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카나다적인 그림 유형은 위험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봉납물로서의 종교화이다. 이 그림은 광포한 자연 앞에 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과 전능한 신에의 위탁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성숙된 종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시기부터 1840년까지로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종교화와 더불어 세속적 회화, 즉 초상화와 풍경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회화 전통은 프랑스 또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담당했는데, 초상화가들은 자신의 고객인 부르조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풍경화는 영국 군대가 퀘벡을 점령했을 무렵, 미술교육을 받은 영국군 장교들이 스캐치, 데생, 수채화를 통해 군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풍경화는 그 당시 자연을 사랑하는 영국적 전통에 따라 크게 유행하였으며, 주로 카나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눈(雪)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회화의 세번째 단계는 185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연방 성립 이전까지이다. 부르조아들이 초상화를 의뢰하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화가들은 종교화를 그리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초상화가 대표적인 회화 장르가 되었다. 이 시기의 유명한 화가들은 프랑스에 유학한 후 다비드(David)와 앵그르(Ingres) 화풍을 닮은 그림을 그렸는데, 움직임이나 색채보다는 엄밀한 윤곽과 세밀하고 정태적인 형태를 부각시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풍경화 전통은 데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동안 주춤했던 교회 미술은 1840년에 이르러 퀘벡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교회를 장식할 그림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화가가 부족하게 되자 종교화의 전통이 살아 있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로부터 화가들이 유입되었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어 카나다 화가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외국의 화가 중, 네델란드 출신의 코르네리우스 크리에코프(Cornelius Krieghoff:1815-1872)는 카나다 회화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고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카나다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1850년 경 몽레알에 들어와, 재치와 유우미가 깃든 작은 크기의 민속화에 열중했던 그는 인간을 환경 속에서 포착하려 했다. 그는 퀘벡의 겨울, 눈보라, 가을 풍경, 민중, 오두막에 사는 주민들, 설상화를 신은 인디언을 담은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사실주

의자인 그는 형태를 세분하고, 강렬하고 대조적인 색채를 사용하며, 인물의 포즈를 통해 움직임을 암시함으로써 사실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다.

연방 성립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를 네번째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는 사진의 발명에 따른 초상화의 쇠퇴로 특징지워진다. 퀘벡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금전 만능 풍조가 확산되었고 프랑스로의 유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화가들은 프랑스의 기법만 받아들였고 상상력과 독창성이 부족해서 훌륭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

이 시기는 민족적 자부심을 형상화한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흐름은 이전에는 교회와 결부된 민족주의였다면,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자유주의적인 풍토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대의 크리에코프의 화풍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퀘벡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는 스케치나 공공 건물 벽의 역사화로 표현되었다. 19세기 말에는 부르조아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미안에 의해 작품의 소재나 기법이 결정되었다.

20세기 초의 인상주의 운동은 퀘벡의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화가로는 윌리암 브루너(William Brymner), 모리스 쿨랑(Maurice Cullen :1866-1934), 제임스 윌슨 모리스(James Wilson Morrice:1865-1924) 등을 들 수 있는데, 쿨랑은 야경과 설경 등을 그림으로써 퀘벡의 회화를 새롭게 했고 파리에 살면서 규칙적으로 퀘벡을 방문했던 모리스는 비야르(Vuillard)의 점묘화법, 고갱(Gauguin)의 분할화법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퀘벡적 회화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부각 시킬 수 있다. 모리스 쿨랑과 크리에코프의 영향을 받은 오렐르 드 프와 쉬조르-코테(Aurele de Foy, Suzor-Cote:1869-1937)는 초기에는 시골 풍경을 그렸고, 나중에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내면파의 기법에 따라 독특한 신발을 신은 퀘벡 농부를 그리기도 했다. 이처럼 퀘벡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표현하는 그림이 늘어나고 자신의 동일성을 찾기 위한 탐색이 회화에서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화가로는 오지아스 르딕(Ozias Leduc :1864-1955)를 들 수 있다. 그는 프랑스 회화의 새로운 흐름들과는 관계없이 교회 장식가로서의 직분에 충실했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의 서정을 나타난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은 일상적 정경을 담은 작품에서는 샤르댕(Chardin) 풍의 내밀한 고요가, 종교적 작품에서는 신비적 내용과 분활주의적 접근 방식, 그리고 나비스(Nabis)파를 연상케 하는 공간에 대한 평면(plan)의 우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오지아스 르딕 이후의 퀘벡 화가들은 퀘벡을 지배하고 있던 모방 정신에 반항하고 진정한 새로움에 이르려면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옛 것과 현대적인 것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퀘벡 회화의 신기원이 비롯된다.

## (2) 현대 회화

문학과 예술의 현대화 움직임은 1930년대 중에 시작되어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좀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대 예술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보수적인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형태와 이념을 비판하고 폐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세계적인 주요 흐름인 예술적인 혹은 지적인 아방 가르드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차 대전 이후, 구질서에서 모험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현대성의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르는 회화이다. 그러나 193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위기의 상황을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통주의와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카나다의 풍경화를 그리는 풍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1930년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풍경화는 전원과 그곳의 생활을 그리는 퀘벡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화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도 훨씬 더 조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몇몇 예술가들 사이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마르크 오렐 포트랭 (Marc-Aurèle Fortin) 같은 화가는 경치를 그리면서도 그 경치에 아주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강렬한 색채와 선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새롭게 등장한 풍경, 즉 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회화의 새로운 소재로 도시가 등장한 것은 현대 생활에 회화를 접근시킴으로써 회화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에서 유행되고 있던 비구상의 추상화가 퀘벡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40년대 후반을 기다려야 하지만, 30년대의 미술에도 “인간 경험의 보편성, 주관적 표현의 절대적 우월성, 형식 실험의 권리, 현대의 국제적인 조류에의 개방성의 명목으로 민족주의적인 주제의 해제모니에 대항해 싸우는” “조형 예술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인식이 구체적인 예술로 표현된 것은 영어권 화가에 의해서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은 영어권이 불어권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의 여러 경향과 이념들, 즉 예술의 사회적 의미, 미국의 민주주의, 예술가의 사회적, 정치적 관련성의 문제들에 영어권 예술가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퀘벡의 새로운 회화는 1930년 이후부터 지방색을 거부하고 변모하여 1945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몽레알이 카나다 현대 회화의 중심지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국제적인 흐름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는 경향과 대중적인 무관심 혹은 물이해로 특징지워진다. 반순옹주의를 표방하는 두개의 주요 유파가 생겨나 서로 대립함으로써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해라는 점에서 1948년은 카나다 회화사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펠랑(Pellan)을 중심으로 한 ‘시각의 프리즘 (Prisme d'yeux)’ 유파로서 회화는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미학적 제약도 없는 개인적인 자유의 전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는 유파이다. 이 그룹은 지도자나 강령, 또 회화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오로지 ‘각자의 회화적 실험’만을 강조하면서 ‘삶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된 여러 운동들의 운동’을 표방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추구할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펠랑은 무대장식, 의상, 분장, 실내 벽그림, 공공 건물의 벽화, 유리그림

등 주변의 모든 것을 회화의 무대로 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미술의 질료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그의 그림 속에서는 추상 예술의 형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상, 유머, 신비가 화면 위로 내면적이고도 몽환적인 세계를 낳는데 글라뒤(A. Gladu)와 필론(F. Pilon)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민족 예술과 지역 예술을 종합할 수 있었던 최초의 북아메리카 출신 예술가이다”.

다른 하나의 유파는 보르뒤아스(Borduas)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 거부 (Refus global)’의 유파로서 예술은 직접적인 무의식의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르뒤아스는 비구상을 지향하는 우상파괴적인 깊은 화가들과 활발한 교분을 맺는 동시에 오토마티스트들과 더불어 이성과 전통의 무게로부터 해방된 회화를 주장했다. 오토마티즘 시기에 제작된 그의 작품들에서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색채를 통해 한 풍요로운 인간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충동적으로 방류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두 유파의 다양한 선언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자발성과 실험 정신의 강조, 예술을 그 자체의 존재 이외의 것에 종속시키는 모든 것, 특히 아카데미즘에 대한 거부가 그것이다.

이 두 그룹은 곧 사라져 버리지만, 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예술적 자양분은 그 이후 카나다의 비구상 회화가 둘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면서, 회화 분야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그 하나가 현실에 형태들을 새롭게 덧붙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비구상 회화의 승리로 나타난다. 그 흐름에는 자신의 감정과 행위, 상상력·무의식의 가장 즉각적인 움직임을 화폭에 표현하려는, 추상적 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액션 페인팅이 있다.

또 하나의 추상 예술은 1955년부터 액션 페인팅의 자동성이 표현적인 제약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형태와 내재적 조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었다. 이 경향은 분석적이며 기하학적인 추상화의 영향을 받은 객관적인 예술을 창조하고자 한 조형예술가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선, 면, 색채, 구조, 리듬,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1950년대 후반의 몽레알 회화를 주도했다.

1960년대는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후 세대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비구상 예술에 대한 이해 지평이 확장되었다. 이 시기는 특히 옵 아트(Op art)의 영향을 받아 신조형주의가 널리 유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 즉각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흐름이나 풍경화, 초상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구상 예술 또한 조형적이고 스타일을 추구하는 추상 예술의 영향을 받아 주제를 다루는 방법을 변화시켰는데, 그러한 변화에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 또한 주제에 있어서도 전쟁과 같은 심각한 주제를 해학적이고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등 사회적인 주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풍경화의 경우,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현대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르크-오렐르 포르탱(Marc-Aurèle Fortin: 1888-1970)은 1969년에 “나는 유럽의 화파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카나다 고유의 풍경화파를 창시하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전파는 다른 독특한 관점에서 풍성하고 환각적인 나무들을 그리고 강렬한 색채로 채색했으며 모티프를 단순화하고 구도를 배제하고 평면을 강조하는 등, 구상 미술을 쇄신했다.

인물화의 경우, 모델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기보다는 모델의 성격을 추출해내려고 애쓰거나, 강렬한 내면적 깊이를 초상화 속에 표현하려 하거나 아니면, 유화와 파스텔화로 중세의 세밀화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다양한 방향이 열려 있었다. 또한 기법의 변화와 외국의 회화의 영향은 카나다 회화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많은 화가들은 추상화를 부르조아의 퇴폐적인 예술이라고 비판하고 이전의 예술과 현실참여적인 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종합된 예술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흐름은 1970년 이후, 조형 예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70년대에 이르자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예술관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예술은 각 장르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회화와 조각, 회화와 연극, 회화와 환경 등이 서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인 장-마르크 데장(Jean-Marc Desgent)과 화가인 루 벨랑(Luc Béland)은 유화와 시를 맞붙여 놓은 일부작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양식상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사실 캐베 회화만의 특징은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캐베의 독창적이고 자기 동일성의 의식과 관련된 문화의 생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개방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것은 캐베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 즉 모자이크 문화라는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몽레알의 젊은 화가들이 새로운 사고와 실험의 진원지인 뉴욕을 향해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캐베 사람들은, 한 사회의 발전에 있어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캐베에서 문화적 차원, 나아가 근본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화가들이었다.

### 3. 캐베의 음악

#### (1) 태동기

캐베의 음악은 크게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식인들에 의한 정규음악(La musique savante)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음악(La musique populaire)이다. 대중음악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정규음악의 경우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하여 비교적 출발이 늦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식민지배 하에 있을 동안 캐베은 다른 시각 예술 분야와는 달리 대륙으로부터 음악을 전수받을 필요성을 그리 절실히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캐베 음악의 발달은 다른 북미 지역에 비해 극히 빈약했다. 누벨 프랑스에서는 음악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고 음악이라고 해야, 일정한 음악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음악이 거의 전부였다.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던 당시의 음악은 종교음악과 민속가요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왔지만, 성직자들은 세속 음악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음악의 발달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교회음악의 양상은 모든 성직자들이 극도로 딱딱한 형태의 음악만을 받아들

였고, 그것도 그 음악들이 원주민들에게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받아들여지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의해 배척되던 세속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지배 이후이다.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19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외국의 가수와 연주가들이 퀘벡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819년에 최초의 관현악 단인 ‘퀘벡 음악 악단(Société musicale de Québec)’이 조직되었고, 1837년에는 ‘몬트리올 노래 아카데미(Montreal Singing Academy)’가 문을 열었다. 이 당시에는 오페라 공연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고액에 초빙된 음악가들의 연주회가 자주 열리게 된다. 두드러진 악단으로는 1871부터 1903까지 지방을 순회하며 수백 차례의 연주회를 가졌던 아르튀르 라비뉴(Arthur Lavigne)가 이끄는 ‘하이든 7중주단(Septuor Haydn)’과 기욤 쿠토르(Guillaume Couture)가 지휘하는 ‘몽레알 필하모닉 악단(Societe philharmonique de Montréal: 1877-1899)’이 있다. 이들은 퀘벡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들에 의해 퀘벡의 음악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 (2) 20세기 초의 상황

퀘벡의 음악이 현재의 입지를 확립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정규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기관들의 등장 역시 거의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후에 ‘퀘벡 심포니 악단(Société symphonique de Québec)’이 된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Orchestre symphonique de Québec)’가 1903년에 조직되었고, ‘퀘벡 음악 클럽(Club Musical de Québec)’은 1891년부터 연주회를 가졌었다.

1934년에 조직된 ‘몽레알 심포니 오케스트라(Orchestre symphonique de Montréal)’는 퀘벡의 작곡가와 연주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서, 스위스의 샤를르 뒤티트(Charles Dutoit)가 지휘봉을 잡으면서부터 세계의 유수한 오케스트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이 되었다.

또한 ‘캐나다 청년 음악 연맹(Jeunesses musicales du Canada)’은, 1949년부터 오르포르(Orford) 산에서, 유망한 젊은 음악가들을 한데 모아, ‘여름음악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르사쥬가 1961년에 신설한 ‘문화사업부’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에도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음악교육기관도 20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초의 사설교육기관은 에밀 라 로歇(Emile La Rochelle)이 1924년에 퀘벡에 세운 합창교습소였다. 여기에서 배출된 음악가로는 라울 조뱅(Raoul Jobin)과 레오폴드 시모노(Léopold Simoneau)등이 있다. 1905년에는 몽레알에 ‘음악과 극예술 학교(Conservatoire national de musique)’가 설립되었다가 나중에 몽레알대학에 흡수되었다. 1920년에는 ‘뱅상-댕디 학교(L'Ecole Vincent-d'Indy)’가 설립되어 역시 나중에 몽레알대학과 세르브록크(Sherbrooke)대학에 흡수된다. 맥길(McGill)대학은 1920년에, 라발대학은 1922년에 음악대학을 설치했고 1942년에는 퀘벡에 ‘음악과 극예술 학교’가 설립된다.

클로드 샹파뉴(Claude Champagne:1891-1965)는 파리에서 공부한 뒤 퀘벡에 돌아와 음악교육에 힘썼던 인물이다. 많은 곡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그의 '가스페지(센-로랑 강과 샤를레르 만 사이의 반도) 심포니(Symphonie gaspésienne:1945)'는 퀘벡파, 퀘벡음악의 민속적·종교적 바탕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낭만주의자인 그는 화성과 리듬을 멜로디에 종속시켰고, 그의 마지막 작품들에서는 12음 기법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는 현재 퀘벡음악의 거장을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 유명한 음악가로는 샤를르 보두앵(Charles Beaudoin), 아칠 포르티에(Achile Fortier), 알렉시스 콩탕(Alexis Contant), 조르쥬-에밀 탕게(Georges-Emile Tanguay)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소박한 멜로디의 곡들을 썼다. 이들은 현대음악에 식상한 오늘날의 청중들에 게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이후의 세대로는 신중하고 우아한 곡을 쓴 앙리 가농(Henri Gagnon:1887-1961), 다분히 현대적인 곡을 썼던 로돌프 마티외(Rodolphe Mathieu:1894-1962)등이 있다.

### (3) 현대음악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악 문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음악회까지 가야했던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녹음테이프, 텔레비전, 라디오가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면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감상자들이 음악을 찾아다녀야 했던 반면에 이제는 음악이 청중을 찾아다니게 된 것이다. 이 시기는 또 동서양의 새로운 음악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 왔던 시기였다. 새로운 감수성에 접하게 된 젊은 음악가들은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며, 전자음악, 또는 전자-음향음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난다.

60년대에는, 그때까지 불모지로 남아 있던 지역에까지 음악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 리무스키(Rimouski), 트로와-리비에르(Trois-Rivieres), 쉬쿠티미(Chicoutimi)에 국립음악학교(Conservatoire)의 분교가 설립되었고, 트로와-리비에르에는 교향악단까지 설립된다.

1956년에는 세르쥐 가랑(Serge Garant)이 주동이 되어 '우리 시대의 음악 콘서트(Concerts de musique de notre temps)'가 개최된다. 1961년, 피에르 메르퀴르는 '현대 음악의 국제 주간(Semaine internationale de musique actuelle)'을 기획하여 스톡하우젠(Stockhausen), 존 케이지(John Cage), 이아니스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 세르쥐 가랑 등의 곡을 선보인다. 1966년에는 세르쥐 가랑, 트랑블레(G.Tremblay), 펠르티에(W. Pelletier), 켄더지(M.Kendergi), 파피노-쿠튀르가 모여 '퀘벡 현대 음악단(Société de musique contemporaine du Québec)'을 조직한다.

한편, 몽레알의 각 학교들은 60년대 이후 새로운 작곡법을 지도할 교수진을 갖추게 되었다. 몽레알대학에서는 가랑이, 맥길대학에서는 브루스 마더(Bruce Mather)와 이스트반 안홀트(Istvan Anhalt)가, 국립 음악 학교에서는 트랑블레와 폐팽이 교육을 맡았다.

그외에도 퀘벡의 문화적 얼굴을 바꾸어놓은 인물로 평가되는 세르쥐 가랑(1929-1986)

은, 단음절의 보컬과 피아노의 주석이 교차되는, 생-드니 가르노(Saint-Denys Garneau)의 시에 꼭을 붙인 ‘새장(Cage d'oiseau)’, 연속된 단락(séquence)의 실행 순서가 변화가 가능한 ‘문장(Phrases I:1967)’, 지휘자가 두 명인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는 ‘문장(Phrases II)’ 등을 작곡했다.

또다른 개척자인 피에르 메르퀴르(1927-1966)는 퀘벡의 문학작품들을 활용(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아마도 민족적 동질성을 위해, 퀘벡음악은 사람의 목소리를 즐겨 등장시킨다)하여 꼭을 썼다. 그는 기악과 전자-음향음악의 결합을 시도했는가 하면, 음악을 조형예술에 통합하려고 했다.

트랑블레는 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었다. 그의 작품 중 ‘케코바(Kekoba:1965)’는 타악기, 전자 건반 악기(Ondes Martenot), 세 목소리를 위해 작곡된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晚課(Les Vepres de la Vierge)(1987)는 종교음악이 뛰어난 전위음악의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프랑소아 모렐(Francois Morel)은 보르뒤아스(Borduas)의 유화를 바탕으로 꼭을 썼고, 미술린 쿨롱브 생-마르쿠(Micheline Coulombe Saint-Marcoux)는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페팽은 전자음악 또는 전자-음향음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앙드레 프레보(Andre Prevost), 클로드 비비에(Claude Vivier), 잭크 에튀(Jacques Hétu) 같은 뛰어난 작곡가들이 있다. 한편 청중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최신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거론할 만한 연주가들로는, 피아니스트인 젤르 마니(Gilles Manny), 플룻 연주자인 리즈 다우스트(Lise Daoust), 그리고 성악가인 지네트 뒤플레시스(Ginette Duplessis), 마리-다니엘 파랑(Marie-Danielle Parent), 폴린느 바이양쿠르(Pauline Vaillancourt) 등이 있다.

이 시기에 등장했던 두드러진 음악으로는 재즈와, 블루스, 록 음악등을 들 수 있다. 이 음악들이 퀘벡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된 데는 퀘벡의 아메리카적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빅 보겔(Vic Vogel)은 “몽레알은 토론토, 뉴욕, 로스엔젤레스보다 더 많은 뛰어난 블루스 연주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태생의 색소폰 연주자인 리 가농(Lee Gagnon)은 1965년 경 ‘빅 밴드(Big Band)’의 멤버로서 이름을 떨쳤다. 또한 작곡가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존 워렌(John Warren)은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여러 차례 유럽 연주 여행을 했다. 최근의 뛰어난 연주자로는 다니엘 카이르(Daniel Cyr)와 기타리스트인 장-드닐 벨랑제(Jean-Denil Bélanger)가 있다.

한편, 재즈는 프랑소와 모렐 같은 현대작곡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재즈의 자유분방한 즉흥연주는 퀘벡에서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1958년 경, 패트릭 스트라램(Patrick Straram)이 “퀘벡과 재즈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퀘벡의 외침과 네그리튀드(negritude)의 외침이 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르 비종 라비(Le Bison ravi: 강탈당한 들소라는뜻으로 보리스 비앙 Boris Vian 의 철자를 바꿔 만든 단어 anagramme)는 반체제운동가로서 포크-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최근 10년 동안, 몽레알은 다양한 지역에 뿌리를 둔 갖가지 음악들의 영향을 잘 활용

혔다. 카렌 영(Karen Young), 미셸 도나토(Michel Donato), 올리버 조네스(Oliver Jones), 오스카 피터슨(Oscar Peterson), 에발 마니가트(Eval Manigat:아이티 출신), 르 딕시 밴드(le Dixie Band)는 몽레알의 색채가 가미된 라틴-앙티유 리듬을 가지고 재즈 연주를 한다. 몽레알에서는 ‘국제 재즈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 jazz)’이 열리고 있으며, 재즈만을 전문으로 녹음하는 회사도 있다.

1963년, 몽레알에서 ‘魁벡 재즈 4중주단(Le Quatuor de jazz du Québec:1963-1974)’이 조직되었고, 그 뒤를 ‘실험 음악단(L’Atelier de musique expérimentale:1973-1975)과 ‘몽레알 즉흥 음악단(L’Ensemble de musique improvisée de Montréal)’이 잇는다.

1967년,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발페르 부드로(Walter Boudreau)와 시인 라울 뒤게(Raoul Duguay)를 중심으로, 재즈 연주가들과 작가, 화가들이 모여 조직된 앵포니(I’Infonie)는 형태적 음악(musique formelle)과 유기적 음악 사이에, 또는 순수음악과 팝 음악 사이에 가교를 놓고자 했다. 라울 뒤게는 화가 보르뒤아스(Borduas)의 ‘총체적 거부(Refus global)’의 정신을 계승한 선언문을 썼다.

1975년 경에는, 록 그룹 아르모니움(Harmonium)이 고전음악, 라틴-아메리카 리듬, 그리고 재즈의 융합을 시도했고, 유제브(Uzeb), 원더 브래스(Wondeur Brass), 오펜바하(Offenbach), 코르보(Corbeau), 빌 에마르 블루스 밴드(Ville Emard Blues Band)가 그 뒤를 따른다. 젊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드니 애베르(Denis Hébert)는 구성(construction)과 즉흥연주(improvisation)가 균형을 이루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그룹 보이보드(Voivod)는 헤비 메탈(heavy metal)쪽으로 향한다. 1988년에는 몽레알에서 ‘불어권 록 국제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tional de rock francophone)’이 열렸는데, 몽레알 출신의 한 그룹인 빌랭 펭구엥(Vilain Pingouin은 ‘101법안의 영웅’이란 칭호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魁벡에서 음악은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누벨 프랑스 악단(Ensemble Nouvelle-France)’이 전통악기를 사용하여魁벡의 옛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표현 방식들을 통합한 복합매체적 공연(시청각적인 것, 전기음향악적 음악, 춤, 슬라이드 영사 등)이 선보이기도 한다.

#### (4)魁벡의 가요

魁벡의 구비전승 가요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요의 발달 역시 영국의 정복 이후, 특히 19세기에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정치적 격변으로 말미암아 언어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불어났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가사(parole)에 대한魁벡의 기호는 19세기에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적 자기동일성의 유품가는 요소인 언어에 의존한 이러한 구비전승은 문자화된 전통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魁벡에서는, 이미 알려진 줄거리로 청중들을 사로잡는 이야기꾼과, 30여 명의 청중을 노래 속에 끌어들여 응답해 하는 여자 소리꾼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보급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

魁벡은 가요에 의해 프랑스로부터 벗어나, 소박하고 순수한 대중적 의사 표현에 기반

을 둔 문화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魁北의 가요는 아메리카적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적인 메시지 위주의 가요로부터 벗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앵글로-색슨 음악에 쉽사리 적응하게 되었다.

### 1) 민속가요(Chanson Folklorique)

식민 초기에는 프랑스의 곳곳으로부터 수많은(5만 여) 가요가 들어왔다. 이 노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직업과 지역에 따라 그 내용과 리듬이 바뀌었는데, 유명한 '맑은 샘가에서(À la claire fontaine)'의 경우 그 이본의 숫자가 500여 곡에 이른다. 한편魁北인들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가요들을 변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기도 했다.

당시의 악기로는 봉바르드(bombarde: 쇠를 구부려 만든 초보적인 악기로, 입에 물고 불어서 연주한다), 하모니카, 못쓰게 된 숟가락 등을 들 수 있다. 또 바이올린은 반드시 리듬이 필요한 노래의 경우 경쾌한 박자를 얻어내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가수로 하여금 숨을 고르고 가사에 대한 기억을 추스를 수 있게 해주었던 후렴구였다.

1865년, 에른스트 가농(Ernest Gagnon)은 '카나다 민속가요 100선'을 출간했다. 그는 책 끝에 붙인 글에서 이 가요들은 중세의 교회음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대중적 멜로디들은 그레고리언 성가로부터 특징을 빌어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민속가요들은 20세기의 질레스 비뇨(Gilles Vigneault), 짤 피체(Paul Picche), 라울 뒤게(Raoul Duguay) 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속가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탁에서의 노래, 권주가, 연가, 축혼가, 나그네의 노래, 병사의 노래 등이 있다. 또,魁北에서는 밤모임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만큼, 주창자에 뒤이어 청중이 후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풀이 하는 '화답가(chanson à répondre)'가 자주 불리워졌다. 그리고 청중의 참여를 요구하는 '술래 노래(chanson casse-cou)'가 있다.

이러한 민속가요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60년대 들어서는, 스스로의 뿌리를 찾으려는 욕구가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민속가요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음악 연구가들과 학자들은 이 문화적 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해 노력 중이다.

### 2) 대중가요

라디오, 전축, 영화, 연극이 널리 보급된 이후로 대중음악은 항상 열정적인 젊은 세대와 함께해 왔다. 1960년대에 들어 베이비 봄세대들이 청소년기를 맞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전적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대중음악은 이를 '젊은 세대의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이자 그들만의 표현과 정체성 형성의 수단이 된 것이다.

여기서는 원칙적인 세 가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록 음악이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전파되어 온 것으로서 수많은 변형들이

있어왔지만 언제나 모든 시기의 저변에 깔려있었다. 라디오를 통해 도처에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레코드판과 비디오 테이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이 록 음악은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두번째 경향은 서정적인 발라드이다. 캐바레에서 나온 이 발라드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나이든 세대들에게도 폭넓게 유행했다. 이 음악은 당시에 유행하던 45회전 레코드에 의해 보급되었고 막 AM 라디오를 대체하기 시작했던 FM 라디오도 이 음악의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세번째 경향은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둔 싱어송 라이터들에 의해 만들어진 퀘벡 가요이다. 퀘벡 가요는 두차례에 걸쳐 발전을 하게되는데 첫번째 시기는 60년대 초였다. 60년대에 이르러 샹소니에(chansonnier)라 불리우는 그룹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이차 대전 이후의 프랑스의 페레(Ferré), 브라상스(Brassens), 브렐(Brel), 카나다 가수인 펠릭스 르클레르(Félix Leclerc)등의 영향을 받아 보조스(les Bozos) 그룹을 결성하게 된다. 그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샹송카페(boxe à chanson)에 의해 크게 각광을 받은 보조스 그룹의 특징은, 악기로는 기타나 피아노 하나만을 사용하면서 퀘벡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서정성이 풍부한 가사로 노래했다는 점이다. 민속가요의 전통과 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들의 노래는 종종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조용한 혁명의 문화적 특징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된다. 민족적 동질성이이라는 심각한 주제도 가수들이 퀘벡의 청중을 사로잡는 테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프랑스를 포함한 여타 불어권의 청중들이 이들의 노랫말과 음악의 조화에 찬탄을 보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퀘벡을 자신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의 선구자인 펠릭스 르클레르(Félix Leclerc:1914-1988)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가수였으며 스스로 초현실주의자와 반체제운동가를 자처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 속에서 기타를 치며 힘찬 베이스로 노래했다. 반항적 정신의 소유자인 그는 자연, 사랑, 학제적 뿌리를 둔 전통적, 시적 가요에서 점차 사회참여적 가요로 옮아간다. 이러한 추이를 요약한 음반이 바로 ‘화가난 종달새(L'alouette en colère)’이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보조스 그룹의 이름도 그의 노래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르끌레르에 이어 이 세대를 끌어갔던 또다른 가수인 질레스 비뇨(Gilles Vigneault)는 ‘고요한 혁명’의 가수를 자처했다. 그는 노래를 통해 퀘벡 사회의 뿌리깊은 불안을 표현했다. 수학과 문학 교수이자 가수였던 그는 6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샹송카페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 퀘벡 밖에서도 연주여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후에 그는 1980년의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했지만 국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3년 동안 청중 앞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 유럽 전역에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샹소니에 그룹의 전성기로 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끝을 맷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퀘벡가요의 제 2 발전기라 할 수 있다.

68년도 후반기부터 퀘벡에 로베르 샤를르보와(Robert Charlebois)를 위시한 새로운 가수들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당시의 음악은 크게 보아 록 음악과 반 캐

리포니아 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당시의 가수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훨씬 더 도시적인 주제를 노래하게 된다. 새로운 표현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음향이 등장하였고, 이전 세대의 기타와 피아노는 일렉트릭 기타와 신세사이저로 대체되었다. 이들이 노래 하던 주제는 주로 새로운 감수성과 현대 소비사회의 현실 등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때 유행하던 ‘펑크’음악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당시 가요의 현상은 여성의 활발한 가요계 참여, 남녀 역할구분의 소멸, 즉 연주가, 작곡가, 작사가의 남녀 구분의 소멸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한편, 메시지 위주의 가요들과는 별도로 대중적인 가수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의해 퀘벡가요는 대중적 현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 퀘벡의 음악에서도 두드러진 하나의 경향보다는 다양한 여러 경향들이 난립하게 된다.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잃어가면서 퀘벡의 가요는 갈수록 프랑스의 샹송과 특히 미국 음악에 접근해갔다.

가요를 통해 나타나는 테마들은 시나 문학, 회화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퀘벡’이다. 카나다의 웅대한 자연환경과, 생활공간, 특이한 지명 등이 묘사되며 또 강, 바람, 눈이 노래되기도 한다. ‘조용한 혁명’이 발아한 도시들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생-로랑 길을 내려가며(En descendant la rue Saint-Laurent)’, ‘장(Jean)’, ‘마닉(La Manic)’, ‘상귀네 거리(La rue Sanguinet)’, ‘나는 봉례알로 돌아오리(Je reviendrai à Montréal)’는 빼놓을 수 없는 가요들이다. 사람들이 이 사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은 ‘동포들(Les gens du pays)’, 그리고 낡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여성들’ 역시 중요한 테마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퀘벡의 가요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고독, 사랑, 우정, 해학, 삶의 기쁨)을 표현했다.

60년대 말, 퀘벡의 가수들은 ‘반체제운동가’였지만, 이제는 언어의 문제에 결연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소수 민족으로서 퀘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펠릭스 르클레르(Félix Leclerc)나, 레이몽 레베스크(Raymond Lévesque)와 같은 옛 가수들은 물론 폴린느 쥘리앙(Pauline Julien) 같은 현역 가수들에게서도 발견된다.

#### 4. 퀘벡의 연극 및 영화

##### (1) 연극

연극은 도시성에 입각한 예술 장르이다. 그러나, 1940년까지 퀘벡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지방에서 갓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윤리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는 연극을 배척했다. 그리하여 연극의 발달 역시 다른 예술 장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퀘벡에서 수많은 연극인, 희극배우, 연출가, 무대장식가들을 배출한 ‘생-로랑의 동료들(Compagnons du Saint-Laurent)’이란 모임을 만든 사람은 성직자였던 르고(Legault) 신부였다. ‘생-로랑의 동료들’에 의해 퀘벡의 현대 연극은 비로소 그 발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극단이 주로 공연한 것은 프랑스의 걸작들이었고, 관객은 대부분 학생, 지식인, 전문직 업인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퀘벡의 연극은 영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잠시 연극의 황금기를 구사하기도 했다.

사실 연극의 발달이 현대에 들어와 발달하기 시작한 영화의 영향으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퀘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벌써 영화에의 취향이, 당시까지 존 해르(John Hare)가 '황금기'라 부르던 연극의 전성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시작했다. 유성영화 시대가 닥치자 연극의 위치는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중적인 몇몇 연극의 형태는 1930년대 이후에도 살아남아 나름대로 개화를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멜로드라마, 통속희극, 익살극(Comédie bouffe), 뮤직-홀(Music-hall), 익살극(Burlesque) 등이다.

이러한 대중극들 중에서 당시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익살극이었다. 익살극은 1914년 이전부터 순회 미국극단에 의해 소개되었기 때문에 1920년경까지는 영어로 공연이 되었다. 그후 올리비에 귀몽(Olivier Guimond)이 이끄는 티-준느(Ti-Zoune)극단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공연을 시작했고 곧이어 불어로만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후로 이 장르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특히 고전 작품들을 공연하기 위해 1900년에 건립됐던 몽레알 국립극장이 이 익살극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고, 몽레알 국립극장은 익살극과 그 아류극들을 위한 전용극장이 되다시피했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즉 흥성과 유머, 노래와 춤, 원색적인 속어들의 사용이 뒤섞여 있는 연극인 익살극이 지식인 계층으로부터는 경멸을 받았고 지도층으로부터는 그 도덕성을 의심받았지만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퀘벡 전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장 그리말디(Jean Grimaldi)와 그의 극단이 매년 시행한 정기 순회공연도 이 성공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또 멜로드라마가 있다. 1921년에 최초의 공연을 시작으로해서 '어린 순교자 오로르(Aurore la petite enfant martyre)'에 이르기까지 멜로드라마는 그야말로 예기치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멜로드라마와 익살극 그리고 이들의 아류들은 그 양으로만 보더라도 이 시기의 퀘벡 연극의 본질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5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 퀘벡에서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극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48년에, 뛰어난 희극배우이기도 한 그라티엔 젤리나스(Gratien Gelinas)는 퀘벡 최초의 극작품 '티트-꼬꼬(Tit-Coq)'를 공연했다. 서민적인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진짜 카나다인'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젤리나스는 '꼬메디 카나디엔느(Comédie canadienne)'를 이끌면서 마르셀 듀베(Marcel Dubé)와 잭크 페롱(Jacques Ferron)의 작품을 공연했다.

극단 '리도 베르(Rideau Vert)'는 프랑스의 통속극에서 에스파냐의 고전들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공연했다. 사르트르의 '닫힌 방(Huis clos)'을 공연했는가 하면, 프랑소와즈 로랑제(Francoise Loranger)를 초청하여 그녀의 작품인 '어느 날, 어떤 집(Une maison, un jour)'의 공연을 부탁하기도 했다.

장 가스콩(Jean Gascon)과 장-루이 루(Jean-Louis Roux)에 의해 설립된 '신세계 극단

(Théâtre du Nouveau-Monde)'은 몰리에르, 클로델, 브레히트 (Brecht), 뷔세, 세익스피어, 스트린버그(Strinberg), 유진 오닐의 작품들, 그리고 퀘벡 극작가들의 작품을 공연했다. 장-루이 루에 의해 사회참여적 색채를 띠었던 이 극단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브로드웨이적인 경향으로 향했다가 결국에는 라신느, 장 쥬네, 세익스피어 작품의 공연을 통해 예술적인 경향으로 되돌아온다. 60년대에는 아마추어 극단인 '견습-마법사(Apprentis-sorciers)'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프랑소와즈 베르(Francoise Berd)가 설립한 '에그레고르(Egrégore)'가 전위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70년대에 들어서자, 퀘벡과 몽레알의 '연극 학교(Conservatoire)' 이외에, '국립 연극 학교(Ecole national de théâtre)' 등이 새로이 설립되어 연극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연극의 경향으로는 끊임없는 실험 정신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실험 정신에 입각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공연되었고, 그 결과 각 장르 간의 구별이 모호해져 결국 장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 극단들 중 '오늘의 극단(Théâtre d'Aujourd'hui)'은 오로지 퀘벡의 7개의 회곡들만 공연한 특별한 경우이다. 작크 크레트(Jacques Crête)와 앙드레-아 라록크(André-A.Larocque)가 설립한 '에스카벨(l'Eskabel)'은 현대 연극의 풍경을 바꾸어놓았다. 쥴 마으(Gilles Maheu)가 이끄는 '탄소14(Carbone14)' 같은 극단은 '철도, 공동 침실(Le rail, Le dortoir)'의 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는다. 쥴 마으의 무대건축술, 무대장식술, 음악, 대사는 드물게 화려한 일체를 이루어 퀘벡 연극사는 그를 모범으로 평가한다.

구어와 문어가 풍부하게 등장하는 퀘벡 연극은, 퀘벡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분야이다. 퀘벡의 극작가는 이중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즉 극작가는 먼저, 문학 작품으로서의 회곡을 쓰기 위해 자신의 글쓰기 문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관객들은 퀘벡 특유의 강세와 어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체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결국, 퀘벡의 극작가는 퀘벡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문어인 동시에 구어인 언어를 고안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여하튼 장점이자 단점인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도 오늘날의 퀘벡의 연극은 활발한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 (2) 영화

70년대 무렵의 퀘벡의 정체성 추구는 과거에 대한 물음, 그리고 풍부한 문화자산의 확인 및 '자기것 찾기'라는 형태를 띠고 진행된다. 이러한 퀘벡의 정체성 찾기의 노력 중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영화 장르이다. 퀘벡의 문화는 이미 40년대부터 활발하게 개화하고 있었다. 이렇듯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퀘벡이, 20세기의 새로운 표현 형식인 영화에 관심을 쏟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가 현대적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발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교회의 영화 배척은 영화의 발달을 더욱 지연시켰다. 그리하여 퀘벡의 영화 산업은 70년대에 겨우 청년기를 벗어나고, 80년대에 들어서야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퀘벡은 캐나다의 영화 속에서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에는 제니(Génies)상의 3분의 2를 퀘벡 영화가 휩쓸었을 정도이다.

반면 불어권 안에서의 퀘벡 영화의 지위는 아직도 미미하다. 프랑스 영화가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가, 벨기에와 스위스의 영화들 역시 유럽의 관객들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퀘벡 영화는, 지나치게 독특한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유럽의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내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퀘벡의 구어도 그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986년에 제작된 ‘수코양이(Le matou)’란 영화는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하여 국제 불어로 재녹음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퀘벡 영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1972년 뉴욕에서 열린 최초의 퀘벡 영화 페스티벌에 뛰어어 세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가 열렸다. 퀘벡의 만화 영화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오스카상을 받았고,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Déclin de l'empire américain:1986)은 세계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 1) 역사적 배경

퀘벡에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는 1896년에 몽레알에서 상연된, 류미에르(Lumière) 형제가 만든 ‘7분 영화’들이었다. 1907년에는 에르네스트 위메(Ernest Ouimet)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위메토스코프(Ouimetroscope)’를 설립하여 ‘에방즐린(Evangeline)’과 아르튀르 오미에(J.Arthur Homier)의 ‘마리-마들렌 드 베르쉐르와 그의 가족들(Marie-Madelaine de Vercheres et les siens:1922) 등을 상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름은 미국이나 영어권 캐나다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1939년, 연방정부는 영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립 영화 제작소 ONF를 설립했다. 이는 1956년에 오타와에서 몽레알로 이전되어 퀘벡의 영화산업을 고무한다. 이 국립 영화 제작소는 현재까지도 특히 만화영화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알베르 테시에(Albert Tessier) 사제와 모리스 프롤(Maurice Proulx) 사제에 의해 사회적·기술교육적 내용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documentaire 가제작되었다. 그후에는 소설 등을 각색한 장편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멜로드라마적 성격이 강했던 이 영화들은 ‘학대받는 아이, 어린 오로르(La petite Aurore l'enfant martyre:1951)’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는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청각 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퀘벡 영화는 퀘벡의 문화 활동 가운데 확고하게 뿌리내린다. 그러나 퀘벡의 영화는 거센 경쟁 세력을 극복해야만 했다. 프랑스의 뛰어난 영화들은 여전히 관객을 매료하고 있었고, 미국은 거대한 양의 영화를 생산해내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배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의 결과로 퀘벡 영화에는 외국 문화의 영향이 배어 있다. 그 결과 퀘벡의 민족 영화산업이 이에 맞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으나, 퀘벡의 민족주의로 인해 영화에는 퀘벡 사회의 움직임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

60년대에는 이미 직접적 영화(cinéma direct) 기법에 의한 뛰어난 단편영화들이 제작되

고 있었다. 피에르 페로(Pierre Perrault:1927-)는 그의 영화 '세계의 지속을 위하여(Pour la suite du monde:1963)와 '낮의 지배(Le règne du jour:1966)'에서 그가 '말의 영화(cinéma de la parole)'라고 부른 기법을 사용했다. 퀘벡 사람의 전형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는 배우들 대신에 실제 퀘벡 사람들을 영화 속에 등장시켰다. 클로드 쥬트라(Claude Jutra) 역시 비슷한 작업을 시도했다. '결국에는(A tout prendre:1963)'은 등장인물 각자의 자전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장인물들이 아주 독특한 균형 속에서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이 영화에서 쥬트라 자신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한다. 이 영화는 당시의 관객들에게 '조용한 혁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다. 젤 그룰(Gilles Groulx)은 반체제 영화 '노르메탈(Normétal)', '가방 속의 고양이(Le Chat dans le sac)' 등을 만들었다.

이 시기의 영화는 다큐멘터리, 주석, 대화, 독백에 세심한 관심을 갖는 직접적 영화(Cinéma direct)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가능한 한 감독의 개입을 줄이고, 사물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영화 속의 인물에 대한 관객의 자기동일화를 이끌어내는 이 기법은 70년대에도 계속 사용되는데, 그것이 매력적인 만큼 한계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이런 영화 기법은 감독의 개입이 줄어들다 보니 자칫 수다나 지나치게 정적인 화면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하여 구성적 측면이 소홀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영화는 관객들로부터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국은 이 영화들을 반체제적인 영화로 결론짓고 드니 아르캉(Denys Arcand)의 '지쳐버린 사람들(On est au coton:1970)', 그루의 '르두와 24시간 혹은 그 이상(Leduc et 24 heures ou plus: 1971)' 같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는 뛰어난 다큐멘터리 필름들이 많이 제작된 시기였다. 퀘벡은,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면서, 과거를 계승하고('샹플랭 Champlain', '요란스럽게 Avec tambours et trompettes'), 새로운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았다('어린 아이의 감정 Kid sentiment', '내 친구 피에레트 Mon amie Pierrette').

다큐멘터리 시대가 끝나고 정치적 영화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풍속의 해방을 다룬 영화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드니 에룩스(Denis Héroux)의 '발레리(Valérie)'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그 후, '10월 위기'로부터 국민투표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퀘벡 영화는 퀘벡 사회의 새로운 관심들을 반영하면서, 영화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문제되기 시작한다. 이후로 퀘벡 영화는 비약적 전기를 맞이하여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퀘벡에서는, 퀘벡을 제외한 카나다 전역에서보다 더 많은 영화가 만들어진다.

퀘벡 영화는 점점 정치적, 사회경제적 색채를 띠어갔고, 문화적 자기동일성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핵심적 요소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쟁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다른 불어권에까지 파급되었다. 예를 들어 미셸 브로(Michel Brault)는, 페로와 함께 만든 '아카디아 아카디아 (L'Acadie, l'Acadie)'에서, 앵글로-색슨 체제에 대한 아카디아 학생들의 반항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쟝-클로드 로르(Jean-Claude Lord)의 ‘뱅고(Bingo)’와 미셸 브로의 ‘질서(Les ordres)’는 10월 위기를 상기시키며, 아르캉의 ‘퀘벡, 뒤플레시스, 그리고 그 이후(Québec, Duplessis et après)’는 1970년 선거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70년대 초에, 퀘벡의 영화산업은 전성기를 맞는다. 수많은 영화들이 쏟아져나오고, 영화제작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영화잡지들이 간행된다. 카나다 영화산업발전협회는 상업영화를 지원하고, 국립 영화 제작소는 문화영화들을 제작한다. 퀘벡 정부는 영화산업에 직접 간여하기도 했으나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유행한 영화는 극영화였다. 1978년에는 ‘퀘벡영화협회(L’Institut québécois du cinéma:IQC)’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투표 부결, 경기 침체, 제작비 부족, 텔레비전의 정착, 비데오 VTR의 대중화로 인해 퀘벡 영화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화감독들이 나타난다. 프란시스 맨키비츠(Francis Mankiewicz)는 1981년, ‘귀찮은 것들이 없어져서 시원하게 됐군(Les bons débarras)’으로 제니상의 절반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퀘벡 영화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대작이 유행하는 형편이었지만 퀘벡 영화의 제작비는 여전히 편당 500,000달러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영어권 영화의 제작비는 이것의 여덟 배에 달했다. 그결과 많은 영화감독들이 16mm 영화와 텔레비전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외국의 감독들이 초빙되고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한다.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영화가 하나의 돌파구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제작자인 록 드메르스(Rock Demers)는 쟝-클로드 로르, 앙드레 멜랑송(André Melançon) 같은 감독과 함께 ‘모든이를 위한 동화’를 선보인다. 또, 이브 시모노(Yves Simoneau), 지엘 카를(Gilles Carle) 같은 사람들은 추리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중·단편 영화들과 다큐멘터리 필름들은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만화영화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성공한 영화로는 디나이 아르캉의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을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고, 퀘벡과 불어권 유럽에서 상영되었으며 영어판도 제작되었다. 대학교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영화는 별다른 행위도 없이 무척 느리게 진행되는 ‘퀘벡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 2) 퀘벡 영화의 경향과 전망

퀘벡의 60년대 영화는 무엇보다 사실주의적이었다. 거기에는 직접적 영화의 영향이 커다. 그러나 1970년 이후로는 정치적 문제가 영화를 지배한다. 아르캉의 ‘안락과 무관심(Le confort et l’indifférence)’이나 폐로의 ‘양식없는 나라(Un pays sans bon sens)’ 같은 작품은 10월 위기와 국민투표에 대한 퀘벡의 태도를 잘 그려내고 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영화도 다수 제작되었으며, 장편영화들은 주로 문학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에로티즘, 스포츠, 폭력, 추리, 코메디 같은 상업 영화들도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퀘벡 영화 가운데 단편영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은

단편영화에 투자하기를 꺼려해, 대신 퀘벡 영화 제작소(Office du film du Québec)나 국립 영화 제작소 등 정부에서 설립한 기구들이 제작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문화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다큐멘터리는 퀘벡적인 것의 인식과 보존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매우 넓어서, 퀘벡적인 모든 것이 ‘국립 영화 제작소의 불어권 팀(équipe francophone de l'ONF)’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플라몽동(Plamondon)과 고슬린(Gosselin)의 ‘아름다운 작업’ 시리즈는 전통공예와 일상생활·민속예술 등을 다루고 있으며, ‘퀘벡의 종교 예술’ 같은 작품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예술 유산들을 조명하고 있다. 국립 영화 제작소와 퀘벡 영화 제작소의 활동 범위는 현재 퀘벡을 벗어나 보편적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한다.

단편영화 부문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퀘벡 영화가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뛰어난 만화영화들 덕분이다. 국립 영화 제작소와 라디오-캐나다(Radio-Canada)의 만화영화 스튜디오에는 세계 각지의 감독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노먼 맥라렌(Norman McLaren)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국립 영화 제작소가 오타와에서 처음 설립되었을 때,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에 의해 초빙되어 장-폴 라두세르(Jean-Paul Ladouceur), 르네 조두앵(René Jodoin) 등 카나다, 퀘벡의 영화감독들과 함께, 만화영화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그는 국립 영화 제작소가 몽레알로 이전하자, 새로운 사람들과 합류하면서 창조적, 환상적 아이디어들을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맥라렌의 지휘 아래, 국립 영화 제작소의 만화영화 스튜디오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만화영화 실험·제작의 세계적 중심지가 된다. 그의 영향 아래 성장했던 프레데릭 백(Frédéric Back)은 ‘우지끈!(Crac!)’과 ‘자기 나무들을 심었던 사람(L'homme qui plantait ses arbres)’로 1982년과 1988년에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콘코르디아(Concordia)대학, 몽레알대학, 그리고 라발대학에서는 영화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전문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콘코르디아 대학이다.

‘퀘벡 필름 보관소(La Cinémathèque québécoise)’는 ‘필름 보관소 기록(Les dossiers de la cinémathèque)’과 ‘복제 영도(Copie Zéro)’를 간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영화도서관들과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 영화 제작소 외에, 텔레비전 방송국인 라디오-캐나다와 라디오-퀘벡(Radio-Québec)이 영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77년에는 ‘퀘벡 영화 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퀘벡 영화 협회는 투자 및 배급에 힘쓰는 한편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현재 몽레알에서는 매년 ‘세계 영화제(Festival des films du monde)’와 ‘세영화와 비디오의 국제 대회(Festival international du nouveau cinéma et de la vidéo)’가 개최되고 있다.

퀘벡 영화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들 또한 많다. 적은 예산으로, 행위보다 말에 의존하는 메시지 위주의 영화를 만들려는 노력은 지나치게 지적인 영화를 낳음으로써 관객들

의 불평을 자아내기도 한다. 게다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영화 배급로는 흥행성이 없는 영화를 배제해 버리고 있다. 미국의 문화적 패권으로부터 비롯된 북 남 사이의 불균형은, 카나다 안에서의 동 서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또한 불어권 유럽과 케베 사이의 희로 역시 불균형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 불균형은 케베에게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실에의 추구로 대변되는 독특한 특성과 실험정신은 케베 영화의 질적 우수함과 다양성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케베 영화 산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VI. 케베의 불어 현황

60년대 이후로 케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쟁점의 핵심에는 언어 문제가 줄곧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문제는 케베의 주체성(identité), 또는 자율성(autonomic) 추구와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첨예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글에서는 케베의 불어 현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 부분에서는 ‘불어화(francisation)’를 위한 케베의 노력들을 언어 관련法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케베의 불어 분포 현황 및 그 추이를 몇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여 간략하게 검토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케베인들의 주체성의 자각을 상징하는 케베의 구어, ‘주알어(joual)’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간략한 불어현장의 요약과 케베 불어청의 연간 보고서가 덧붙여져 있다.

### 1. 불어화를 위한 노력

사실, 케베의 언어 문제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1760년 ‘영국의 정복’ 이후, 불어권 카나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불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67년 헌법으로 연방 정부 및 케베 정부 산하 일부 기관에서 ‘영어·불어 공용(bilinguisme)’의 권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들어와서도, 케베의 지식인들은 불어의 권리에 대한 술한 침해 사례, 특히 케베 밖에서의 불어의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또한 케베 사회의 영어화 현상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어 문제를 둘러싼 60, 70년대의 논쟁은 이제까지와는 그 성질과 규모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불어화를 위한 노력은 연방 차원에서는 ‘카나다를 2개국어화(bilingualisation)’하는 노력이, 케베 차원에서는 ‘케베를 불어화’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또 정부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안과 조정을 통해 언어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 (1) 연방정부와 영어·불어공용정책

60년대 초반, 연방정부 산하 기관과 주요 공문서들은 헌법에 명시된 영어·불어공용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했다. 모든 보고서, 정책안, 법안들이 먼저 영어로 기획, 기안, 작성된 뒤 불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업무는 불어로도 시행되었지만 그것 또한 담당 장관 및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불어권 출신 관리들은 일정한 시간을 영어로 일해야 했을 뿐더러 사실상 그들만이 영어·불어공용정책을 떠맡고 있었다. 이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새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 60년대 초반의 퀘벡 사회는 연방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기에 이르렀다. 즉 카나다 연방정부는 카나다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영어권 카나다 정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1963년에 연방정부의 수상이 된 레스터 퍼슨(Lester B. Pearson)은 ‘영어·불어공용정책과 2 문화 공존에 대한 왕립 조사위원회(La Commission royale d'enquête sur le bilinguisme et le biculturalisme)’를 설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위원회는 1969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연방 행정기관에서의 영어·불어공용정책 수준을 높일 것
- 연방 행정기관에 불어 업무 부서들을 설치할 것
-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 소수 언어 집단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영어·불어 공용 특별구(district bilingue)’를 설치할 것(퀘벡은 하나의 커다란 특별구가 된다)을 제안했다.

피에르 엘리오토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가 수상이 되면서 영어·불어공용정책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1969년에 채택된 ‘공용어法(Loi sur les langues officielles)’은 ‘공용어 위원회(Commissariat aux langues officielles)’의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트뤼도 정부는 영어 사용 관리들을 위한 불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영어·불어공용 부서에 소속된 관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

연방의 차원에서 진행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영어권 카나다의 지식인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영어권 지방과 영어권과 불어권 이외의 소수 민족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 ‘복합문화 공존(multiculturalisme)’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영어·불어공용정책과 동시에 마련된 것은 바로 이들 소수 민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퀘벡의 경우에는 영어권과 불어권의 일부 지도자들만이 연방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지지했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연방정부의 영어·불어공용정책이 퀘벡의 불어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연방정부의 새 언어정책이 불어로 제공되는 업무의 양을 증가시킨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불어권 출신 관리들의 대부분이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공공업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영어·불어공용정책과 관련한 많은 저항이 일어났다. 한 예로, 1976년에, ‘항공인 연합회(Association des gens de l'air)’ 소속 조종사들은, 퀘벡 안에 있는 공항에서 관제탑과 불어로 교신할 권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어권 조종사들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트뤼도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항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2) 퀘벡정부와 언어 관련 법안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퀘벡정부는 언어 문제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퀘벡 정부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 민족들 사이의 역학관계다. 즉 당시 퀘벡 정부의 관심은 국가와 경제 분야의 요직에 더 많은 불어권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퀘벡 지도자들에게는 경제 분야에서의 영어의 지배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사기업에서는 영어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

언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교육 분야에서였다.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새로운 이민들이 자녀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냄으로써 영어권에의 동화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게다가 이같은 ‘언어이전(transfert linguistique)’을 상쇄시켜줄 불어권 주민의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땅한 정책도 없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며지않아 불어권은 퀘벡에서 조차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퀘벡을 감싸기 시작했다.

### 1) 생 레오나르(Saint-Léonard) 사건

이 사건은 퀘벡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카나다의 전 국민들에게 언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몽레알 교외의 생 레오나르(Saint-Léonard)에 살던 이탈리아계 소수 이민집단의 자녀들은 수업의 3/4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어느 영어·불어공용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1967년 학교당국이 학교를 불어전용학교로 바꿔버리자 이탈리아계 이민들은 이 조치에 맞서 ‘생 레오나르 영어 카톨릭 학부모 협회(Saint-Léonard English Catholic Association of Parents)’를 결성했고, 불어권 사람들은 ‘교육통합운동(Mouvement pour l'intégration scolaire)’을 시작했다. 양측은 정부, 법정,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1969년 생 레오나르에서는 ‘교육통합운동’측이 개최한 집회가 소요로까지 악화되었다.

생 레오나르 사건으로 부각된 언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 것이었다. 자유선택권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마땅히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고 불어 전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퀘벡의 모든 사람들이 불어전용학교를 다니기를 원했던 것이다.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가 서로 맞섰다. 생 레오나르 사건은 퀘벡 사회의 불어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결정적인 측면 구실을 한 사건이었다.

### 2) 세 개의 법안 : 불어진흥법, 불어공용법, 불어현장

1969년 장-자크 베르트랑(Jean-Jacques Bertrand) 정부는 63법안(불어진흥법, Loi pour

promouvoir la langue française)을 통해 자유 선택의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불어의 진흥을 꾀하는 ‘권장적인(incitatif)’ 차원의 조치들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불어권 민족주의 진영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불어 퀘벡 戰線(Front du Québec française)’이 결성되어 맹렬히 여론 캠페인을 벌였다. 국회에서는 네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거리에서는 데모가 잇따랐다. 결국 베르트랑 정부는 실각하고 말았다.

베르트랑에 이어 수상에 취임한 로베르 부라싸(Robert Bourassa)는 사태에 개입하기에 앞서, 언어학자인 장-드니 장드롱(Jean-Denis Gendron)이 이끌고 있던 ‘불어의 위치와 퀘벡의 언어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위원회 (Commission d'enquête sur la situ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et sur les droits linguistiques au Québec)’의 보고서가 나오길 기다렸다. 1972년에 나온 보고서는 퀘벡 지역에서의 불어 사용의 권리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퀘벡 정부의 일반 목표가 불어를 퀘벡의 공통어로 삼는 것 이길 권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불어가 불어권 퀘벡인과 비불어권 퀘벡인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퀘벡인이 불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특히 노동계를 불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언어교육에 관련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부라싸 정부는 장드롱 보고서를 바탕으로 1974년에 22법안(불어공용법 Loi sur la langue officielle)을 채택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불어를 퀘벡의 공용어로 규정한다.
- 노동계와 그밖의 일정한 분야에서 불어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 교육언어의 자유선택권은 제한되고, 시험을 통해 일정한 영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이 영어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불어공용법은 다시 한번 언어 분쟁을 일으켰다. 민족주의와 독립주의 진영은, 영어에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또한 불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고, 영어권 진영에서는 그 반대의 이유를 들어 정부를 공격했다. 1976년에 언어 문제로 인해 또 한번 정부가 실각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77년에 집권한 르네 레베스크(René Lévesque) 정부는 일단 언어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에서 논란 끝에 채택된 101법안(불어헌장,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은 노동계와 공공장소에서의 불어의 우선권을 이전의 법안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학교에의 입학은 한층 더 까다롭게 제한되었는데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퀘벡에서’ 영어로 초등교육을 받았거나, 이미 영어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에게만 영어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후 이 법안은 1982년의 카나다 헌법에 의해 수정되어 ‘퀘벡에서’가 ‘카나다에서’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안은 영어권을 위시한 다른 언어권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퀘벡 연합 (Alliance Québec)’을 조직하고 이 법안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법안의 일부를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70년 대 말의 상황은 이미 예전과 달리, 불어권 사람들도 경제·사회 분야의 중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어권의 요구를 억압할 수는 없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법안들은 하나의 일정한 흐름 속에 연속적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데니스 다우스트(Denis Daoust)는 그 흐름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불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부여의 강화
- 언어 문제의 초점이 교육에서 노동계로 옮겨감
- ‘집단적 주체성(identité collective)’의 강조에서 ‘영역(territoire)’의 강조로 바뀜
- 영어·불어공용정책에서 불어단일주의를 친명하기에 이름
- 법 적용의 제도적 장치들의 강화
- 법안들이 ‘권장적인’ 성격에서 ‘강제적인’ 성격으로 바뀜

정리하자면, 퀘벡의 언어 정책의 첫번째 목표는 퀘벡 사회에서 불어의 우선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불어진홍법이 불어를 권장하여 불어의 우선권에 천천히 도달하려 했다면, 불어공용법은 두 개의 언어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삼으려 했고 불어현장은 불어만을 공용어로 채택함으로써 불어공용법이 제시했던 구도를 말소해버린 것이다.

퀘벡의 언어 정책 가운데 ‘노동계의 불어화’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불어진홍법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명문화시켜 놓지 않았지만, 대신 ‘불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에 제안하게 하고 불어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했다. 노동언어로서의 불어라는 관점에서 불어공용법의 특징적인 사실은 기업들에게 ‘불어화 증명서(certificat de francisation)’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애초에 권장 사항이었던 이 조치는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불가불 강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불어현장이 발효되면서 이 제도는 모든 기업들에게 의무적인 것으로 변한다. 또한 불어현장은 불어를 퀘벡 전역의 의사소통 언어로 만들려는 조치들을 더 한층 강화한 특징이 있다.

퀘벡의 언어 정책의 효과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게시물이다. 불어공용법에 따르면 게시물은 다른 언어로 병기할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어로 표기되어야 했다. 그후 불어현장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게시물은 불어로만 표기해야 했다. 그런데 1988년 대법원이 공공게시물과 관련한 불어현장의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부랴싸 정부는 즉각 178법안을 채택했는데, 이 법안은 소규모 건물의 내부에서는 영어·불어 공용 게시물의 설치를 허용하되 외부에서는 오직 불어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과 함께, 언어 관련 기구들도 잇따라 설치되었다. ‘불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은 1961년에 설치되었는데, 퀘벡에서의 언어의 질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다. 불어진홍법에 따라 이 기구는 설문조사 및 자문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기구는 불어공용법에 따라 법안의 적용 및 준수를 감시하는 ‘불어국(Régie de la langue française)’으로 대체되어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불어현장과 불어청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퀘벡 사회의 불어화 노력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혹은 시민적인 운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카나다가 북아메리카의 정치,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적 압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취약한 성과이기도 하다.

## 2. 불어 분포 현황 및 그 추이

魁北克 이외의 지역에서는 불어사용자가 영어사용자들에게 동화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어사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 예컨대 온타리오 동부의 프랑코-온타리오나 누보브룅슈빅의 아르카디와 같은 지역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사실 불어가 가장 우세한 언어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魁北克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魁北克 역시 위협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최근 이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魁北克에서의 모어(母語) 분포는 민족 분포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불어사용자들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영어사용자는 약간이나마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195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도표 4〉 모어에 따른魁北克의 인구 분포, 1931-1981(%)

연 도	불 어	영 어	이외의 언어
1931	79.8	15.0	5.3
1941	81.6	14.1	4.4
1951	82.5	13.8	3.7
1961	81.2	13.3	5.6
1971	80.7	13.1	6.2
1981	82.4	10.9	6.7

〈魁北克의 민족 분포, 1941-1981(%)〉

연 도	프랑스계	영 국 계	그 외
1941	80.9	13.6	5.5
1961	80.6	10.8	8.6
1981	80.2	7.7	10.2

그런데 주목할만한 사실은 민족 분포와 모어 분포 사이의 편차 정도가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불어사용자의 비율은 프랑스 출신 인구의 비율보다 별로 높지 못하다. 이는 곧 불어가 다른 민족 출신들에게 흡인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반면 영어사용자의 경우에는 많은 이민 후예들이 자기들이 속한 민족의 언어 대신에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1951년부터 그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출신에 비해 소수인 타민족 출신들의 영어화 현상은 일상 사용 언어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분포 자료를 고려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도표 5〉 〈사용 언어에 따른 퀘벡의 인구 분포, 1871-1981(%)〉

연 도	불 어	영 어	기타언어
1971	80.8	14.7	4.5
1981	82.5	12.7	4.8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모어가 불어인 인구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에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모어가 영어인 인구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세 자료에서 암시되듯이, 언어의 이전(transfert linguistique)은 영어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영국 출신의 인구가 퀘벡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출신들이 영어를 선택함으로써 영어의 비중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의 강한 흡인력은 한편으로는 영어권 북아메리카로의 이동 전망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가 지닌 경제적 위상에 의해 설명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민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경제적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줄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퀘벡 출신의 기업들이 카나다 경제의 전면에 등장하고 퀘벡 경제계에 대한 불어화 작업이 시도되었지만, 이미 1960년 이전에 이루어진 영어 선택을 뒤엎기에는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상황은 많은 영어사용자들이 불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영어·불어 공용자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그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카나다의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퀘벡 인구의 비율은 1961년에는 25.4%였다가 1981년에는 32.4%로 늘어났다. 그리고 영어·불어 공용자의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1961년에 29.7%였다가 1981에는 36.3%로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 여자의 경우에는 1961년에 25.4%였던 비율이 1981년에 이르러서도 28.6%에 불과하다. 인구학자인 위베르 샤르보노(Hubert Charbonneau)와 로베르 마외(Robert Maheu)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로써 이 차이를 설명한다.

영어·불어 공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영어와 불어 공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5세 미만 어린이의 숫자가 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인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는 불어사용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영어를 배우는 인구가 24.4%에서 28.7%로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 반면에 영어사용자의 경우에는 불어를 배우는 인구의 증가율이 28.7%에서 53.4%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1년의 조사에 따르면 불어만을 사용하는 인구는 퀘벡 인구 전체의 60.1%(1961년에는 61.9%)이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영어와 불어 공용자의 비율을 덧붙이면, 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는 퀘벡 인구 전체의 92.5%에 달한다(61년에는 87.3%에 머물렀다).

결국, 영어,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어권에 동화되고 있고 또 영어가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퀘벡의 불어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염연한 사실이다.

퀘벡의 언어 정책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노동계의 불어 분포 현황 및 그 추이를 살펴보면 퀘벡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를 잘 알 수 있다. 아래의 두 자료는, 몽레알 중심부에서 불어가 얼마 만큼이나 사용되고 있는가, 또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도표 6〉 〈불어로 일하는 시간에 따른 노동인구 분포, 몽레알 중심부, 1979-1989〉

불어사용 시간비율	90% 이상	89%-50%	49%이하
1979	51%	26%	23%
1989	56%	28%	15%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동안에 걸쳐 ‘거의 영어로 일하는’ 인구의 비율은 23%에서 15%로 떨어졌다. 반면에 노동 시간의 90% 이상을 불어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51%에서 56%로 5% 상승했다. 따라서, 노동계의 불어화 역시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여론 조사표는 퀘벡의 불어화 현황을 또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영어사용자와 기타 언어 사용자를 포함한 퀘벡의 전체 여론은 불어화를 위한 퀘벡 사회의 노력을 크게 고무시킬 만하다. 적어도 퀘벡 지역 노동계 안에서의 언어의 움직임은 불어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퀘벡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적·개인적 차원,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불어화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사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잘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주알어(Joual)

주알어는 퀘벡의 구어로서 퀘벡의 주체성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맺고 있다. 미셸 트랑블레(Michel Tremblay)는 그의 최초의 극작품인 ‘벨르 쉐르Les Belles Soeurs’를 몽레알 서민구역의 불어인 ‘주알어(joual)’로 썼다. ‘주알’이라는 용어는 불어 ‘슈발(cheval)’의 음성학적 파생어다. 그에 따르면, 그가 당시의 인물들에게 주알어를 사용하게 한 것은 자신 혹은 다른 불어권 서민들이 느끼고 있던 삶의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도표 7〉〈여론조사〉 1

- 불어사용자, 몽레알 중심부, 1979-1989

	찬성				반대	응답자
	연도	습	완전히	어느정도		
魁베에 머무르는 사람은 불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1979	94	71	23	5	1	6
1989	95	83	12	4	2	6
魁베에 이민온 사람은 먼저 불어를 배워야 한다						
1979	95	79	16	4	1	5
1989	96	87	9	2	2	4
魁베 노동계의 언어는 불어여야 한다						
1979	84	56	28	12	3	15
1989	88	68	20	9	4	13
불어사용자가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魁베에서는 어떤 경우이건간에 불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1979	78	52	26	17	5	22
1989	81	59	22	12	7	19
魁베은 북아메리카의 일부인만큼魁베사람은 영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1979	78	40	38	16	5	21
1989	74	41	33	17	10	19
불어현장은魁베 경제에 해롭다						
1979	46	14	32	28	26	54
1989	32	13	19	24	44	68
불어현장은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						
1979	46	18	28	31	22	53
1989	30	14	16	26	44	70
불어현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게 한다						
1979	51	21	30	28	20	48
1989	34	14	20	28	39	67
영어는魁베의 경제·금융 언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1979	30	11	19	42	28	70
1989	30	14	16	27	43	70
불어는 현대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						
1979	20	6	14	38	43	81
1989	24	11	13	23	53	76

## 〈여론조사〉 1

영어사용자, 몽레알 중심부, 1979-1989

	찬성				반대		응답자
	연도	습	완전히	어느정도	어느정도	완전히	
魁베에 머무르는 사람은 불어를 말할줄 알아야 한다							
1979	76	21	55	21	2	23	539
1989	81	53	28	8	11	19	540
魁베에 이민온 사람은 먼저 불어를 배워야 한다							
1979	56	10	46	40	4	44	530
1989	72	45	27	15	13	28	526
魁베 노동계의 언어는 불어여야 한다							
1979	25	4	21	62	13	75	539
1989	40	13	27	24	37	61	538
불어사용자가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魁베에서는 어떤 경우이건간에 불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1979	13	3	10	57	30	87	540
1989	21	7	14	20	59	79	533
魁베은 북아메리카의 일부인만큼魁베사람은 영어를 말할줄 알아야 한다							
1979	91	41	50	8	1	9	543
1989	90	66	24	6	5	11	537
불어현장은魁베 경제에 해롭다							
1979	92	30	62	6	2	8	535
1989	75	46	29	14	11	25	503
불어현장은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							
1979	93	42	51	7	1	8	535
1989	67	40	27	18	16	34	507
불어현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투자가 줄어 들게 한다							
1979	86	32	54	13	1	14	535
1989	75	48	27	14	10	24	493
영어는魁베의 경제·금융 언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1979	46	9	37	49	4	53	527
1989	32	14	18	36	32	68	526
불어는 현대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							
1979	36	7	29	54	10	64	491
1989	36	14	22	28	36	64	489

## 〈여론조사〉 3

- 기타언어 사용자, 몽레알 중심부, 1979-1989

	찬성				반대		응답자
	연도	수	완전히	어느정도	어느정도	완전히	
<b>魁北克에 머무르는 사람은 불어를 말할줄 알아야 한다</b>							
1979	79	34	45	19	3	22	406
1989	88	63	25	4	8	12	409
<b>魁北克에 이민온 사람은 먼저 불어를 배워야 한다</b>							
1979	70	31	39	25	4	29	399
1989	76	59	17	13	11	24	404
<b>魁北克 노동계의 언어는 불어여야 한다</b>							
1979	42	19	23	49	8	57	401
1989	52	32	20	20	28	48	409
<b>불어사용자가 자기 문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魁北克에서는 어떤 경우이건간에 불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b>							
1979	39	17	22	49	13	62	397
1989	47	33	14	20	33	53	395
<b>魁北克은 북아메리카의 일부인만큼魁北克사람은 영어를 말할줄 알아야 한다</b>							
1979	93	55	38	6	1	7	404
1989	87	65	22	8	4	12	410
<b>불어현장은魁北克 경제에 해롭다</b>							
1979	77	18	59	13	10	23	383
1989	55	34	21	23	22	45	352
<b>불어현장은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b>							
1979	79	35	44	17	4	21	390
1989	59	39	20	20	20	40	359
<b>불어현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게 한다</b>							
1979	76	35	41	20	4	24	381
1989	70	41	29	13	17	30	361
<b>영어는魁北克의 경제·금융 언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b>							
1979	53	18	35	41	7	48	393
1989	41	21	20	29	30	59	402
<b>불어는 현대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b>							
1979	38	8	30	49	12	61	372
1989	34	15	19	24	41	65	354

불어 보다는 어떤 '나쁜 언어(mauvaise langue)'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때까지 시골에 묻혀 살던 불어사용자들이 도시로 나오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비롯된 현상이

다. 여행이 쉽지 않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정보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세기 초의 사정은 이러한 언어 습관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언어 습관을 발달시켜야만 했는데, 그 당시 도시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던 계층은 영어사용자였다. 자연히 시골의 불어와 산업적·경제적 언어인 영어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며 바로 이 충돌로부터 주알어라는 새로운 언어 습관 혹은 언어 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주알어가 크게 확산된 것은 경제 붐이 일어난 봉제알에서이다. 사회학자인 페르낭 뒤몽(Fernand Dumont)은, “시골에 고립되어 살면서 갖게 된 언어 습관 일체라는 옛 언어의 유산과 도시 진출에 따른 낯설은 새로운 사물들 사이에서 주알어가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알어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어휘, 표현, 영어식 어조가 불어의 통사·어휘적 바탕 위에 덧붙여져 생성된 것이다.

주알어는 영어화된 불어이기 때문에 어휘의 상당수가 영어로 대체되었고 서툰 불어 어휘를 사용하는 등 표준 불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주알어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지식인, 작가, 각종 정보매체들로부터 도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만족하는 잠정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만 통용되었다.

이러한 주알어와 관련하여, 일찌기 엉텔(Untel) 사제는 그의 한 책에서 주알어의 생성이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길을 따라 서 있는 간판들을 보라. 우리는 천한 족속이다. 두 세기 전, 우리는 멸망했고, 지금 그 모양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주알어 가운데 살기에 주알어로써 생각하고, 주알어로써 생각하기에 주알어로써 말한다.” 이처럼 서민 계층이 사용하는 주알어와는 다른 엘리트 계층의 불어도 퀘벡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엘리트들은 뿌리뽑힌 엘리트들이다. 교양있고 세련되었으나 우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곧 울타리 밖으로 유배된 자들이다”. 곧 주알어는 퀘벡의 주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그 주체성의 인식은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다’라는 새삼스런 인식이며, 그러한 인식은 주알어가 퀘벡의 언어라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알어를 단순히 구어의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어로 발전시켜 주알어의 특징을 정착시키려는 계획이 생겨나게 된다. 제랄 고댕(Gérald Godin)과 파르티 프리(Parti Pris)와 같은 출판사는 주알어로 된 서적을 중심으로 출판하기에 이른다.

주알어는 나름의 상상 세계와 뉘앙스, 개념화 방법을 지닌 퀘벡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업연한 표현 도구이다. 따라서 퀘벡의 작가들이 주알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언어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몇 사회계층은 여전히 주알어를 의사소통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제라르 베세트(Gérard Bessette)는 ‘싸움판(La bagarre)’을, 앙드레 마조르(André Major)는 ‘보석(Le cabochon)’과 ‘닭살(La chair de poule)’을, 자크 르노(Jacques Renaud)는 ‘깨어진 것(Le cassé)’을, 클로드 자스맹(Claude Jasmin)은 ‘울지마오, 제르민느(Pleure pas, Germaine)’를 썼다. 이러한 소설들이 외에, 미셸 트랑블레(Michel Tremblay)가 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벨르 쉐르(Les belles-soeurs)’라는 회곡도 같은 언어계열

의 작품이다. 그들은 ‘들리는대로(à l'oreille)’ 썼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령, ‘à cette heure’는 ‘asteure’로 쓰여졌고 사람들은 ‘진 djinne’을 마시고 ‘파파만느 paparmanes’을 먹으며, ‘아브니우 aveniou’를 산책한다. ‘never mind’를 뜻하는 ‘neveurmagne’가 성구로서 사용되었다. 고령은 주알어와 관련된 퀘벡의 집단적 감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했다. “나는 주알어로 귀결되었다(...). 내가 파리에 갔을 때, 나는 겁이 났고, 또 콤플렉스를 느꼈다. 내가 발음하는 단어들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단어들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생각에, 나는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말과 머릿속 사이의 이 괴리, 그것이 곧 주알어가 뛰어노는 초원이다.”

불어와 주알어를 대립시키는 것은, 퀘벡이 프랑스로부터 탈식민지화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독립에까지 이르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의 독립이 아닌가? 그러나 1965년에 시작된 주알어의 유행은 10년을 넘기지 못한 채, 1973년 경 수그러들게 된다. 그 이유는 퀘벡의 작가들이 언어를 통해 결합시키고자 했던 퀘벡 민중들이 구어의 임의적 체계화에 불과한 문어 주알어 속에서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소설이나 시보다는 텔레비전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또한 퀘벡의 불어가 표준 불어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지고 절적으로 타락하고 빈곤해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알어 문제와 관련하여 ‘파르티 프리’ 그룹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소외가 극복되어야만 언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른 용법(bon usage)’의 교육·전파를 앞세우면서 기술, 정보과학, 법률, 회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문, 기술 용어들을 개발하고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효과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엘리트 집단과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불어가, 퀘벡적 특성들 예를 들면 별음, 액센트, 아메리카 인디언 계열의 어휘들, 고어적 표현, 카나다 사투리, 퀘벡 사투리, 퀘벡 불어의 용례들을 그대로 지닌 채, 그리고 누그러들 줄 모르는 영어의 압력 속에서, 국제 표준 불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 4. 퀘벡의 불어 현장과 불어청

##### (1) 불어 현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1977년 8월 26일 퀘벡 의회에 의해 제정된 ‘불어 현장’은 1960년대의 카나다 상황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카나다에는 민족성이 다시 궁정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각 개인들이, 특히 프랑스계 카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문화적 뿌리를 찾아 나서며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공지를 키워 나가기 시작한 때였는데, 퀘벡의 역사에서는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 부른다. 사실 이때 카나다에는 심각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몽레알 근교의 생-레오나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학사행정의 위기(1967년-1968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

의 사건들은 마침내 연방정부로 하여금 1969년에 불어의 지위를 확정하는 언어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때 정해진 불어의 지위는 그 후 '불어의 위치와 퀘벡의 언어적 권리에 관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d'enquête sur la situ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et sur les droits linguistiques au Québec; 통칭 Commission Gendron'과 1974년 제정된 '공용어에 관한 법 Loi sur la langue officielle'이라는 후속 법률에 의하여 확대, 심화되었는데, 이 '공용어에 관한 법'이 1977년 '불어 현장'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불어 현장은 그후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있다.

불어 현장은 1989년 7월 1일 현재, 1) 불어의 지위 2) 불어 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과 불어화(Francisation) 3) 불어 보호위원회와 조사(Commission de protection et les Enquêtes) 4) 불어 심의회(Conseil de la langue française) 5) 위반, 처벌 및 기타 제재 6) 경과조항 7) 부칙 등 모두 6개 절 20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절 불어의 지위에서 먼저 현장은 불어가 퀘벡의 공용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언어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행정부, 보건기구와 사회복지기구, 공익기업, 직업협회, 노동조합 및 퀘벡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업들과 불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임에서 모든 사람은 불어로 의사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들은 불어로 자신의 행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들은 불어로 정보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퀘벡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교육을 불어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은 원칙 하에 현장은 불어의 지위를 규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를 간추려 보기로 하자.

#### — 입법과 사법의 언어 :

현장은, 법률과 규정의 불어 원문 만이 공식적이며, 행정부는 법안, 법률, 규정 등의 영어 번역문을 인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행정부의 언어 :

여기서 행정부라 함은 퀘벡주 정부 및 각 부처, 주 정부와 시 산하 조직, 학교 뿐만 아니라 의료 및 사회 복지 기관들을 가리킨다. 현장은, 행정부가 그 다양한 명칭과 계시물 그리고 퀘벡주에 있는 법인체나 다른 정부와의 통신에 있어서 불어를 사용하며(단 건강이나 공안이 문제가 되어 다른 언어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행정부가 맺는 계약 및 그 계약에 따르는 하부 계약에 있어서 불어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정 당시의 조항에 보면, 시(市)나 학교 조직 및 의료, 사회복지 기관들 가운데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 공공업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그 기관이 전체적으로 불어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관들은 198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1984년 3월 31일 조사에 의하면 98%의 기관이 현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울러 현장은 시민들이 관공서에 문의를 할 때, 그들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을 밝히고 있다.

### — 준 공공기관과 직업별 협회의 언어

준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화, 전신, 유선 텔레비전 방송, 항공, 선박, 버스, 철도회사들과 가스, 수도, 전기 생산, 판매회사 및 운송위원회가 허가한 회사 등의 공공복지를 위한 기업들로서, 현장은 이 회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공공운송수단의 명칭, 공공을 위한 인쇄물, 통신문, 전언들은 불어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지만 이 인쇄물들은 영어 번역이 동반될 수 있다).

직업별 협회와 그 구성원들은 공공복지 회사들과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즉, 공공복지 회사들처럼 직업별 협회는 불어로 행정부와 법인체와 관계를 가져야 하며, 또한 그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할 때 불어를 사용해야 하고, 직업별 협회의 명칭도 불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은 또 직업별 협회가 직업수행에 있어 공용어, 즉 불어에 대한 적절한 구사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면허증을 내줄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이, i) 불어로 최소한 3년 이상의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ii) 중등과정 4학년이나 5학년의 모국어로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 iii) 1985-1986학년도 이후에 퀘벡에서 중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경우 등인데, 이 이외의 경우에는 불어청이 발급하거나 불어청에 의해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직업별 협회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는 인정되지만 공용어에 관한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퀘벡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1년간 유효한 임시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는 유연성은 보이고 있다.

### — 노동언어(Langue du travail)

현장은 불어를 노동관계의 공식언어로 삼고, 사용주는 직업과 승진의 제안 및 고용인에 대한 통지문을 불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사용주는 불어 이외의 언어로 된 일간지에 구인공고를 할 때, 동시에 불어 일간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같은 공고를 내야 하며, 향후 노동 법전에 의거한 결정 및 단체 협약, 추가조항들은 불어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은 이 조문들이 영어 번역문이 부가된다 하더라도 불어 부분만이 공식적임을 밝히고 있다. 현장은 또 사업주가 고용인을 그가 불어만을 안다든지 불어 이외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강등시키거나, 전직시키거나, 정직, 퇴직시키지 못하며, 사업주가 어떤 특정 직책에 대해 불어 이외의 언어구사를 요구할 때는 해당 고용인 조합이나 불어 청에 그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인 조합도 그 구성원들과 불어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단 특정한 한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할 때는 그 구성원이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상업 및 사업언어

상업 및 사업언어란 상표, 계시문, 카탈로그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그리고 회사명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어가 상업 및 사업의 언어라는 말은 생산물, 용기, 포장 및 제품에 동반된 모든 인쇄물(사용 설명서, 품질 보증서에서 포도주 메뉴, 식단표에 이르기까

지)은 불어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여러 다른 언어 번역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언어로 된 번역문이 불어로 된 기입문보다 더 많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불어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상업 및 사업언어에 관해서 현장이 정한 규정들을 세목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공 계시물이나 상업광고에 관한 규칙은 명확하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이것들은 불어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간단치가 않은 것 이어서 공공 계시에 대한 현장의 규정은 카나다 최고 재판소에 의해 1988년 무효화되었다.
- 2) 카탈로그, 사용 설명서, 도록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들은 불어로 쓰여져야만 한다. 불어로 된 위의 인쇄물이 독립된 인쇄물로 따로 존재할 경우, 다른 언어로 된 동일 인쇄물은 공공장소에서 배포될 수 있다. 이것은 또 공공장소가 아니더라도 특정 자연인이 통신으로 요청해 올 경우 배포가 허용된다. 불어와 다른 언어로 함께 쓰여진 인쇄물도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배포될 수 있다.
- 3) 가입 계약서, 약관이 인쇄된 계약서 및 이에 부가되는 인쇄물, 취직 요청 양식, 매입주문서, 송장, 영수증, 수령증 등은 불어로 또는 불어와 다른 언어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계약서와 그것에 부가되는 인쇄물의 경우 양측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불어 이외의 언어로만 쓰여질 수도 있다.
- 4) 마지막으로 현장은 회사명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어로 된 것만 퀘벡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회사명이 퀘벡에 편입 또는 등록될 때, 불어명 이외의 다른 언어명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교육 언어

1989년 7월 1일 현재의 현장에는 퀘벡에서의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은 불어로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상당히 많은 예외 규정이 뒤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교육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 발효 이후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문제도 거의 그러 하지만, 주로 퀘벡에 거주하는 영어 사용자들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2세의 언어교육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어쨌든 현재는 교육 언어에 관한 현장 최초의 목적은 사법적 조치에 의해 거의 무효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기업의 불어화

기업의 불어화는 바로 현장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불어화란 곧 퀘벡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들이 불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말이다. 현장은 5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회사는 늦어도 1983년 12월 31일 까지 불어청에서 발행된 '불어화 증명서 (certificat de francisation)'를 소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1984년 3월 31일 현재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98%가 '불어화 증명서'를 소지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증명서는 말 그대로 해당 회사가 불어화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

데, 그 계획의 목표에는 경영진의 공용어(불어) 구사능력, 기업의 모든 차원에서 불어를 잘 구사하는 인력의 증대, 노동 언어 및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불어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카탈로그, 소개서 등 기업의 작업문서 및 용역 제공자, 고객, 일반 대중 등과의 교신에서 불어와 불어 용어의 사용, 그리고 적당한 교체, 승진, 고용 정책의 채택, 홍보에서 불어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은 또 불어화 증명서 말고도 100인 이상을 고용한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된 불어화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삼분의 일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며, 기업의 언어 분석과 기업의 방향 및 방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불어청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은 불어청에 불어화 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부가된 다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불어화 증명서를 정지 내지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 현장의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들

불어 현장은 현장에 규정된 규칙들 및 그 부가 조치들의 시행을 감독하는 네 기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불어청(L'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지명위원회(La Commission de toponymie), 불어 보호 위원회(La Commission de protection de la langue française), 불어 심의회(Le Conseil de la langue française)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중에서 불어청은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우리는 다음 장에서 불어청의 1989-1990년도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 이 기관의 일반 책무는 법률 시행의 감독 업무이다. 즉 불어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퀘벡에서 통신, 노동, 무역, 사무 언어가 되게 하는 임무이다. 불어청은 언어 및 용어 연구 분야에서 퀘벡주 정책을 정의하고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두번째 조직인 지명 위원회는 행정적으로는 불어청의 부설 기관인데, 모든 지역명의 선택 기준과 표기 규칙을 확립하고,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지역의 지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존 지역명의 변경을 승인하는 일을 맡고 있다.

불어 보호 위원회는 법률 준수를 관할하고 고소 또는 자신의 고유 판단에 의거 조사를 한다. 다시 말해 이미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 범법자를 처벌할 것을 검찰 총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가 맡은 일이다.

끝으로 현장에 의거해 조직된 네번째 조직인 불어 심의회는 현장의 적용 및 해석 그리고 퀘벡에서의 불어의 지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걸쳐 주무 장관에게 조언을 하는 일을 한다. 불어 심의회는 또한 언어의 변화 추이를 감시하고, 불어청에 의해 마련된 규칙들이 현장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 주무 장관에게 그 의견을 개진하는 임무를 맡는다.

#### — 위반과 벌칙

현장은 또한 현장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예컨대, 현장의 규정

또는 그 하위 규정들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자연인인 경우는 25\$에서 500\$, 법인체인 경우는 50\$에서 1000\$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 번 위반 후 2년 내의 재범인 경우, 벌금은 자연인인 경우 50\$에서 1000\$, 법인체인 경우는 500\$에서 5000\$까지 된다. 또한 규정된 기간까지 '불어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회사는 비용의 부담 및 증명서 없이 그 활동을 행한 하루마다 100\$에서 2000\$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률상의 조치를 위반한 게시물, 공고, 광고판, 네온사인은 판결일로부터 8일 내에 제거 내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가 지불해야 한다.

## (2) 불어청(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1989~90년도 연간 보고서

불어청에서는 1988~89 집행년도 중에 1989~94년도의 정책지표들을 채택하였다. 이 지표들은 본 기관의 임무와 관련된 우선사업과 조직 상의 우선사업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연간 활동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틀이 된다. 본 연례 보고서는 따라서 이 지표들, 즉 새로운 활동 계획에 의거해 준비되었으며 불어 현장의 채택 이후로 본 기관이 시행해온 다양한 사업계획의 이해, 조사에 필요한 통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통계 자료들을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퀘벡의 불어화 과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 추가 예산이 부여된 이후의 활동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다. 불어청의 지표들과 그 활동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불어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통합되어 있다. 5개년 계획으로 채택된 이 지표들은 퀘벡의 불어화 진전에 따라 매년 평가, 조정되고 있다.

## 제 1장 불어청의 임무, 권한, 조직

### 1. 임무

불어청은 불어사용자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용어 및 언어서비스와 간행물들을 제공하고 불어 현장을 적용함으로써 퀘벡 지역에서 불어의 위상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 2. 권한

위의 임무는 퀘벡 주정부가 불어 현장에서 본 기관에 부여한 다음 두 권한과 직접 연관된 것이다: 직업, 상업, 공무 환경의 불어화; 불어가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와 기업에서 의사소통, 직업, 상업, 공무언어가 되도록 할 것. 언어, 용어 연구에 관한 퀘벡의 정책 책임을 맡은 본 기관에서는 용어와 표현들을 표준화하여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기관은 불어 현장의 주된 적용자이다.

### 3. 조직

불어청은 5인의 집단운영체제로 구성되며 불어화와 관련된 공식 활동의 책임, 그리고

지표와 활동 계획을 승인하는 책임을 맡는다. 본 기관에는 관리부 아래 두 개의 집행부(불어화부와 언어 서비스부), 3개의 기능부서(연구와 사무부, 인력 자원부, 행정부) 및 2개 과(커뮤니케이션과, 정보체계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2 장 관련사업

### I. 노동, 상업, 공무 환경의 불어화와 관련된 우선사업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어청에서는 다음 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 및 행정 기구들의 증명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및 기구 내에서의 불어화의 영속화 프로그램이다.

#### 1. 기업 및 행정 기구들의 증명 프로그램

이 불어화 프로그램은 기업의 모든 차원에서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퀘벡의 기업들 내에서 불어 사용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불어화의 주된 단계는, 1) 언어 상황의 분석, 2) 불어화 프로그램의 작성 및 적용이다. 1990년 3월 현재 약 71.2%의 기업이 불어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 2. 불어화의 영속화 프로그램

불어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기관에서는 매년 불어화 증명서를 이미 획득한 몇몇 기업, 기구들과 다시 접촉하고 있으며 불어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 그 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어 현장의 규정들에 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행정 기구의 불어화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8번의 회기가 있다. 본 기관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 불어 현장 조항 및 정부의 언어 정책을 환기시키고 불어 향상과 언어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3. 불어화와 관련한 다른 프로그램들

##### 1) 본사와 연구소들을 위한 특별 합의

본사와 연구소들 내에서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기능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어화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해 불어청과 특별히 합의할 수 있다.

##### 2) 불어 시험

불어청에서는 취업 허가를 얻기 위해 일부 지원자들이 치뤄야 하는 불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 3) 현장 23조의 적용

불어청이 인정한 행정기구들은 그들의 대민 서비스가 공용어(불어)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현장 23조에 의거하여 이 기구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공용어로 제공하는 기준과 직원들의 공용어 인식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작성해야 한다.

### 4) 현장 46항의 적용

고용주가 어떤 직업이나 직위에 대해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는 불어 현장 46항의 적용에 대한 불만을 수용하는 것도 본 국에 소관된 일이다.

### 5) 불어 향상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기업의 노사 대표자들이 기업 내의 불어화 상태를 진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다.

## II. 직업, 상업, 공무 환경의 불어화와 관련된 5개 지표

### 1. 모든 노사 대표들을 현재와 미래의 불어화에 능동적,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한다.

#### 1) 노사대표들과의 협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 기관은 1989-90년도에 25개 사용자 및 노동자 조합과 접촉하였고 이 만남을 통해 본 기관 단독으로는 케베의 불어화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2) 정보 처리에서의 불어 향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는 네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 i ) 정보 처리의 불어화에 관한 본 기관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들을 전파시키는 것, ii )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원조, iii ) 전문 잡지들의 체계적 조사와 기록 색인의 작성에 의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 iv ) 정보 처리에 관한 위원회, 토론회, 전시회에의 참여

### 2. 불어화 위원회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고 구체적,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지원한다.

#### 1) 토론회, 시청각 자료, 홍보용 도구 지원

2) 노조 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대기업의 불어화 위원회에 속한 조합원들의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조 연맹에의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3. 직업, 상업, 공무 환경의 불어화에 영어 공동체를 더 많이 참여시킨다.

본 기관이 케베의 불어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영어 공동체의 욕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 기관에서는 케베에서의 영어 사용자들의 상황을 정

화하게 판단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청년, 문화 공동체, 이민자 등 ‘미래를 이끌어 갈’ 몇몇 그룹들을 불어화에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1) 연구 : 이민과 직업어에 관한 종합 보고서

이것은 이민자들의 케베 도착 첫 해의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이다.

2) 정보 도록

이것은 잠재적 이민자와 새로이 도착한 자들을 위한 정보 도록의 제작을 위한 계획이다.

3) 임무

케베의 불어화에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본 기관의 직원 2명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이민 노동자들의 기업 내 통합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두 나라에서는 많은 언어연수강의들이 있고 수많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5. 10-49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케베의 불어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1) 고용인이 10-49명인 기업에서의 불어화 향상 프로그램

본 기관의 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어청 청장이 그 기업에 불어화 향상 캠페인에 관해 알려주는 편지를 쓴다. 다음으로는 불어화 고문이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기업의 장과 전화접촉을 하고 그의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방문을 하여 불어화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저작물을 제공한다.

2) 연구

중역과 자본가가 불어 사용자인 기업에서 불어화 증명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본 기관의 가정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 제3장 언어 연구 및 용어와 관련된 우선사업

I. 정기적으로 요구 사항들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표준화, 용어, 언어지원 등 의 분야에 관한 우선사업의 확립.

1. 요구 관리 체계의 도입 및 활용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본 기관의 발행물을, 언어 저작물이나 케베 용어 은행 (Banque de terminologie du Québec:BTQ) 적정량의 최적 규모 산출에 대한 필요성과 가장 적합하게 합치시키는 것이다.

2. 몇몇 활동을 새 방향으로 유도

1) 언어 원조: 본 기관에서는 창설 이래로 대중을 위한 언어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데 1989-90년 동안에 기업의 불어화와 관련된 필요성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부분적으로 언어 원조의 방향을 수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2) 도입 수단의 준비

#### 3) 퀘벡 용어 은행 체계의 최적 규모 산출

용어들의 산출과 전파 체계를 쇄신하기 위한 연구 개발 작업이 1989-9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산출 원형의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의 확인에 관한 것이었다.

Ⅱ. 불어화의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퀘벡의 불어화, 특히 기업 및 행정부의 불어화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용어적 자원의 적합한 산출의 확보.

#### 1. 용어 연구

본 기관의 용어 산출과 퀘벡인들의 용어에 관한 욕구를 합치시키기 위한 연구가 몇몇 파트너들과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 작업들은 원고의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2. 참고 자료

본 기관에서는 매년 퀘벡, 카나다 및 외국에서 시행된 용어 작업의 2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 3. 퀘벡용어 은행 내용의 최적 규모 산출

용어 은행은 불어화에 필요한 용어를 모으고 전파하도록 해주는 정보체계이다.

#### 4. 공식화 프로그램

불어청의 용어 위원회는 언어, 용어의 표준화, 추천 계획에 대한 본 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표준화된 용어 사용이 행정 기구와 대민 기구에서는 의무화되었다.

#### 5. 연구: 용어 카드 산출에 관한 연구

#### 6. 언어, 용어 연구에 관한 보조

이 프로그램은 퀘벡 연구자들의 용어 작업을 도와주고 언어사회적 변화가 야기시킨 주요 문제들에 대해 엄밀한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한다.

III.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불어화를 위해 용어들을 도입시키고 그것의 전파를 지원.

### 1. 용어 도입 프로그램

노동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 기업 내에 적합한 불어 용어의 도입을 돋는다.

### 2. 언어, 용어 원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언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각 분야에 고유한 불어 용어의 사용을 돋는다.

#### 1) 언어, 용어 상담

#### 2) 퀘벡 용어 은행의 도입

#### 3) 언어에 관한 기사 배포

#### 4) 활성화 계획

작업 환경 내의 불어를 향상시키고 각 경제활동 분야의 어휘를 단일화시키며 노동자들의 언어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계획이다

#### 5) 불어 완성 회의

기업 및 행정부의 사무국, 행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려는 회합

#### 6) 정기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 7) 저작물의 출판 및 배포

8) 알렉스(Alex) 프로젝트: 벨 카나다(Bell Canada)의 신제품 알렉스의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

## 제 4 장 조직에 관련된 우선사업

### I. 보다 나은 질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불어화의 틀 속에서 그 저작물과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에 일치시킨다.

- 저작물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행

- 저작물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 수행

### II. 보다 나은 효율성

모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내부적으로 확보한다.

1. 내부 간행물의 발행(일간, 주간)

2. 사무기기의 도입

3. 정보처리 체계의 활용

4. 도서관의 이용
5. 인력 자원의 관리
6. 본 기관 소관의 물질적, 재정적 자원 관리 (행정부서)

### III. 보다 큰 파급

불어 현장에서 본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파급장치들을 확보한다.

#### 1. 전시회

본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언어적 저작물을 보급하기 위해 살롱이나 전시회, 토론회의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

#### 2. 언론과의 교류

#### 3. 출판

본 국에서는 매년 특정 대중이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들을 출판하고 있다.

#### 4. 학술회의, 토론회 참여

#### 5.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

#### 6. 저작물 발표회

#### 7. 용어 연수

#### 8. 국제적 활동

##### 1) 양국 간, 다국 간 협력

이 협력 서류에 있어 본 기관의 활동은 불어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국제적 조정국들과의 관계를 중진시키고 그 영향을 확보하며 불어화 정책 및 용어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신어(新語) 및 용어 국제 협회(Réseau international de néologie et de terminologie: Rint)

##### 3) 언어 산업 관찰소

이 관찰소의 권한은 다음 5가지로 정의된다: i) 웨백 언어 산업의 결산표 작성, ii) 그 작업에 대한 정책 고찰, iii) 몇 가지 차원에서의 협력 장려, iv) 정보 전파, v) 이 산업의 발전에 영향받은 기구들에의 추천

##### 4) 국제 회의 개최

### IV. 1990-91년도의 지표

수년 간 본 기관은, i) 언어 정비와 기업들의 불어화 목표 실현에 대한 지원 분야, ii) 연구 방법론 및 저작물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 산출이라는 두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획득하였다. 이 두 가지 전문적 축은 불어의 위상과 질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 기관은 현재 불어화, 특히 기업들의 불어화 과정을, 한편으로는 본 기관이 규정한

지표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연구 집단들의 권고와 관련하여 엄밀히 판단하게 될 통계적인 계획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불어화를 위해서는 많은 도전에 응해야 함을 알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이미 불어화의 영속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본 기관은 다음 년도에는 퀘벡의 불어화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획을 실현시킬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VII. 불어권 카나다의 미래와 전망

불어권 카나다 연구의 기점을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이나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잡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것이다. 오늘의 불어권 카나다 사회는 과거의 오랜 역사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의 현재를 깊숙히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불어권 카나다의 현대사를 판류하는 주된 흐름들의 가닥을 찾아내서 그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어권 카나다의 미래와 전망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의도에 따라 서술되었다. 정체성(identité)의 추구, ‘통일성 속의 다양성’ 혹은 공존의 논리는 바로 그러한 주된 흐름들의 의미이며 불어권 카나다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핵심적 개념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부분별로 불어권 카나다 사회의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한 것이 두번째 부분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로 불어권 카나다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꾸며 보았다.

### 1. 불어권 카나다 현대사의 전개와 의미

#### (1) 현대사의 전개

한편으로는 개인과 자연 사이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몇 가지 근본적 변화가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불어권 카나다 사회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산업화, 도시화와 농촌 인구의 이동, 기술 혁신, 인구 통계학상의 변화와 이민, 자본주의와 노동 계급의 발전, 문맹퇴치와 교육, 문화발전, 민족주의와 연방주의, 국가의 개입, 여권(女權)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동시에, 그러나 다양한 리듬을 가지고, 상호 대화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오늘날의 불어권 카나다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불어권 카나다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때, 그 첫 단계는 대략 1867년에서 1896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불어권 카나다 사회는,

1840년대부터 일정한 힘을 갖고 시작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방면에서의 총체적 변화에 천천히 그리고 어렵게 적응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산업화였다. 산업화에 따라, 생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모되었고, 자본주의적 신흥 부르조아 계층이 확립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의 보호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제 관계도 함께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불어권 카나다의 농업은 점차 전문화의 길로 들어섰다. 1867년 이후의 이민자 수는 미미했으며 농촌인구도 영국 식민지 지역의 도시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인 면에서 불어권 카나다 사회는 카나다 내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미래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두드러지게 강화된 기독교의 권위는 불어권 카나다의 제도, 문화 속에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두번째 단계는 1896년부터 1929년까지를 말하며, 불어권 카나다 사회가 오랜 적응의 단계를 마치고 팽창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천연자원 개발을 선두로 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산업화, 도시화, 무산계급화가 확산되었다. 카나다 내 수시장의 양적, 질적 확대로 인해 전통적 산업도 호황을 이루었으며, 고용이 증대되자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반대로 미국으로의 이주는 감소하였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3차 산업의 발전과 도시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는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은 열악한 상태였다. 이 시기의 정치 상황은 민족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여파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하였지만, 자유당이 집권하여 국가가 재원의 증대, 지방 자치의 강화 등에 힘쓴 결과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또한 이때부터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초보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교육체제의 부분적 개혁이 실시되었다. 교회는 여전히 불어권 카나다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불어권 카나다 사회에 일고 있는 문화적 다변화에 적응하려 하였다.

세번째 단계인 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상황은, 그전까지의 낙관주의를 반전시킨 경제적 위기와 전쟁이 야기시킨 혼란으로 특징지워진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그때까지 우세하게 진행되었던 개발방식이 재고되었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산성이 하락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했으며 불안과 빈곤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카나다 연방의 기능이 다시 문제로 되었고, 연방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을 재편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퀘벡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보여준 새로운 활력에 비금가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불어권 카나다의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불어권 카나다 경제는 전쟁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고 노동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번영으로 복귀할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로 국가재원과 결정권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카나다 연방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케인즈 경제주의로선회하였고,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었다.

네번째 단계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번영의 시기였다. 팔복할 만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종속이란 댓가를 치르게 하였음은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에는 베이비 블루 일어나고 이민의 꾸준한 증가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육, 보건 등 사회보장책들이 요구되었지만, 기존의 제도들은 그러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고, 정부의 보수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개혁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뒤플레시스(Duplessis)의 통치와 성직자들의 세력 밑에서 사회·문화적 풍토는 경색되어 있었다. 이에 국가제도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개혁주의 사조가 대두되었다. 보수주의와 동일시된 퀘벡의 공식적 민족주의는 중앙집권적 민족주의에 맞서 주정부의 독자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주정부가 퀘벡인들을 위한 봉사·개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1960년대에 가서 본격화된다.

끝으로 조용한 혁명의 시기가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neo-libéralisme)’와 ‘복지국가(État-providence)’ 개념에 입각한 퀘벡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기구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사회전체에 급속히 확산된 非교권주의에 힘입어 국가는 개발사업의 선두에 서서 모든 영역에 개입하였다.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은 1960년대 말에 가서 거의 완결 상태에 이르게 되며, 3차 산업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고, ‘경제의 프랑스화(francisation de l'économie)’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걸쳐 불어권 카나다는 눈부신 문화발전을 이루하였고, 문화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퀘벡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퀘벡 자율성의 바람직한 정도를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 신홍 지배계급이 나뉘어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조합들과 정부 사이의 마찰이 타협점을 찾게 되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실업과 사회보장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불어권 카나다의 인구는 출생률 감소로 인해 고령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퀘벡 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영어권 주민들이 퀘벡 밖으로 집단 이주하는 경향이 늘어 났다. 한편 몇 가지 개혁조치들로 인해 사회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차츰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토양이 하루 아침에 마련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개혁 조치들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것들이었다. ‘조용한 혁명’의 시기란 결국, 과거로부터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개혁과 변화의 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었던 시기를 가리킨다.

## (2) 변화의 의미

불어권 카나다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진행된 변화의 방향 혹은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어권 카나다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첫번째 의미는, 1세기 이상의 퀘벡 현대사를 돌아켜 볼 때, 프랑스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불어권 카나다의 이미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사회

와 마찬가지로 불어권 카나다 사회에는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상호 접촉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케베인들의 다양하고도 간혹 상반되는 시도들이 불어권 카나다의 전 역사를 특징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어권 카나다의 케베인들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계급간, 지역간, 성별간, 활동분야별, 세대간의 대립과 차이가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케베이 유일하고 독창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신화 역시 편협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어권 카나다 사회도 산업화나 도시화 같은 서구적 혹은 세계적 규모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불어권 카나다는 차용한 것들로 이루어진 사회(*société d'emprunt*)로서, 영국과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기도 하고, 자유주의와 교황지상주의에 관한 유럽의 논쟁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현대의 예술적 경향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들은 불어권 카나다 사회에서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그 적응의 양상은 지역에 따라, 사회집단과 문화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이전(*移轉*)과 적응, 차용과 창조,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끊임없는 역학관계가 불어권 카나다의 변화를 특징짓고 있다.

세째, 불어권 카나다의 전통사회가 갑작스럽게 현대사회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란 점 또한 중요하다. ‘근대화(modernisation)’란 오히려 진화의 과정으로서 나타난 것이며 끊임없는 재정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후퇴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한다. 그 변화의 과정은 현상들에 따라, 지역과 사회계급에 따라, 성별과 세대에 따라 각각 다른 리듬으로 나타나게 된다.

네째, 불어권 카나다 역사의 모든 단계에 나타나는 민족주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상표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심층적인 민족주의는 거의 잠재적인 것으로서 불어권 내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선전되는 주의·주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 케베 민족주의의 역사는 전체 불어권 인들의 정체성 인식과 자기 주장 그리고 권리회복의 의지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불어권 카나다의 현대사 속에서 살펴본 변화의 이 모든 의미들은, 불어권 카나다의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제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부터 추정한 것들이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들이 그러하듯이, 불어권 카나다의 변화도 결코 완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변화의 방향도 현재와 미래의 주요 변수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 현재와 미래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따라서 불어권 카나다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인지를 이제 언어, 문화, 정치, 경제의 측면에서 차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 2. 불어권 카나다의 현재와 미래

### (1) 언어

#### 1) 언어의식의 변모

어떤 민족집단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때, 언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며, 그 집단의 문화를 키우는 토양이고 냇이다. 지난 세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의 언어를 말살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자국의 언어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식민지 통치정책의 제 1목표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어는 퀘벡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번째 지표이며 불어권 카나다 민족성의 상징이다. 불어권 카나다에 있어서 불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불어는 퀘벡 불어권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그들의 위상의 상징이며, 영어권이 지배적인 아메리카 대륙에서 퀘벡인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언어의 사용 인구의 측면에서 소수 민족에 속해온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독립 확보를 위한 일련의 투쟁에서 언어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60년대 이후, 불어권 카나다의 퀘벡인들이 경제면에서 팔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카나다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된 최근까지, 언어문제는 불어권 카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핵심적 사안이 되었다.

2세기 전부터 퀘벡인들의 언어 의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해왔다. 하나는 ‘언어의 질’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퀘벡 불어 공동체의 운명에 있어서 불어가 차지하는 ‘사회적, 사회학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 변화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질’의 차원에서는 카나다의 불어가 프랑스의 불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프랑스 본토 언어에 대한 언어적 ‘죄의식(culpabilisme)’에서 퀘벡 불어의 ‘독자성(autonomisme)’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며, ‘방언 특유의 어법(dialectalisme)’에서 불어권 카나다에서 통용되는 불어를 ‘유기적 개념(conception organique)’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둘째, 언어의 ‘사회적, 사회학적 역할’의 측면에서는 편협한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e)’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주기능을 불어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불어권 카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 의식의 변화는 과거와의 현격한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불러 일으킨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新중산 계급과 新엘리트 계층이 성장한 점, 둘째, 그 결과로서 불어권 카나다 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계층의 사회적, 언어적 압력이 증가한 점, 세째, 또 다른 결과로서, 불어권 카나다 사회가 불어와 불어공동체로서의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게 되어, 다수 그룹으로서, 불어권 카나다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공동체들과의 언어적 매개

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자각이 고조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불어권 카나다의 불어는 케베의 사회·언어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독자적인 불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케베의 불어권 공동체에서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불어권 카나다의 불어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공통분모이자 연결 고리이며, 몽레알을 언어, 문화적 모자이크 형태로 둑어주는 응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에 있어서 불어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불어권 카나다인이 된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불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한다는 것, 혹은 다른 불어권 카나다인들과 불어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 2) 불어권 카나다에서의 불어의 미래

불어권 카나다의 불어 사용 인구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케베에 있어서 과거의 언어 사용 인구 변화 과정에서 추출해낸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하며 가능한 여러 변수들을 아울러 고찰해야 할 것이다.

모어(母語)와 사용언어에 따른 인구통계의 변화와 불어권 카나다의 민족분포의 변화를 최근 수십년 간에 걸쳐 비교 검토할 때, 그 변화의 경향은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케베 지역에 있어서 영어사용자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어사용자의 상대적인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와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세 언어 그룹에 있어 인구통계적 변화의 원인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영어사용자의 변화는 영어권 집단의 이주 현상으로 인한 유출과 언어 이전(移轉)을 통한 그 외의 다른 언어 사용자로부터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세째, 불어사용자의 경우, 사용 언어의 측면에서 불어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1951년 당시의 모어에 따른 인구 분포율(82.5%)을 회복하게 된 것이 오직 자연 출생률의 증가에 의한 것이란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케베의 불어권 집단은 국내 및 국제 이주의 측면에서나, 불어권 카나다 내부의 다른 언어 집단과의 ‘언어 이전(transfert linguistique)’의 측면에서 거의 안정된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네째, 그 외 다른 언어 사용자의 변화는 높은 출생률, 낮은 사망률, 활발한 국제 이주로 인한 유입, 언어 이전을 통한 유출 등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 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케베의 불어권 집단은 앞으로 정체 혹은 감소의 추세를 보일 것 같다. 1976-1981년의 사용 언어 인구 동태를 감안할 때, 카나다 전체 인구에서 불어권 카나다 인구가 차지하는 뜻은 26.5% (1981년)에서 24.9% (2001년)로, 2021년에는 24.1%로 점차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불어권 카나다 내에서는 ‘불어화(francisation)’ 현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율과 언어 이전율이 1976-1981년의 경우와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케베 내에서 불어권의 비율은 사용 언어의 측면에서 82.5% (1981년)에서 83.6% (2001년), 84.4% (2021년)로 점차 향상될 것이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영어권의 비율은 12.7% (1981년)에서 11% (2001년), 10% (2021년)로 감소

할 것이며, 다른 언어의 경우는 5.5% (2021년)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의 증감 이외에 실제 불어권 카나다 인구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76-1981년의 인구통계 지표와 국제 이주 비율이 앞으로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할 때, 불어권 카나다의 인구는 2020년을 전후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의 불어사용 실제 인구도 2020년 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앞으로 몇 십년간 불어권 카나다는 더욱 불어화의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불어권 카나다에서 불어 사용자의 상대적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불어사용 인구는 더욱 노령화될 것이며 그 절대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불어가 몇 세대 후에도 계속해서 쓰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불어를 쓰는 불어권 카나다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어권 카나다에서의 불어의 미래는 불어권 카나다의 집단 의지라는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불어권 카나다의 문화와 경제 제도, 교육 체계, 이주민 수용과 동화작업 등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여부가 불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크다. 그러나 지나친 민족주의적 경향에 입각해서 불어만을 베타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불어의 미래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01법안 (불어현장, 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과 같은 법률안은 좀 더 유연성을 갖는 방향으로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불어가 불어권 카나다에서의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어의 효용적 가치가 더욱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불어권 카나다의 언어 정책 가운데 노동계에 대한 불어화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불어는 케베인들의 가치 뿐만 아니라 비불어권인들의 가치도 수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이 불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그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지향하는 불어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며 그들의 실천 의지이다.

## (2) 문화

### 1) 불어권 카나다의 사회·문화변동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면서 불어권 카나다의 사회와 문화는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제도, 가치관, 모랄 등이 전면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문화적 변혁 운동이 가속화된 것은 전후 카나다 경제의 부흥에 힘입은 생활 수준의 향상, 근대화에 대한 열망 등에 기인하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의 사회, 문화적 변동의 특징은, 전통 문화 및 식민 의식이 뒤늦게 해체되기 시작한 점, 과열성장에 따른 사회양상들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불어권 카나다의 이미지는 기독교, 불어, 혈족, 가족, 높은 출생률 등으로 굳

어져 있었다. 이러한 제도와 관습들의 소멸이 곧 불어권 카나다 문화의 소멸이라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란 제도들과 곁으로 드러난 관습들의 총체이기 이전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구조들의 총체로서, 한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다. 제도와 관습에는 이러한 정신적 구조들의 고유한 특성이 배어있기 마련이다. 사회·문화적 전환기에 처한 사회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불어권 카나다 사회에서도 산업화, 도시화의 진척과 함께 전통적 이데올로기와 식민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없어진 것은 몇몇 제도와 관습, 사상 혹은 가치들이지 불어권 카나다 문화 전체 혹은 그것을 특징지우는 구조화된 전체는 아니었다. 강조점의 변화와 내용의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인 불어권 카나다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불어권 카나다에 있어서 전통 문화 해체가 식민 의식의 해체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식민의식이나 전통 문화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하는 융합주의, 부조화가 나타나며, 계급과 사회집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주의와 모더니즘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성급한 보수주의자들은 구질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며, 혁신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요구하고 있다.

## 2) 문화적 다원성(multiculturalisme)

오늘날의 불어권 카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 자리잡은 프랑스계 1세대의 후예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불어권 카나다의 역사는 긴 이민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외적으로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불어권 카나다로 몰려들었다. 불어권 카나다는 북아프리카, 칠레, 베트남, 캄보디아의 불어권과, 그리이스, 이태리로부터의 정규 이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내적으로는 불어권 카나다 자체에서도 고급 이민인력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 정책과 이민의 역사는 비단 불어권 카나다 뿐만 아니라 카나다 전체를 특징짓는 문제이다.

카나다 서부 개척과 함께 진행된 이민 정책의 결과 다양한 인종들이 카나다로 몰려들었다. 주민의 40%가 프랑스계나 영국계가 아닌 타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주가 3개나 되며, 최근에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대 도시들은 고도의 다문화적,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적 다원성은 카나다 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가치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성의 문제는 불어권 카나다를 포함한 카나다 사회 전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카나다의 민족 해계모니의 변천을 통해 민족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영국계 및 프랑스계 정착민들이 기존의 다원적 토착 공동체를 파괴했다. 그후에는 그들 사이에 해계모니 다툼이 벌어졌는데, 해계모니를 장악

한 영국계가 동화정책을 실시하였고 프랑스계는 이에 반발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세계적으로 문화적 소수민족의 정체성, 자율성,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카나다 사회에서도 '민족성'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인간적, 문화적 뿌리를 찾고 문화적 유산에 대한 궁지를 키워나가게 되었다. 불어권 카나다의 '조용한 혁명'은 이러한 운동을 대변한 것이다. 카나다 연방정부는 '두개국어 및 2문화 공존에 관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를 설립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카나다에는 모든 문화 집단이 평등하다는 것과 어떤 공식적, 지배적 집단도 없다는 것을 언명한 1971년의 '다원 문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1982년의 수정헌법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헌장'에 삽입되었으며, 1988년 '카나다 다원 문화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으로 발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나다 정부는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 피부색 및 종교의 다양성을 카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간주하는 만큼 카나다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서 모든 카나다인들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카나다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호 및 육성시키기 위해 마련된 문화적 다원성 정책의 실행에 관여한다....

카나다가 다원 문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제적인 배경으로는 첫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아일랜드, 소련 등에서 소수 민족 분규가 발생한 것과, 둘째,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무역을 통한 상호의존도 증가 및 그 파급 효과가 환경 문제, 군비 축소, 문화적 상호 인정과 같은 영역으로 파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카나다의 문화는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 집단과 문화공동체들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둘째, 문화나 언어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카나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민족적 다양성이 국가 통일을 저해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유발한다는 신화를 깨뜨리는 예를 보여주었다. 네째,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 정신은 문화적 삶을 회생시키면서 경제적, 정치적 성공에 치중하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평등, 다양성, 공동체라는 3가지 개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평등의 개념은, 사회 내의 모든 개인과 문화적 집단들 간의 상호인정과 수용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이러한 개인과 집단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자유를 뜻하며, 집단들과 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적 관심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닐 수 있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회생 위에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체의 개념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문화 집단 및 지역 사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의미한다.

카나다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 및 종교를 가진 집단들을 포

용하는 법을 배웠다.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카나다는 개인적, 문화적 집단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 원칙은 더 나아가 카나다에 속한 개인과 집단의 권리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도 보호하고 인정하는 정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모든 공동체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향유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의 목표이고 의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 정책은 여러 문화 구성원들의 지지 속에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것이다. 문화적 다원성의 성과는 미래의 인류 공동체 개념의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들로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의지, 인종차별 문제의 수용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多인종, 多민족, 多문화로 구성된 국가들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종족문화적, 지역적 긴장을 해소할 모범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획일성과 배타성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상호의존의 미덕을 수용하는 성숙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 (3) 정치

#### 1) '별개의 사회'를 향한 불어권 카나다 정치의 어제와 오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이래 30년간, 퀘벡 정부가 수행해온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퀘벡주를 카나다 내에서 '별개의 사회'로 인정하는 헌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퀘벡당에 의해 주도된 퀘벡 민족주의의 입장은 카나다가 영국과 프랑스인의 합의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므로 언어와 문화면에서 상이한 두 집단의 언어·문화적 이익, 정치적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퀘벡을 제외한 카나다의 다른 영어권 주들은, 카나다의 모든 주들이 연방제도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하며 퀘벡주의 특별 지위를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카나다 내에서 '별개의 사회'임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퀘벡의 입장과 다른 영어권 주들의 불만, 형평의 문제, 그리고 연방 권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연방정부의 입장은 앞서 언급된 상이한 이해의 역학관계 속에서 충돌, 타협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1960년대에 퀘벡은 카나다의 다른 주들과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퀘벡주는 외교 업무가 연방정부의 관찰사항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정부법에 의거하여 국제기구 혹은 외국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연방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60년대 초의 르사쥬(Lesage) 정부 (1960-1966)는 불어권 카나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정 및 불어권 카나다의 불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은 어떤 헌법 수정안도 부결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그후의 퀘벡 주정부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헌법개정과 자치권 확득을 위한 퀘벡 주정부의 노력은 르사쥬 정부의 뒤를 이은 다니엘 존슨(Daniel Johnson) 정부 (1966-1968), 장-자크 베르트랑(Jean-Jacques Bertrand) 정부 (1968-1970)에 의해 계속되었다. 퀘벡 정부는

불어권 카나다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세입, 권한, 자치권을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요구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축소하여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키려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그 기능을 중앙 집중적 체제로 강화하려는 상반된 입장과 맞물려 7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 국민투표에서 카나다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 법안이 퀘벡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되고, 1981년 퀘벡주 수상이 불참한 가운데 ‘권리 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채택됨으로써 불어권 카나다의 정치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얹히게 되었다. 80년대 초 퀘벡 주정부와 트뤼도(Trudeau) 연방정부간의 냉전 상태는 1984년 멀로니(Mulroney)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퀘벡 자유당의 부라싸(Bourassa) 정부는 헌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불어권 카나다 사회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정할 것
- 이민정책에 관한 퀘벡주의 권리와 증대시킬 것
- 상원의원과 카나다 대법원의 대법관 지명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을 보장할 것
- 연방정부 기구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안에 관한 퀘벡주의 거부권을 인정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포함적으로 다루고 있는 1987년의 ‘미치 호수 조약(Meech Lake Accord)’에서, 불어권 카나다를 카나다 내의 ‘별개의 사회’로 인정하는 조항을 카나다 헌법에 추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퀘벡주의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른 영어권 주들이 미치 호수 조약에 반발하는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들이 맞물려 아직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퀘벡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는 비관적 시각과 낙관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불어권 카나다 정치의 미래와 전망

퀘벡과 카나다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은 헌법 협상, 경제 상황, 그밖의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치 호수 조약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퀘벡 경제의 급부상과 북미 대륙에서의 경제상황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퀘벡의 경제는 현재 카나다 연방으로부터 불어권 카나다의 정치적 분리 독립 주장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만큼 성장하였다.

미치 호수 조약이 타결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은, 영어권 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주(洲)간의 평등 개념 및 권리 자유헌장에 대한 믿음과, ‘별개의 사회’, 불평등 연방제를 원하는 불어권 카나다의 입장이 결코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미치 호수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균형적 연방제만이 연방-주정부 간 협상의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어권 카나다의 입장은, 카나다 연방 내에서 불어권 카나다의 특수한 존재와 역할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어떤 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협상의 어려움은 정치적인 면에서 카나다 연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치 호수 조약의 실패는 그 한 예일 뿐이다. 퀘벡을 포함한 정치협상의 어려움과 퀘벡

을 제외했을 때의 카나다 경제가 맞게 될 위기가 맞물려, 그것이 퀘벡-연방정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 인디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전통의 인정, 지방주의의 확산,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의 확산,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륙경제의 매력과 위험성 등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폭넓은 이의 집단으로 구성된 ‘벨랑제-캉포(Bélanger-Campeau)’ 위원회는 미치 호수 조약의 실패 후 카나다의 헌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이미 카나다 헌법에 대한 몇몇 제안들은 나와 있는데, 현상태 유지 안, 트뤼도 자유당의 ‘신연방제 안’, 페팽-로베르(Pepin-Robert) 특위의 ‘재구성된 연방제 안’, 퀘벡당의 ‘주권연합론(sovereignty association)’, 클로드 리昂(Claude Ryan)의 자유당이 내세운 ‘지방분권적 연방제 안’, 그리고 로베르 부라싸(Robert Bourassa)의 ‘상부구조론(Super-structure)’ 등이 그 예이다.

트뤼도 자유당 정부의 신연방제는 연방차원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권리 자유현장’과 헌법 수정안이 침가된 것이다. 신연방제의 또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는 페팽-로베르 특위의 연방제 안은 불균형적인 연방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퀘벡에 대해 법적인 특별 지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퀘벡주의 실제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연방제는 현재 퀘벡주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타 지역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퀘벡당의 주권연합론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어느 정도 불신임받은 것으로서, 퀘벡주가 경제적으로는 신 카나다 연방의 일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주로 존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C를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안은 경제적 연합 이전에 퀘벡의 주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주권연합안은 불어권 카나다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화적 다원성의 원칙에 따라 소수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과 주평등 원칙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퀘벡 자유당이 처음으로 발의한 ‘지방분권적 연방제(decentralized federalism)’는 주정부의 권한 강화와, 연방의회의 활동을 통한 연방정부의 영향력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안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우려하는 가난한 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로베르 부라싸의 상부구조안은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제동맹으로 구성된 두 주권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1991년 1월에 제출된 ‘불어권 카나다의 자유선택’이라는 알레르(Allaire)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범위를 축소할 것, 중요 권한을 주정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방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유용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다 연방에서 퀘벡이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불균형적 연방제, 지방분권적 연방제 등이 포괄적이고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헌법 논의도 타결되기 힘들 것이다. 헌법 논의의 결과가 어떠하든, 퀘벡과 카나다 연방은 미국-카나다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움직여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움직임은 반대로 헌법 논의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카나다 정치의 쟁점은 북미 대륙에서의 자유무역협정

과 같은 경제문제에 주도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그간 카나다 정치의 최대 혼란이었던 퀘벡주의 문화적 이해관계에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판단과, 미치 호수 조약도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전망을 동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연방정부의 경제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 경제별 비교우위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과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의하면 카나다 연방은 더욱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카나다는 새로운 연방 사회의 유형을 결정하여 이에 맞는 연방주의와 정치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4) 경제

##### 1) '조용한 혁명' 이후의 불어권 카나다 경제

1960년 경부터 시작된 불어권 카나다의 조용한 혁명은 사회적 가치관의 혁신, 교육개혁, 산업개혁, 정부의 리더쉽 등이 포함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회 개혁운동이었다. 개혁의 주도세력은 불어권 부르조아 출신의 신흥 지배계급으로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주의 입장장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내부적으로는 사회·경제분야에서 퀘벡인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카나다 연방정부와 국제무대에서 불어권 카나다의 위상이 상승하였다.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 非교권주의, 반교회 운동에 힘입어 소극적이고 물질적 가치를 경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경제적 성공을 인정하는 적극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정립된 사회적 가치 체계를 토대로 추진된 교육개혁의 결과, 불어권 카나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양산되었다. 특히 퀘벡정부는 다양한 정부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을 육성하였고 노사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개혁에 힘입어, 불어권 카나다 경제는 농업과 저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 자본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퀘벡의 조용한 혁명은 단시간 내에 퀘벡을 카나다의 가장 후진 지역에서 높은 생활수준과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선진사회로 털바꿈시켰다.

현재 퀘벡의 경제는 안정된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원, 자연자원 그리고 고도의 기술 수준을 포함한 생산수단을 갖추고 있다. 자연자원에 입각한 상품(종이, 알미늄, 펄프, 목재 등)과 광산물(동, 금, 철, 티타니움 등) 생산은 세계적 수준이며 불어권 카나다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불어권 카나다의 제조업은 아직까지도 40% 정도가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0년 동안 꾸준히 구조 개선에 애쓴 결과 선택적 구조개선 즉, 통신산업, 항공우주산업, 화학산업,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으며 이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다. 퀘벡의 3차 산업은 퀘벡 총 취업 인구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한계점에 이른 상태이고, 제조업 강화가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퀘벡의 무역의존도는 비교적 높다. 퀘벡주 총생산의 반

이 카나다 국내 및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 수출보다는 해외 수출이, 자연자원보다는 가공상품 수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현재 퀘벡 수출의 추세이다.

카나다 국내 지역에 대한 퀘벡의 수출은 주로 온타리오주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90년도 현재 75%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퀘벡 경제의 지나친 수출 의존도는 불어권 카나다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제 수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제지, 알루미늄, 차량, 통신제품, 항공산업 제품 등이다. 반면 퀘벡의 국제 수입품목은 주로 차량, 전자제품 및 반도체, 석유 등으로 수출과 비교해 볼 때 지배적 상품이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입 대상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의 경우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앞으로 불어권 카나다 경제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재래식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통신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 비중을 높이는 일, 산림 및 관련 산업의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피하는 일, 수출의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2) 불어권 카나다 경제의 미래와 전망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어권 카나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변수들에 따라 그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 내부적 변수로는 퀘벡 경제의 국제 경쟁력, 카나다 경제의 전망, 퀘벡주의 독립 가능성 등을, 외부적 변수로는 국제 경제의 추세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퀘벡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퀘벡 경제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져 비교적 낮은 노임 상승률을 유지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노임 상승의 둔화, 물가의 안정, 원만한 노사관계 등의 요인은 앞으로도 불어권 카나다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퀘벡과 카나다의 경제는 비교적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퀘벡 경제가 지금 통신과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의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은 불어권 카나다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퀘벡의 분리 독립은 카나다 연방의 정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연방 자체의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나다 연방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카나다에서 퀘벡의 개별성을 보장하고 더 많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퀘벡의 경제는 카나다의 경우처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미국-카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소수 품목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목표로 하여, 자본, 노동인력의 자유스러운 이동, 자국 내에서 상대국 기업에 대

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생겨날 단기적 문제점으로는, 그간 관세보호를 많이 받아온 제조업 분야의 타격, 미국 자본의 철수, 미국의 거대기업에 대한 카나다 기업의 상대적 열세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미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한 기업 전문화가 확립됨으로써 케벡과 카나다 경제는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EC 공동체의 경제 블록화가 보여주듯이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하여 불어권 카나다와 카나다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 3. 세계 속의 불어권 카나다

#### (1) 케벡과 불어권

케벡은 1987년 9월 카나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불어권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불어권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케벡주정부는 이미 1961년 불어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협력을 해왔다. 케벡 불어권 정상회의에서 케벡 정부의 수상은, 불어권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케벡이 완전한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케벡 불어권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구체적 사안들이 토의, 의결되었다. 케벡 정부는 이러한 결정 사항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세계 불어권 공동체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다. 불어권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불어권 통신망 가설, 소프트웨어 생산과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어권 정보시장 건설, 다국적 기술개발팀 구성, 에너지 공동 사용과 개발에 관한 위원회 구성 등이 그 예이다.

케벡은 프랑스와 더불어 불어권이 추진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이 있으며, 또 이끌어야 한다. 다양한 인종, 상이한 언어, 그에 따른 복잡한 갈등과 이해 관계를 수세기 동안 체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온 케벡인들은 문화·언어·민족적 다양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패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 정책이 쇠퇴하고 점차 다원화, 세계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어권 카나다의 지혜와 노력은 불어권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2) 통일성 속의 다양성

정체성 추구의 역사라는 개념이 불어권 카나다의 현대사를 관류하는 주된 흐름이라 해도 크게 빗나간 판단은 아닐 것이다. 케벡의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투쟁해야 했던 대상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에도 있었다. 소수의 케벡인들이 다수의 영어권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언어적·문화적 동화

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프랑스 본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식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불어권 카나다의 구어 불어인 주알어를 부끄럽고도 사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들의 언어의식 속에는 그러한 사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프랑스적인 것에 뿌리를 둔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집단들과 투쟁하면서 터득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논리였다. 획일성과 배타성의 원칙은 그들을 포함한 카나다의 복잡미묘한 인종적·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언어 문화적 자율성의 확보와 정치적 자치권을 둘러싼 케베 정부와 카나다 연방 정부간의 관계는 이러한 공존의 논리를 연마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이 공존의 논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정신이다. 이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란 개념은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이 함축하고 있는 평등, 다양성, 공동체라는 3가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들과 집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과 집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권리도 인정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개념을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사회집단, 민족집단, 인종집단 등으로 확산시켜 적용할 때, 통일성의 개념은 인류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이거나 공통의 규율, 원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소련 연방의 해체는 일부 소수민족의 독립과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부산물로 남겼고, 20세기 인류 최대의 실험인 공산주의 실험이 일단 실패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계는 더욱 다원화, 인간화, 세계화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종 갈등은 21세기에 가서 더욱 침예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케베과 카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의 예는 새로운 세계공동체의 개념을 세우고 윤리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VIII.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불어권 카나다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섯 분야에 걸친 논의를 펼쳐 왔다. 그리고 미진하나마 이 문화권이 안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그 미래를 위한 전망을 마지막 6장에서 항목별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6장은 실제적으로 이 연구의 세분화된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는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두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최종적 결론의 말을 맺고자 한다. 그 하나는 독자적 문화권으로서의 케베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카나다 연방체에 속한 한 주로서의 케베의 문제인 바, 실상 그 두 측면은 동전의 앞뒤처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독자적 문화권으로서의 퀘벡의 문제 역시 그 자체로 양면성을 품고 있는데, 그 구체적 양상은 같은 카나다 내의 영어문화권과의 관계와 구대륙의 프랑스 문화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전자는 공간적으로 하나로 묶인 정치적 제도권 내에서 소수 그룹의 위치에 처한 민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보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후자는 역사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독자적 형태로 변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각각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 두 차원의 문제에 출구가 열릴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되어주는 것이 이른바 '주알이'의 성립이다. 아직은 정통 불어의 권위 앞에서 열등감을 모면하고 있지 못하나, 카나다식으로 변형된 불어인 주알이는 인류문화가 지니는 보편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이 그 환경에 알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케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알이로 상징되는 퀘벡의 새로운 문화가 그 나름의 체계와 깊이를 획득하게 될 때, 그것은 세계 문화 사회에서 독자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카나다 연방 속에 속한 한 주로서의 퀘벡의 문제도 그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카나다 영어권 역시 비록 카나다 내에서는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지라도 유럽의 영국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와 소수의 정치적 이해 관계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 속에 수용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 속에서 전통보다는 현실 사회가 언제나 더 큰 존재구속성을 지녀왔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의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통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미 보았지만 카나다내의 갈등은 단순히 영국 이주민과 프랑스 이주민의 대립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현실적 요인에 따라 영국 이주민들의 어떤 집단과 프랑스 이주민들의 어떤 집단이 결합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양상들이 결국은 전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약 바람직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카나다는 인류 미래 문화의 진정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원문화적이면서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통해 이상화시켰던 그 꿈은 세계사 속에서 많은 굴곡을 거쳐왔고, 미국에 의한 그 실험은 다른 한편으로 많은 모순과 부딪쳐 그 추진력을 잃고 있는 듯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어권 카나다가 제기하는 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평등·다양성·공동체의 세 개념에 입각한 카나다의 다원문화 정책은 신대륙의 오랜 이상이었지만, 미국의 모순을 참조한 보다 이상적 사회 정책 위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아직 너무나 많은 난관을 앞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가령 정치적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연방주의 이념의 공존은, 아직 그 두 이념이 바람직한 통합점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모순된 힘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퀘벡의 분리주의자들이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민족주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 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적 사유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는 진정한 의식의 혁명인지도 모른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불어권 카나다의 이해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사적인 문제를 품는다. 그 안에서 다양한 층위의 갈등적 요소들은 상호 대화적인 역학 관계를 이루며 변증법적 지양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퀘벡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지양과 새로운 지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라는 문제로 분명히 떠오른 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그 바람직한 출구를 향해 어려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만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궁극적으로는 풍요로운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려는 인류의 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Audet L-P.

1971 *Histoire de l'enseignement au Québec 1608-1971*, tome 2 Holt; Rinehart & Winston  
Paul- André Linteau

1989 *Histoire du Québec contemporain, 1867-1929*, Boreal  
Paul- André Linteau

1989 *Histoire du Québec contemporain, Depuis 1930*, Boreal  
Bellanger A-J.

1974 *Apolitisme des idéologies québécoises, le grand tournant de 1934-1936*, Québec;  
PUL

Bellanger A-J.

1977 *Ruptures et constantes-Quatre idéologies du Québec en éclatement*, Montréal;  
Hurtubise HMH

Bellanger Y. et Fournier P.

1987 *L'Entreprise québécoise*, Hurtubise HMH

Baillargeon(sous la direction de) J-P.

1986 *Les Pratiques culturelles des Québécois, Une autre image de nous-même*, Québec:  
IQRC

Baillargeon M. et Benjamin C.

1981 *Les fruits linguistiques possible de la région de Montréal en 2001*, Ministere de l'  
immigration

Balthazar L.

1986 *Bilan du nationalisme au Québec*, Hexagone

Benjamin J.

1974 *Planification et politique au Québec*, Presse de l'universite de Montréal  
Bersgeron G.

1984 *Pratique de l'État au Québec*, Eds. Québec/Amérique

- Bernard et al P.
- 1979 *L'évolution de la situation socio-economique des francophones et des non-francophones au Québec (1971-1978)*, Collection Langue et Société 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 Boismenu G, Kailhout L, Rouillard J.
- 1986 *Le Québec en textes, anthologie 1940-1986*, Boreal
- Bodin et al B.
- 1980 *A propos de l'association Canada-Québec*,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ublique
- Bouthillette, J.
- 1989 *Le Canadien français et son double*, Montréal; L'hexagone
- Cappon P.
- 1974 *Conflit entre les Neo-canadiens et les francophones de Montréal* Québec; Presse de l'université Laval
- Daoust G.
- 1975 *L'éducation permanente et l'université québécoises, a la recherche de strategies*, Les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de Grandpre P.
- 1968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u Québec* t. 1,2 Beauchemin
- Dionne L.
- 1984 *Le Québécois et sa littérature*, Sherbrooke; Naaman
- Duchesne R.
- 1978 *La science et le pouvoir au Québec(1920-1965)*, Québec; Editeur officiel
- Dumont F, Hamelin J. et Montiminy J-P.
- 1978 *Ideologies au Canada Français 1930-1939*, Québec; PUL
- Dumont F, Hamelin J. et Montiminy J-P.
- 1981 *Idéologies au Canada Français 1940-1976*, Québec; PUL
- Dumont F. et Falardeau J-C.
- 1964 *Littérature et Société canadienne-française*, Québec; Presse de l'université Laval
- Dunn O.
- 1976 *Glossaire franco-canadien*, Québec; PUL (reimpression)
- Durocher R. et Linteau P-A.
- 1971 *Le retard du Québec et l'inferiorité économique de Canadiens français*, Montréal; Boreal Express,
- Fournier P.
- 1979 *Les société d'État et les objectifs économiques du Québec: une évaluation préliminaire*, Québec; Editeur officiel
- Fournier P.

- 1981 *Capitalisme et politiques au Québec*, Montréal; Albert Saint-Martin  
Galarneau C.
- 1978 *Les collègues classiques au Canada français*, Montréal; Fides  
Gemar J-C.
- 1983 *Les trois états de la politique linguistique du Québec*, D'une société traduite à une  
société d'expression, Québec; Editeur officiel.
- Gow J.
- 1986 *Histoir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québécoise, 1867-1970*, Montréal; Presse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Hamelin J. Provencher J.
- 1987 *Breve histoire du Québec*
- Klinck C-F.
- 1970 *Histoire littéraire du Canada; Littérature canadienne de langue anglaise*, Québec;  
PUL.
- Lamonde Y.
- 1976 *Guide d'histoire du Québec*, Boreal
- Lamode Y. et Trepanier E.
- 1986 *L'avenement de la modernité culturelle au Québec*, Québec; IQRC
- Laurendeau M.
- 1990 *Les Québécois violents. la violence politique 1962-1972*, Boreal
- Le Bel et M. Paquette J-M.
- 1979 *Le Québec par ses textes littéraires(1534-1976)*, Montréal et Paris, France-Québec  
et Nathan
- Maheu R.
- 1970 *Les francophones au Canada : 1941-1991*, Montréal; Parti-Pris.
- Mique J-L.
- 1971 *Le Québec d'aujourd'hui, regard d'un universitaire*, Hurtubise HMH
- Morisset G.
- 1941 *Coup d'œil sur les arts en Nouvelle-France*, Québec
- Ostiguy J-R.
- 1982 *Esthétiques modernes au Québec 1961-1946*, Ottawa; GNC
- Orban E.
- 1976 *La modernisation politique du Québec*, Montréal; Boreal Express
- Rioux M.
- 1975 *Les Québécois*, Paris; Le Seuil
- Riroux M. et Martin Y.
- 1971 *La société canadienne-française*, Montréal; Hurtubise HMH.

Sabourin L.

1970 *Le systeme politique au Canada, Institutions federales et québécoises*, Ottawa; Eds.  
de l'université d'Ottawa

Tard L-M.

1976 *Au Québec*, Paris; Hachette

Tetu M.

1988 *La Francophonie, histoire problematique perspectives*, Paris; Hachette

Tremblay M-A.

1983 *L'identité québécoise en peril*, Saint-Foy, Eds. Saint-Yves

Vaillancourt Y.

1988 *L'évolution des politiques sociales au Québec 1940-1960*, Montréal; Presse de l'  
Université de Montréal

### Etude sur le Canada francophone

Le but de cette étude est d'établir les connaissances préliminaires et globales sur la culture du Québec, région francophone du Canada. Cette région a un statut particulier dans la culture mondiale; comme un petit îlot francophone entouré d'une mer anglophone, le Québec a toujours eu la volonté de sauvegarder son identité spécifique, à travers les aléas d'une histoire agitée, parfois périlleuse même.

Portant notre attention sur cette spécificité, nous avons essayé d'examiner la francophonie canadienne en cinq domaines : celui de l'histoire, de la politique, de l'économie, de l'art et de la langue. Notre réflexion s'est penchée surtout sur les questions suivantes:

- l'évolution du français au Canada à travers les siècles
- l'impact de l'usage du français sur la vie culturelle
- la situation actuelle du bilinguisme canadien
- la conscience identitaire des francophones canadiens
- la situation actuelle économique du Québec
- Le pluriculturalisme et le modèle canadien par rapport au modèle américain
- leur résonnance dans la conscience culturelle et politique
- l'impasse constitutionnelle et la conscience politique des Canadiens
- le Canada, quel avenir?

Ce faisant, nous avons pu constater que le Québec est une région culturelle indépendante s'efforçant à maintenir son identité spécifique dans les relations complexes avec les autres

communautés culturelles et à atteindre son but essentiel : “la diversité dans l’unité”.

한명수, 숭실대 불문학과교수  
원윤수, 서울대 불문학과교수  
이인성, 서울대 불문학과교수  
이해방, 방통대 불문학교수